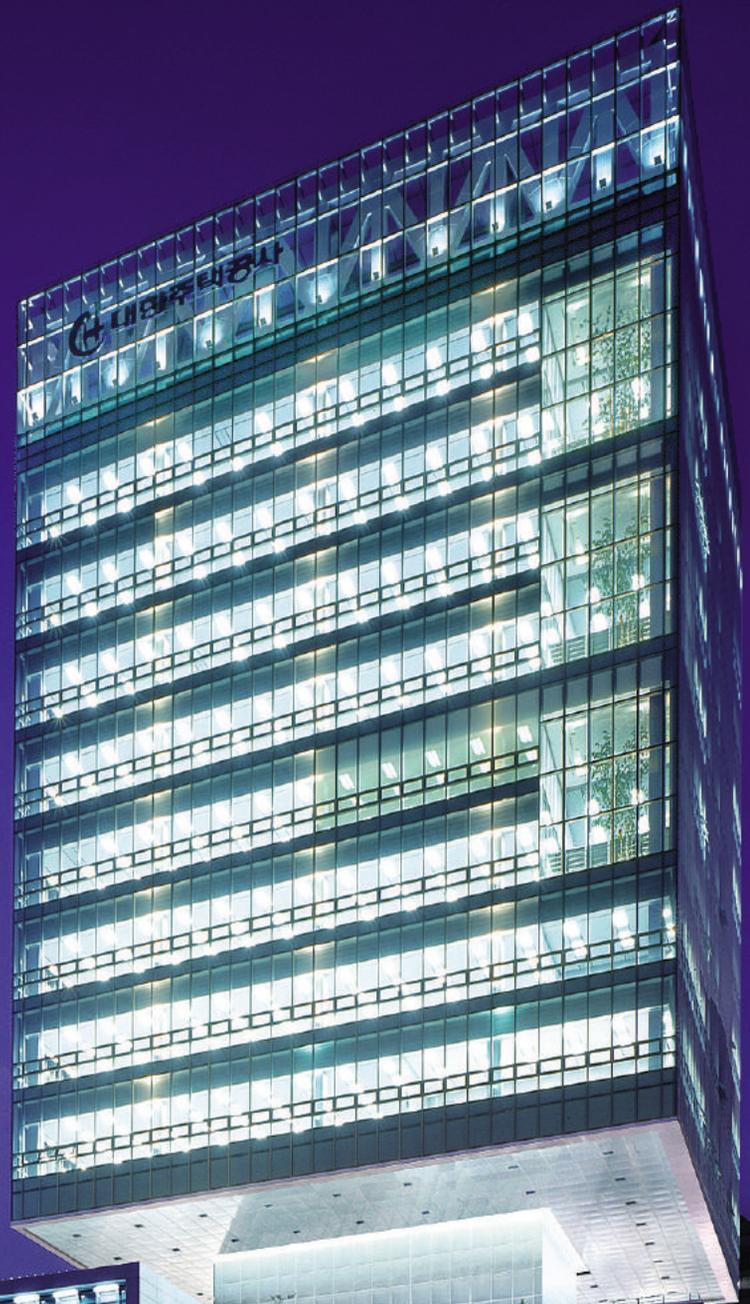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s

건축사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아임삭 오창 공장

제주명품사옥

연세나은병원

인테리어 디자인 6題

**468**  
<http://www.kira.or.kr>  
**200804**

# Contents



22

28

36

##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8 04 468호

칼럼	건축행위와 책임	백민석	14
시론	빌딩정보 모델링,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린빌딩	정태승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이종찬	20
	아임식 오창 공장	신춘규	26
	제주명품사옥	양 건	34
	연세나은병원(희성재활전문병원)	조정철	40
작품노트	인테리어 디자인 9월	오혁근 · 김종수	46
현상설계	상지대학교 교육시설		54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직원사택		60
	한전 KDN 충남전차		66
계획작품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김순도	70
연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2)	최영배	73
연구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대하여(下)	김득수	78
건축마당	협회소식		83
	건축계소식		89
	법령		91
지상강좌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임정의	103
	통계		106
	해외잡지동향		107
	백민석 책을 말한다		120

발행인 한명수  
 편집위원 백민석 · 김형수 · 임영석 · 유대근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ra.or.kr  
 인쇄 (주)현대문화사 Tel: (02)2278-4482  
 광고문의 홍보편집팀



44



46

### Column

Architectural Activity and responsibility Baek, Min-seok 14

### Focus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ustainable Design, Green Building Chung, Tae-seung 16

### Cartoon

Yoo, Won-jai 19

### Works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Daegu-Kyungbuk Region Head Division Lee, Jong-chan 20  
Aimsak Ochang Factory Shin, Chun-gyu 26  
Jeju Myungpum business house Yang, Gun 34  
Yeosu Naam Hospital Cho, Jung-chul 40

### Design Note

Oh, Hyeok-geun · Kim, Jong-su 46

### Competition

Sangji University Education Facilities 54  
Dang Jin' Company House 60  
Chung-Nam Branch of KDN 66

### Process Work

Korea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cademy Kim, Sun-do 70

### Serial

Discussion o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2) Choi, Young-bae 73

### Study

Urban Spatial Structure of Modern City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under the Japanese Rule(ㄱ-) Kim, Deuk-soo 78

### Architects' Plaza

Kira News 83  
Arch-Net 89  
Law&ordinances 91

### Lecture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Lim, Chung-eui 103  
Statistics 106  
Overseas Journal 107  
Book Review 120

# Korean Architects

Vol. 468

April 2008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Baek, Min-seok & Kim, Hyung-soo & Im, Yeong-seok & Yu, Dae-keu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백민석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Baek,Min-seok,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 박사 수료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국립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

## 건축행위와 책임

### Architectural Activity and responsibility

오는 5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마지막으로 전국 248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건축행위는 인터넷 건축행정종합 정보시스템(e-AIS)인 '세움터' (<http://www.eais.go.kr>)를 통해서 행정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해 7월 건축인허가 민원의 완전한 전자적 실시간(On-Line) 처리와 내부부서 및 외부기관과의 온라인 협의를 통해 유관시스템과 연계, 정보의 공동 활용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건축 관련 통계를 관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축적된 자료를 행정적,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부산광역시와 4개의 기초자치단체 등 시험 도입된 이후 약 10개월의 기간동안 적용지역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이제 그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세움터'의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의 건축행위 및 건축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의미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의 도입은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도입 초기 이러저러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 신발을 구입, 새로 신을 때에도 소위 '길이 들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처럼 익숙함의 결여로 운영 초반에 야기되는 불편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절차상의 불편함과 사용의 익숙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불만이 아닌 민원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이나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건축물 및 새로운 건축행위(추가행위를 포함) 이후의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건축 관련 민원의 주체는 건축주라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세움터' 이전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건축주의 날인은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인허가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물론 건축행위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인허가 과정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건축주에게 알려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는다. 건축주가 이러한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인허가 과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움터'를 통해 건축인허가 서류 및 도면 등을 확인 후 인증을 하는 것이 건축주의 당연한 권리가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주가 소위 '컴맹'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건축주의 연령분포는 중장년층 이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이외에 젊은

## 건축 인허가 과정 초기에

건축주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제출만으로 건축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또한 건축주에게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건축주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사 간의 크고 작은 송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임장과 계약서를 통한 인증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이에 지수성가해서 작은 건축물 하나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건축주의 연령분포가 중장년층 이상이다 보니 '세움터'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도서 및 문서의 입력과정이 한 번에 처리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서로 다른 인허가 방침이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보완 없이 한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흔치않다) 보완과정이 몇 차례 발생하면 법인 소속 담당자가 귀찮아 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현재 '세움터'에서는 공인 인증서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세움터 메인 화면에 팝업창으로 표현되는 내용이다)

### 〈세움터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

공인인증은 신청서상의 날인을 대체하는 수단이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인인증은 필수사항입니다.

- 1) 건축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등록, 제출하는 경우 건축주 인증
- 2) 건축주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제출하는 경우 건축주 인증

공인 인증서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상기 내용에서도 날인을 대신하는 수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결국 건축 인허가 과정 초기에 건축주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제출만으로 건축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또한 건축주에게 있음에도 그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건축주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주와 건축사, 건설사 간의 크고 작은 송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임장과 계약서를 통한 인증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건축사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신고 여부 확인, 민원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설계도서 표준화, 건축물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도 면밀한 검토를 통한 보완이 시급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검토 또한 요구된다. ■



정태승 / 오토데스크코리아 정부공공사업부 부장  
by Chung, Tae-seung

- 약력
- 공학박사
  - KDAI BIM 분과위원장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빌딩정보 모델링, 지속가능한 디자인, 그린빌딩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ustainable Design, Green Building

근래 들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ustainable Design, Green Building 이라는 씨앗들이 건축의 물줄기를 조금씩 바꾸며 여기저기서 세상을 향해 싹을 틔우고 있다.

대중 매체들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 공공 첫 BIM 의미와 과제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 조치다.” - 일간 건설 신문, 2008년 3월 12일

2008년 10월, 세계디자인올림픽(WDO 2008)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디자인 한류” 그 거대한 문이 열린다. - 연합 뉴스, 2008년 1월 31일

-중략-

#### 세계디자인올림픽 대회 중심어

*Sustainable*: 환경 친화적인 접근으로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

*Convergent*: 디자인과 타학문간의 교류, 디자인과 도시정책 개발의 융합

*Interactive*: 인간과 제품, 환경의 상호 작용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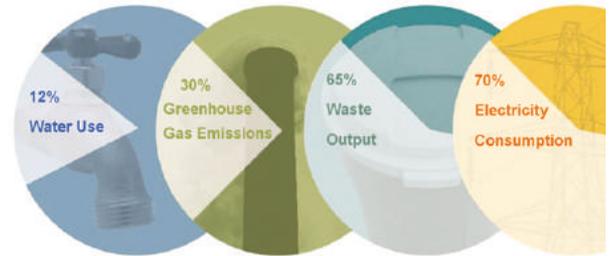
*Participatory*: 시민의 참여로 인간중심 디자인을 완성

*Connected*: 세계로 연결되는 디자인도시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조사한 Autodesk / KIRA Green Index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

- 건축사들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산업분야에서 Green Building 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고객이 관심을 가진다면 건축사들도 이를 적극적으

이러한 작업은 정보를 손쉽게 변경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또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뿌리부터 잎까지  
 흘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BIM 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다.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 이를 통해 설계와 분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창작에 쏟을 수 있지 않을까?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물,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에너지들, 전력 소비(미국 에너지국)

로 수용할 수 있다.

- 미래에는 Green Design 을 실현하는 것이 설계의 요체가 될 것이다.

BIM, Sustainable Design, Green Building 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듯이 보이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자라나온 한 그루의 큰 나무이다.

Green Building을 설계한다면 아마도 여러 종류의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을 생각해보자. 창문의 크기, 유형, 성능 또는 향은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일상적인 설계 과정에 따른 다면 증대한 설계 변경 과정을 제외하고는 설계자가 마음껏 위치나 유형 등의 변경에 따른 디자인, 에너지 효율 과 같은 요소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변경하는 작업을 손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Green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추가 되는 투자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투자비를 회수하여 설계한 건물이 건강한 Green Building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건물임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정보를 손쉽게 변경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또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뿌리부터 잎까지 흘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BIM' 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다.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 이를 통해 설계와 분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창작에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BIM이 회자되는 이유이며,  
 건축사가 Green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서의 BIM이며,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의 지구에 대해 건축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할 'Design' 이것이 'Sustainable Design' 이 아닐까?

이제 나무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날 수 있도록 고객들은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고, 건축사들은 자신의 토양에 물을 주고 정부와 산업체들은 단비가 내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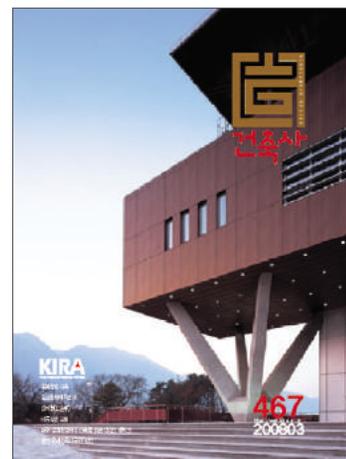
#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15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작품노트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2~4매 내외,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기 타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알리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 모든 원고는 '건축사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가 논의되며, 편집방향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마감 : 매월 2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우편번호 137-877)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유원재 / [www.darchi.net](http://www.darchi.net)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튜터



건축만평은 회원들의 열린 마당입니다. 이 난은 우리 협회의 공식적 취지와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스런 주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만화라는 장르를 통한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평의 내용은 대상을 폄하하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종찬** / 정회원,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chan, KIRA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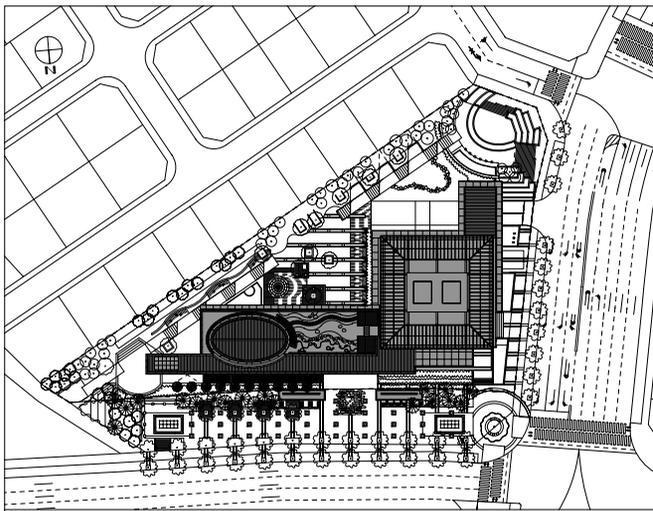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지역발전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 2006 ALA Design Award 금상 수상 (한국국제전시장-Kintex)
- 작품 : 한국국제전시장, 국립남도국악원, 동남권 유통단지 가블럭, 공군회관 외 다수

#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Daegu-Kyungbuk Region Head Division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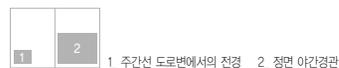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499m <sup>2</sup>
건축면적	2,430m <sup>2</sup>
연면적	24,859m <sup>2</sup>
건폐율	37.39%
용적률	241.53%
규모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차대수	264대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Suspension)
외부마감	THK24 컬러로이복층유리, THK17.52 강화접합유리 고강도알루미늄슈트, 고밀도우드패널
시공사	대림산업(주)
설계담당	박근우, 장순택, 정주찬, 김대홍, 박정만, 김중수
사진촬영	조태룡



Location	1445, Dowon-dong, Dalseo-gu, Daegu, Korea
Site area	6,499m <sup>2</sup>
Bldg area	2,430m <sup>2</sup>
Gross floor area	24,859m <sup>2</sup>
Bldg. coverage ratio	37.39%
Gross floor ratio	241.53%
Structure	S,R,C(Suspension)
Bldg. Scale	B2, F13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트임'이라는 타이틀로 요약될 수 있다.

'트임'은 '열림'의 의미보다 적극적이며, 가시성의 강화를 내포한다. 주변의 저층 주거군에서의 가시성을 고려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끄는 녹지·테마공원에서 저층부의 주민편의시설까지 이어지는 개방성을 '트임'으로 규정하였다.

사무공간인 고층부의 공중부양은 저층부와 격리가 아닌 수직적인 전이공간의 마련이며, Sky Garden의 조성으로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구조는 단순히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떠나 건축미로 승화되는 Tectonic 요소를 포함한다.

최상층 상부의 철골 트러스는 고층부의 하중을 잡아주고, 그 자체가 역학적 긴장감을 주는 미적 요소가 되게 한다.

배치에서 고층부는 시각적 차폐와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주거군과 이격하였고, 이격된 공간은 문화적 성격의 테마공원으로 채워놓았다.

건축물이 자기중심적으로 서있는 것이 아닌 주변과의 화합을 주도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무공간의 2개층 오픈된 휴게정원은 시각적 청량감과 식목으로 인한 실내공기의 자연정화의 효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도시 내의 녹시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트임'의 의도는 인간(지역주민)과 인간(근무자), 자연과 인간, 도시와 건축물 사이를 막힘없이 띄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공간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민열린마당, 수목아래 휴식을 위한 가로쉼터,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주민참여꽃밭, 이용자의 즐거움을 위한 바닥분수 등을 계획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차고 친근한 공원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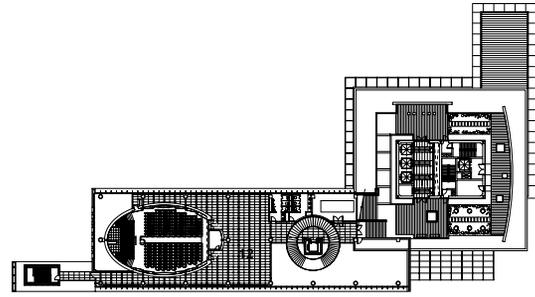
저층부 공간구성은 도서관, 유아놀이방, 대회의실 등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배치, 고층부 공간구성은 업무공간 및 업무지원 시설 배치로 저층부와 고층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저층부와 고층부의 트임공간에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근무자의 휴식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구조미를 살린 입면구성과 하이테크한 건축재료의 사용으로, 주택공사의 기술력과 미래지향적 이미지, 정직과 신뢰 투명성을 상징할 수 있는 입면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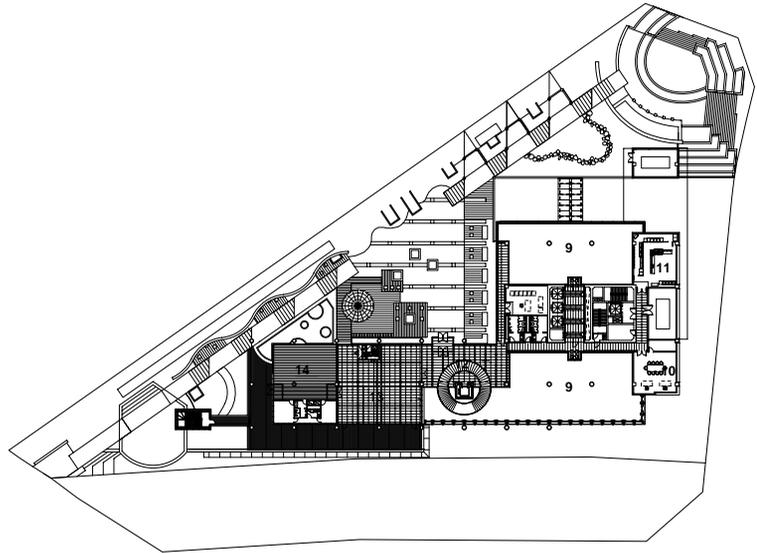


- 01\_ 전시로비
- 02\_ 도서실
- 03\_ 로비
- 04\_ 은행출장소
- 05\_ 수장고
- 06\_ 사무실
- 07\_ 만능시험기
- 08\_ 시험실
- 09\_ 아트리움
- 10\_ 입찰실
- 11\_ 중앙통제실
- 12\_ 휴게라운지
- 13\_ 커뮤니티공간
- 14\_ 유아놀이방
- 15\_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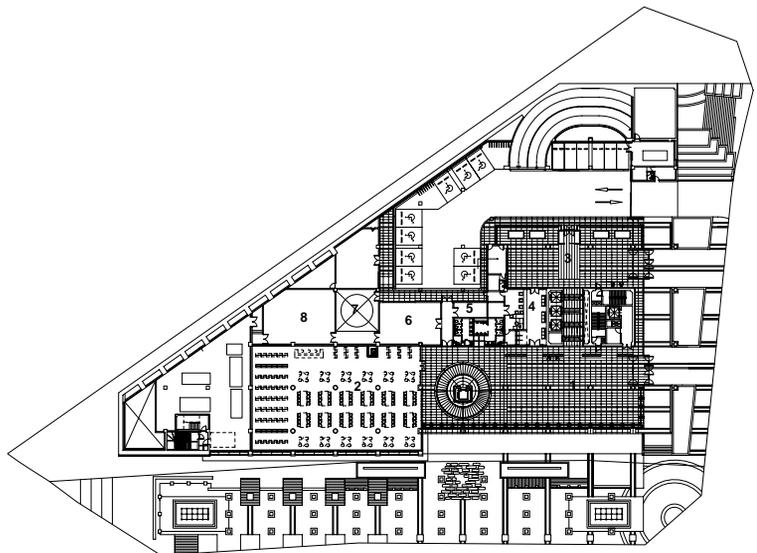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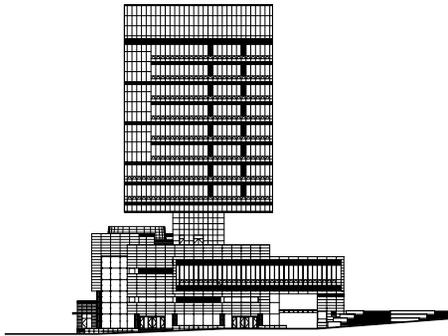
- |   |   |
|---|---|
| 1 | 4 |
| 2 | 5 |
- 1\_ 남측전경
  - 2\_ 전면 가로변에서의 모습
  - 3\_ 외부 연결 복도
  - 4\_ 내부 플라이트
  - 5\_ 타워 상부 트러스(Sus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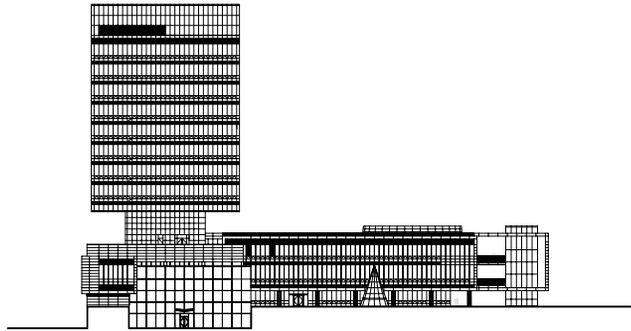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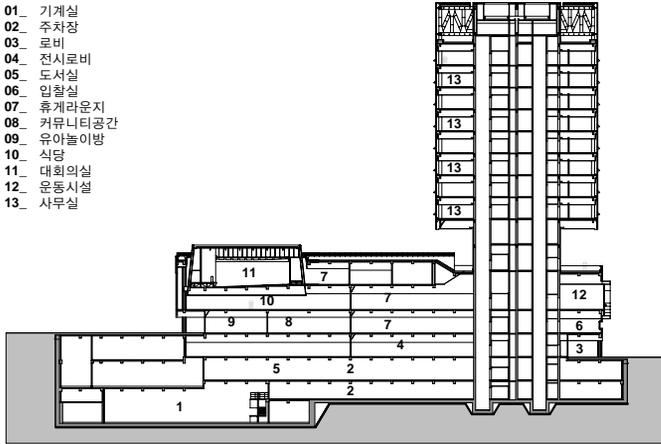
배면도

1	2	6	7
3	4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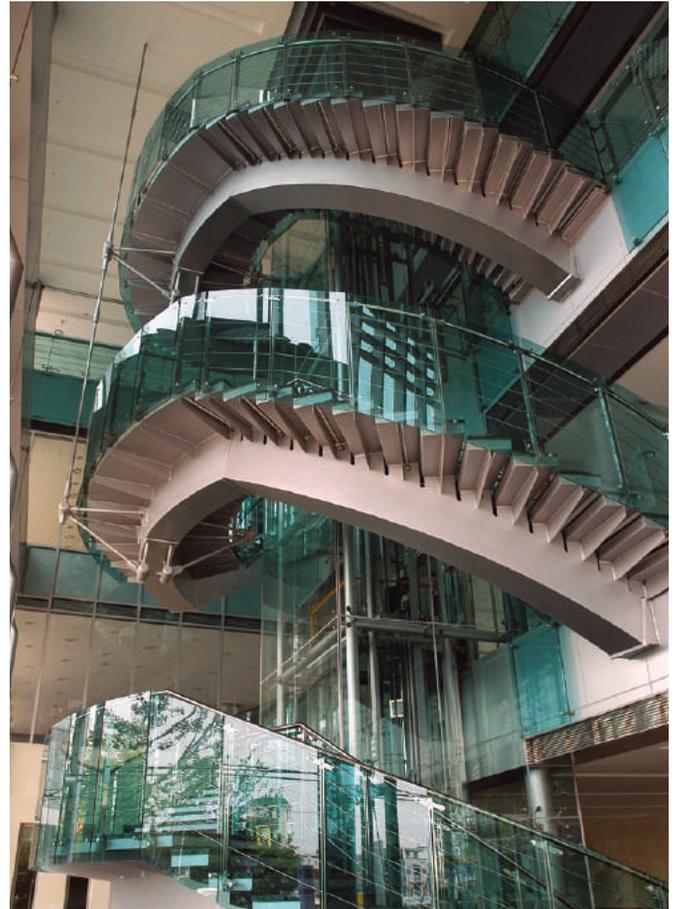
- 1. 모형사진 1
- 2. 모형사진 2
- 3. 주민 열린 마당과 건축
- 4. 저층부 커뮤니티
- 5. 로비 내부 디테일
- 6. 아트리움
- 7. 로비 계단
- 8. 식당
- 9. 대회의실



- 01. 기계실
- 02. 주차장
- 03. 로비
- 04. 전시로비
- 05. 도서실
- 06. 입찰실
- 07. 휴게라운지
- 08. 커뮤니티공간
- 09. 유아놀이방
- 10. 식당
- 11. 대회의실
- 12. 운동시설
- 13. 사무실



주단면도





**신춘규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Shin, Chun-gyu, KIRA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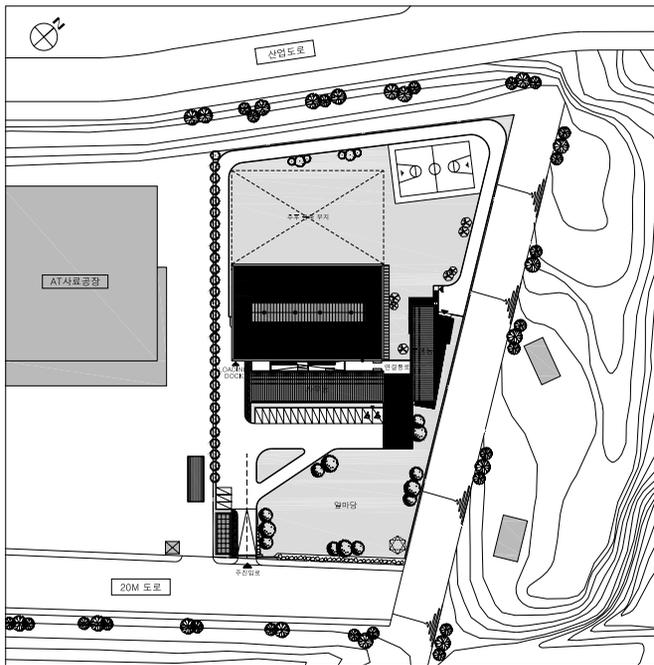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역임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아임삭 오창 공장

Aimsak Ochang Factor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3.1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주요용도	공장
대지면적	10,802.7㎡
건축면적	2,434.08㎡
연면적	5,305.3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공장동: 철골조, 사무동및후생동: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에폭시 코팅, 콘크리트 면처리위 지정색 아크릴페인트
외부마감	공장동: T40 폴리카보네이트 W / T75 우레탄패널 사무동및후생동: JR강판 및 적삼목사이딩 알루미늄창호 W / 18mm 복층유리
구조설계	오성구조(대표 김신기)
전기설계	(주)다우티이씨(대표 원상욱)
기계설계	(주)건화엠이시(대표 유진웅)
인테리어	(주)팀이십일건설 인테리어 사업부
시공자	(주)팀이십일건설(대표 이승웅)
건축주	(주)아임삭(대표 김대원)
설계담당	김유홍, 이혜원, 박주원
사진촬영	박영채



Location 313.1, Songdea-ri, Ochang-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ite area	10,802.7㎡
Bldg area	2,434.08㎡
Gross floor area	5,305.38㎡
Structure	S,C + R,C
Bldg. Scale	B1, F3





아임삭 공장의 부지는 오창 과학 산업단지의 중부고속도로변 북단에 위치해 있다. 동측으로 진입도로 건너 바로 중부고속도로에 면해 있고 북측으로는 2층의 식당과 민가가 있는 전나무 숲과 면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AT라는 사료공장도 접해있다. 서측으로는 과학 산업단지에서 오창읍으로 연계되는 단지 내 주도로가 접해있으나 시설녹지를 끼고 있어 직접 공장으로의 접근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특히 AT 사료공장은 공장의 성격상 거의 30미터에 달하는 높이의 거대한 매스를 갖고 있고,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재료의 냄새가 있어 처음부터 설계에 도전적인 요소로 존재했다.

아임삭은 충전용 전동공구를 개발,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계획에 요구된 프로그램은 창고 및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약 1,000여 평의 공장시설과 사무와 연구의 기능을 갖는 300여 평의 사무/연구 공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150평 정도의 후생공간과 별도의 A/S 경비를 위한 공간이었다. 건축주는 배치계획에서 약 5년 이내에 창고와 공장 부분이 동일 규모로 증축될 수 있는 2단계 증축의 고려를 요구했다.

대지의 형태가 전면이 좁아 공장은 후면에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후면으로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동측의 진입 방향으로 전면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전체의 향을 동향으로 하여 고속도로 측으로 조망을 극대화하고, 사료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냄새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동으로 분리하고 동 사이에 공간을 두어 외부 공간으로서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주요점을

두었다. 특히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의 아임삭 밸리라 불리는 사잇공간은 4미터×48미터의 반 외부공간으로, 사무동과 공장동을 내외부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활력 공간이 된다. 또한 사무동의 매스와 후생동 사이의 공간은 주출입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는다. 주진입이 되는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의 아임삭 밸리의 초입에 로비를 두고 밸리에서 빠져나온 브릿지로 후생동과 2층에서 연결을 하고 브릿지가 주출입구의 캐노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따라서 사무동과 후생동 사이로 진입하여 좌측의 공장동과 사무동 사이의 주출입구로 진입하면 아임삭 밸리로 열려있는 2층 높이의 로비가 있고 로비는 상담과 전시홀로 열려 있고 그 뒤로 연못을 건너 대회의실로 연결된다. 아임삭 밸리는 이 연못을 통해 다시 정면으로 열려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2층은 사무기능을 갖고 3층은 연구개발의 기능을 갖으며 아임삭 밸리를 통해 직접 공장동과 연결된다. 아임삭 밸리는 내부의 직통계단과 함께 북부터 가을까지 공장동과 사무동의 각 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반 외부 매개공간이 된다. 1층 창고, 3층 생산라인의 기능을 갖는 공장동은 작업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외벽과 지붕의 일부를 마감했다. 이는 야간 작업 시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이 아임삭 밸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 새로운 야간 경관을 제공해 준다...

아임삭 밸리가 아임삭 공장의 심장과 같은 장소로서 존재하길 바라며, 여러 계층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활력을 더해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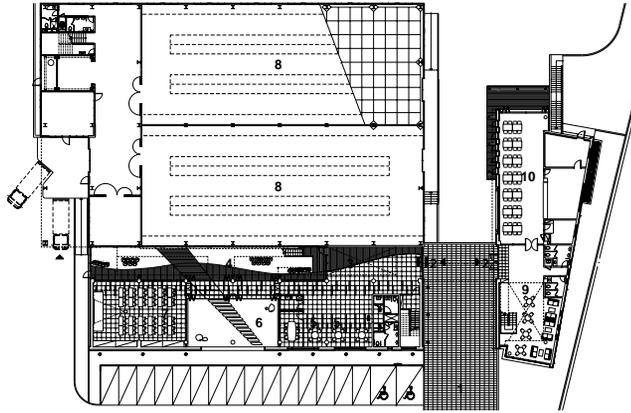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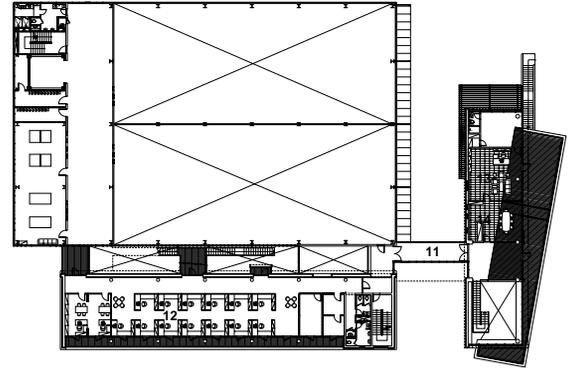
1\_ Aimsak Valley

2\_ Aimsak Valley 야경  
3\_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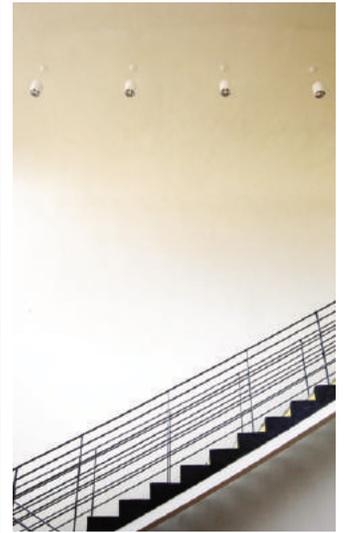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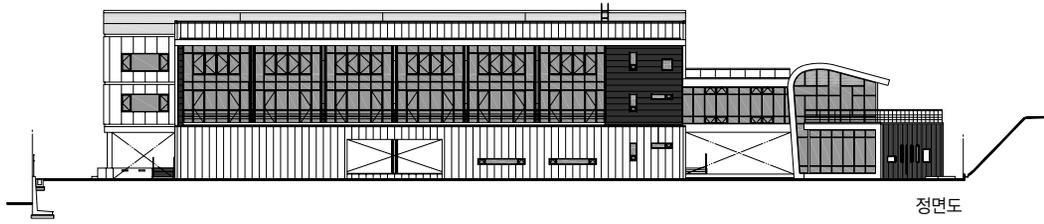
- |                   |          |          |
|-------------------|----------|----------|
| 01_ 진입마당          | 06_ 정원   | 11_ 연결통로 |
| 02_ 주출입구          | 07_ 대회의실 | 12_ 사무실  |
| 03_ 로비            | 08_ 부품창고 | 13_ 사장실  |
| 04_ Aimsak Valley | 09_ 휴게실  | 14_ 회의실  |
| 05_ 점건실           | 10_ 식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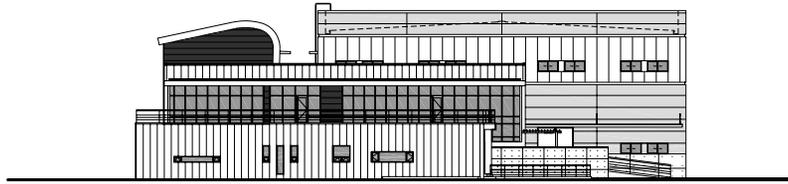


- |   |   |   |           |           |
|---|---|---|-----------|-----------|
| 1 | 2 | 3 | 1. 대회의실   | 5. 휴식동 계단 |
|   | 4 | 5 | 2. 사무동 3층 | 6. 로비     |
|   | 6 | 7 | 3. 휴식동 홀  | 7. 공장동 내부 |
|   |   |   | 4. 사무동 언덕 |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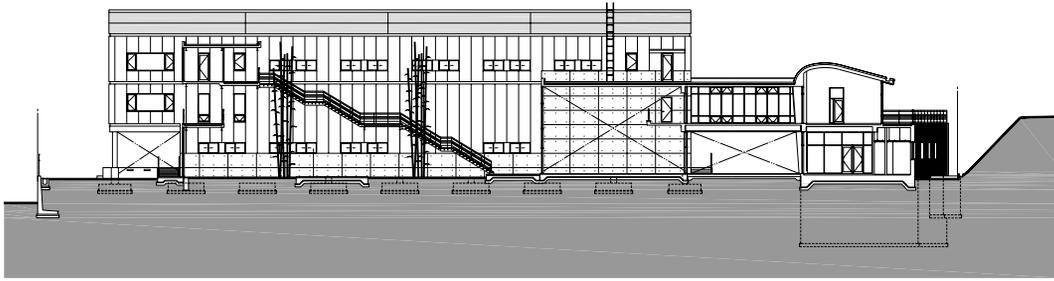
우측면도

1	4	5
2	3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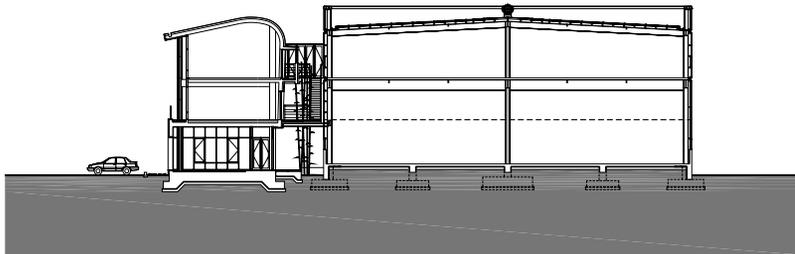
- 1. 야경
- 2. 공장후면
- 3. 학생동 전경

- 4. 사무동 부분 전경 1
- 5. 주출입구 야경
- 6. 학생동 후면
- 7. 사무동 부분 전경 2





횡단면도



종단면도





**양건** / 정회원, 가우건축사사무소  
by Yang, Gun, KIRA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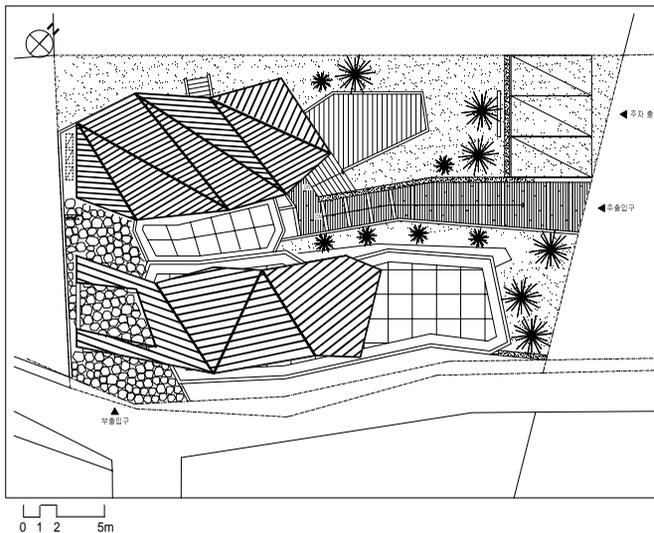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및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겸임교수
-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제주시 건축상
- 2007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현상설계 당선

# 제주명품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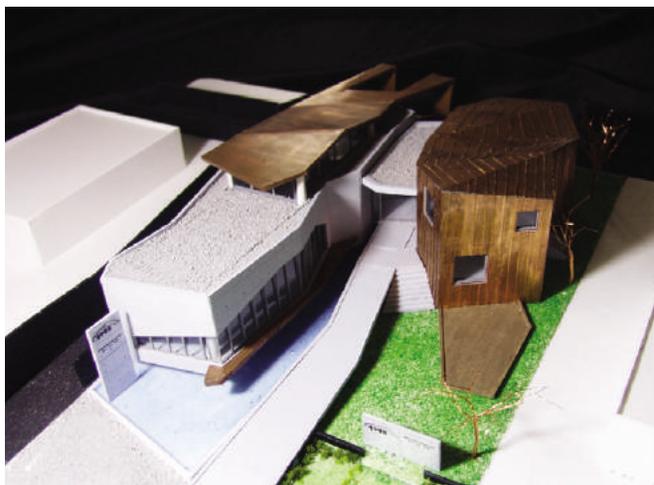
Jeju Myungpum Business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b>대지위치</b>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319-8
<b>지역/지구</b>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b>주요용도</b>	제1종근린생활시설
<b>대지면적</b>	650.00m <sup>2</sup>
<b>건축면적</b>	259.50m <sup>2</sup>
<b>연면적</b>	291.49m <sup>2</sup>
<b>건폐율</b>	39.92%
<b>용적률</b>	44.84%
<b>규모</b>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b>내부마감</b>	송판노출, 동판 거벌접기, 투명우레탄 마감
<b>외부마감</b>	노출콘크리트, 동판 거벌접기, 두께22 칼라복층유리
<b>설계담당</b>	김정일, 문희범
<b>설비설계</b>	기술사사무소 미릉
<b>전기설계</b>	(주)홍산엔지니어링
<b>시공사</b>	(주)강한건설
<b>설계기간</b>	2007. 02 ~ 2007. 05
<b>공사기간</b>	2007. 05 ~ 2008. 01



<b>Location</b>	231-8, Ora 3-dong, Jeju-si, Jeju-do, Korea
<b>Site area</b>	650.00m <sup>2</sup>
<b>Bldg area</b>	259.50m <sup>2</sup>
<b>Gross floor area</b>	291.49m <sup>2</sup>
<b>Bldg. coverage ratio</b>	
<b>Gross floor ratio</b>	
<b>Structure</b>	R,C
<b>Bldg. Scale</b>	F2





우리는 흔히 서예나 수묵을 오래 다룬 작가들의 글씨에서 필력을 느낀다고 하고, 형태와 크기가 똑 같은 그림일지라도 작가에 따라 그 심상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시각적 인지에 의한 형상의 파악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의 교감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묵화나 서예작품을 감상하는 맛이라 할 수 있다.

설계를 하기 위해 대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하나의 계(界)를 이루며 각 요소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태도로 접하게 된다. 즉 주변 환경의 각 요소들이 존재성을 유지하며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으며 현 상황은 최대한 안정된 상태인 '힘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세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찰의 주체인 나 역시도 그 대지에 들어서서 관찰의 임무를 시작한 순간 동시에 그 세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작용될 것이며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건축으로 실현되어 그 환경계에 한 요소로 작동하더라도 현재의 평형상태가 유지 될 수 있어야만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다소 관념적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각으로 대지를 읽는 일은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에 접근됨을 경험하게 된다.

대지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생각이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면 힘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정적인 상황보다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흐름'이 발생함을 알게 된다. 도시에는 교통, 도로, 에너지, 사람, 물류, 자본, 문화 등 여러 층위의 움직임이 실 새 없이 일어나며 그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형성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조금 더 발전되면 건축계의 아방가르드들이 정의하였던 플러그 인 시티(Plug - In City)의 개념이 가능한 것이다. 즉 도시란 다양한 층위(Layer)의 흐름들이 중첩되어 있는 마더보드 위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 발생한 프로그램들의 플러그 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힘'이란 범주 내에 두기는 만만치 않은 주제가 '장소혼'의 얘기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가장 주요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여기에 거론하고자 한다. '장소혼(GENIUS-LOCI)'이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나의 건축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 실존주의적 건축이론가인 숄츠(C. Norberg-Schulz)의 제언으로 어떠한 장소마다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과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땅에 혼과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땅과 신(神)을 연계시키는 샤머니즘적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땅을 하나의 실존적주체로 이해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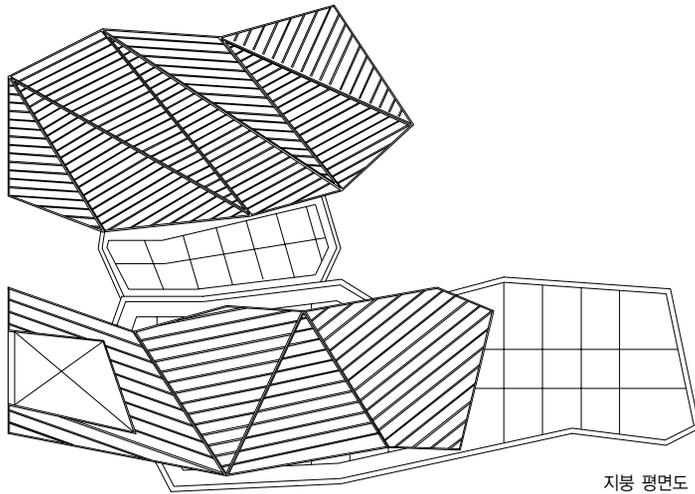
'제주명품전시관'도 이러한 생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지의 지형, 주변의 건축물, 오래된 수목, 도시에서의 시선, 조망, 특히나 마을 내부로의 골목길 그리고 그 땅에 스며있는 기억과 흔적 등을 대지 내에 작용하는 힘의 요소로 인지하여 구상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전시동의 부정형매스는 인접한 올레의 자글거림의 파동과 방문자와 시선을 교감하기 위한 연속적 면의 이동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유연한 콘크리트의

덩어리에 작용하여 힘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지점에 그 형상이 결정되었고, 동판의 사무동 덩어리의 외피는 주변의 발들과 수목 그리고 향후의 확장성 등이 작용한 것이며 내부 프로그램이 창고, 사무실 등의 지원시설로 조금 더 강한 피막으로 구성된 것이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의 형상이 들고 있는 사람의 손아귀 힘 또는 중력의 힘 등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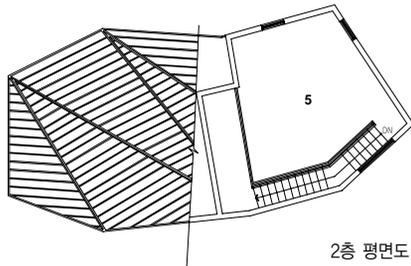
자유롭게 결정되듯이, 주변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 평형의 지점을 찾아 그 형상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 과 '형태' 로 설명되는 기존의 건축에서 탈피하여 '주변계에 일체화된 건축' 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圖

- |   |                |
|---|----------------|
| 1 | 전경야경           |
| 2 | 올래 진입부에서 본 동측면 |
| 3 | 건물 남측면과 올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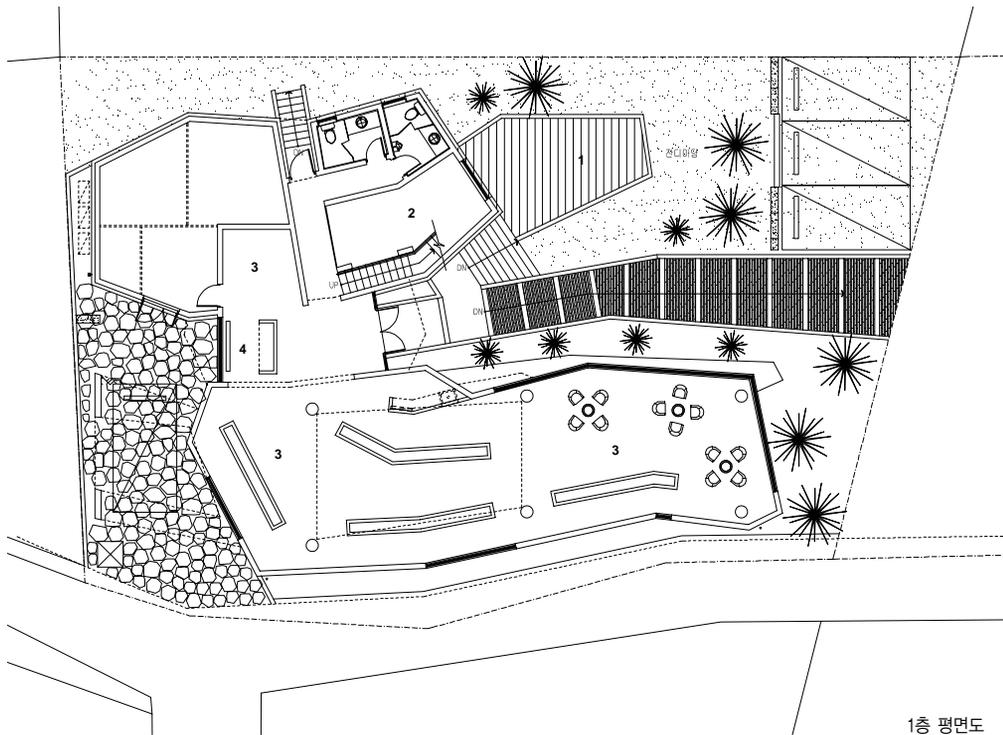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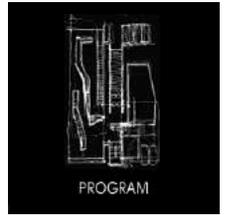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_ 데크
- 02\_ 사무실
- 03\_ 전시판매실
- 04\_ 안내실
- 05\_ 사무실



1층 평면도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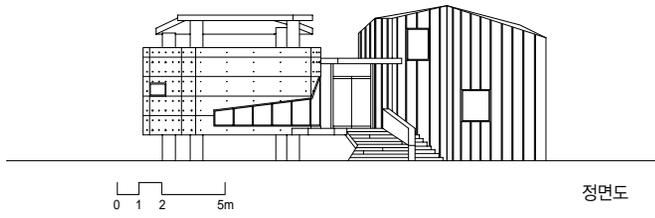


INVISIBLE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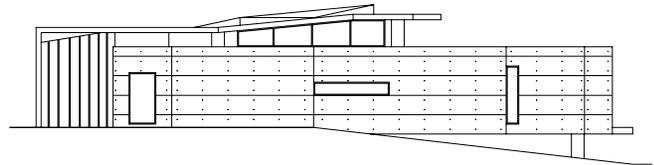


ARCHITECTURE

프로세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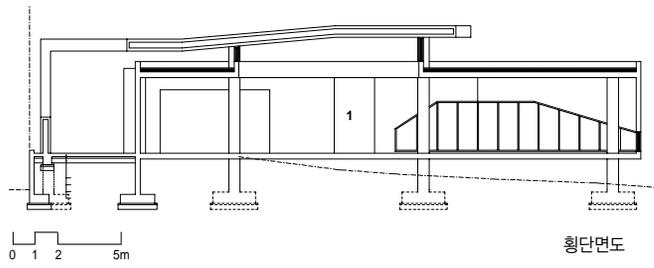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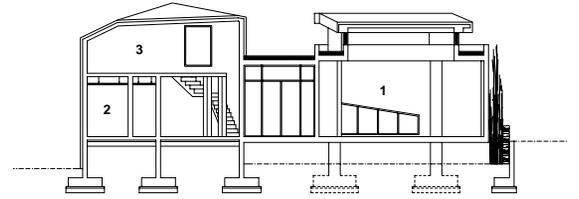
1	2	4	5
3	6		

- 1.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진입로
- 2.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데크와 잔디마당
- 3. 전시판매실
- 4. 사무실
- 5. 계단실
- 6. 내부전경





횡단면도



종단면도

- 01\_ 전시판매실
- 02\_ 화장실
- 03\_ 사무실





**조정철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TOP  
by Cho, Jung-chul, KIRA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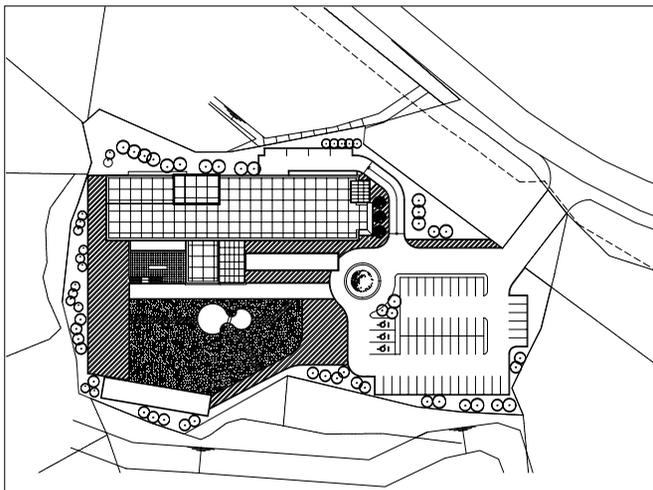
-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 강사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 연세나은병원 (화성재활전문병원)

Yeonse Naeun Hospita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229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온천지구
주요용도	의료시설(재활전문병원)
대지면적	8,500㎡
건축면적	1,580.79㎡
연면적	4,994.96㎡
건폐율	18.95%
용적율	45.5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고강도 목재패널, 친환경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점토벽돌, 알루미늄쉬트, 적삼목, 외단열시스템
설계담당	이영호, 최정만, 이기정, 곽재민, 전문근, 도현욱
구조설계	(주)신화 SDG
설비설계	(주)송정
전기설계	(주)엘림전설
시공사	(주)라경종합건설
설계기간	2006.10~2007.03
공사기간	2007.03~2008.03
사진촬영	김상덕



Location 229, Wolmun-ri, Pal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8,500㎡
Bldg area	1,580.79㎡
Gross floor area	4,994.96㎡
Bldg. coverage ratio	18.95%
Gross floor ratio	45.57%
Structure	R,C
Bldg. Scale	B1, F3



일반병원 건축계획과 다른 본질로 접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재활 전문병원의 본질은 ...무엇일까?”

재활 전문병원은 입원환자들의 재원 기간이 길고 환경적응이나 이동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집' 과 같은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치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활 병원 설계의 주안점은 크게 '변화(Change)' 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몸이 불편하여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복귀시키도록 한다.

「Care - Healing - After - New gerontic life = **change**」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제공하여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번 계획의 큰 중점이다.

대상지는 신도시로 부각되는 화성의 중심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건축주는 추후 재활전문병원 에 노인관련 복합시설을 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장래 증축까지 고려해야 했다.

대상지 북쪽으로 주 진입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논과 개울이 펼쳐 있어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계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배치 계획 시 건물의 정면성과 인지성보다 향과 조망을 우선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최대한의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였다.

대지에 인접한 녹지와 연계해 외부재활공간을 두어 자연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치료 후 자연스럽게 외부 동선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여 '환자중심의 병원, 자연친화적 병원' 으로 환자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도록 하였다.

전체 배치와 조닝 개념은 '주차 공간 - 만남공간 - 치유 조경공간 - 내부(재활, 치유) - 배회복도 - 병실' 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평면과 단면 계획 시 고려하였다.

지하1층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자들의 개인 락커룸을 제공하고 1층은 외래 동선 2, 3층은 병실동선을 위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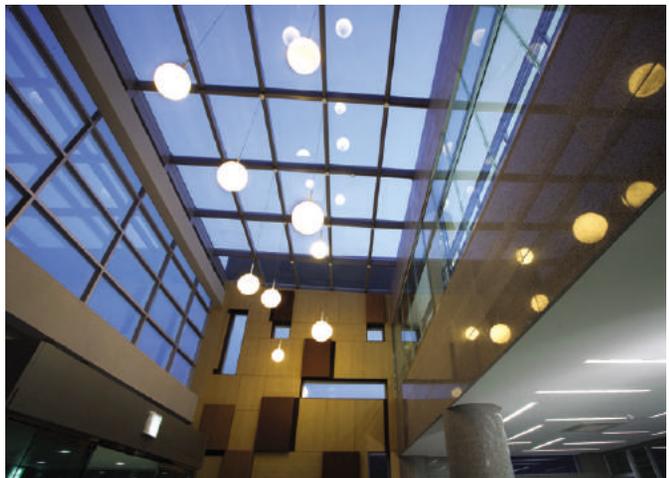
넓은 대상지 외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정원 및 산책로를 계획하였고, 이 공간을 내부 배회복도 및 데크와 연계하여 환자들에게 따뜻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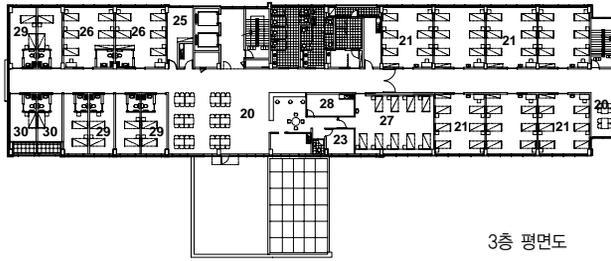
환자의 상태에 따라 24시간 care가 필요한 환자들의 병실은 간호사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환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병실 배정을 하도록 하였다.

외벽 재료는 오랜시간 재활에 임해야 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숙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지닌 점토벽돌과,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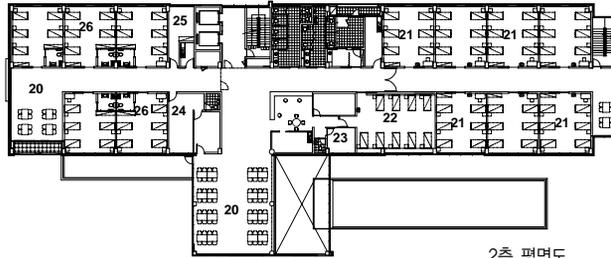
모든 환자들이 이 건물에서 재활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얻어 밝은 미소를 다시 찾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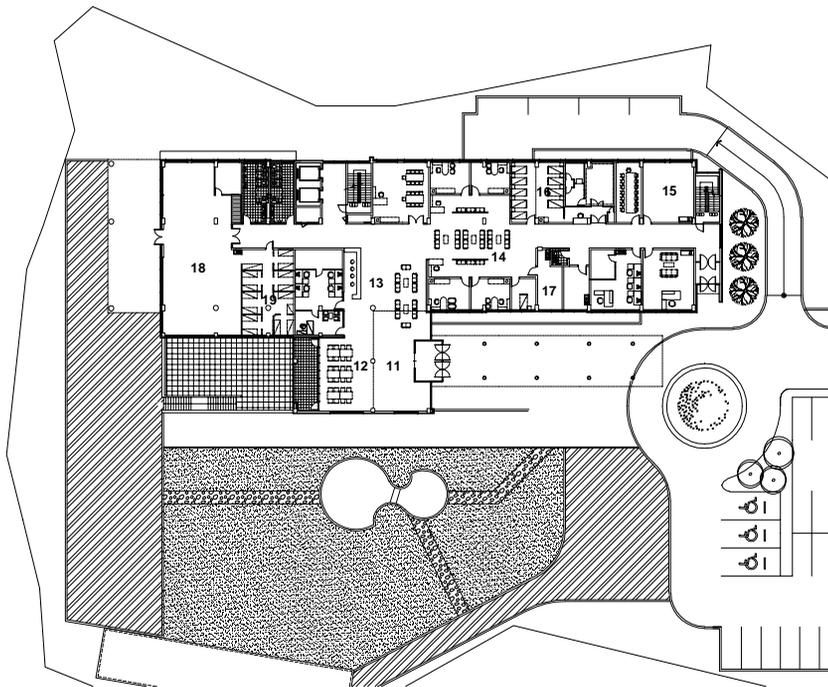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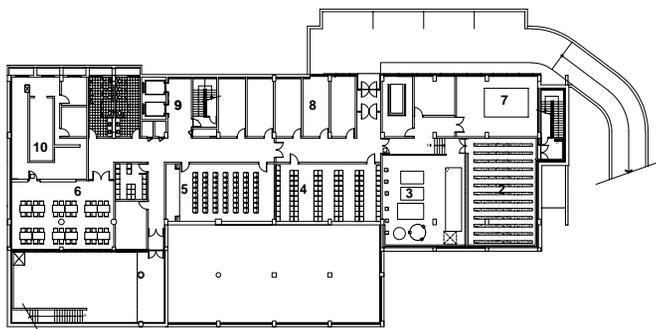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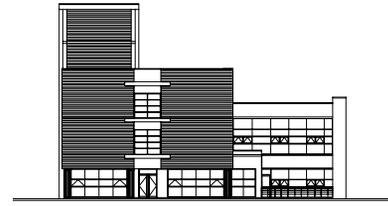
- 01\_ 접수정
- 02\_ 지하저수조
- 03\_ 기계실
- 04\_ 개인 락커룸
- 05\_ 대회의실
- 06\_ 식당
- 07\_ 전기실
- 08\_ 의료가스보관실
- 09\_ 출
- 10\_ 주방
- 11\_ 로비
- 12\_ 카페테리아
- 13\_ 접수/안내
- 14\_ 대기홀
- 15\_ 이사진실
- 16\_ 수역실
- 17\_ 약국
- 18\_ 응급 치료실
- 19\_ 응급 치료실
- 20\_ 데이룸
- 21\_ 6인실
- 22\_ ICU(세미중환자실)
- 23\_ 간호사실
- 24\_ 의사실
- 25\_ 간병인
- 26\_ 5인실
- 27\_ ICU(세미중환자실)
- 28\_ 중앙공급실
- 29\_ 2인실
- 30\_ 1인실

- |   |
|---|
| 1 |
| 2 |
| 3 |
| 4 |
| 5 |
- 1. 측면
  - 2. 선근
  - 3. 주출입
  - 4. 측면
  - 5.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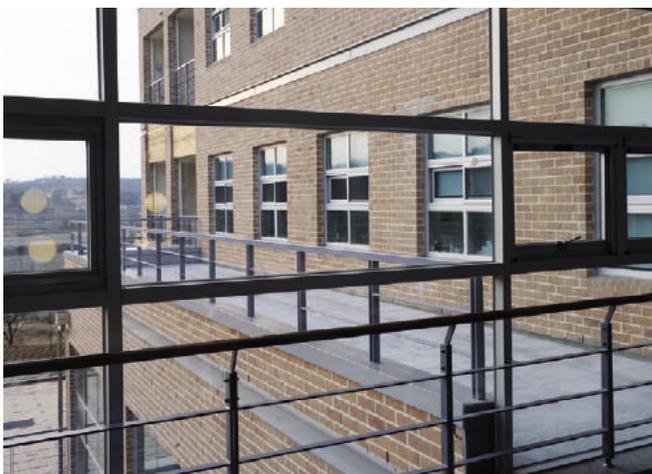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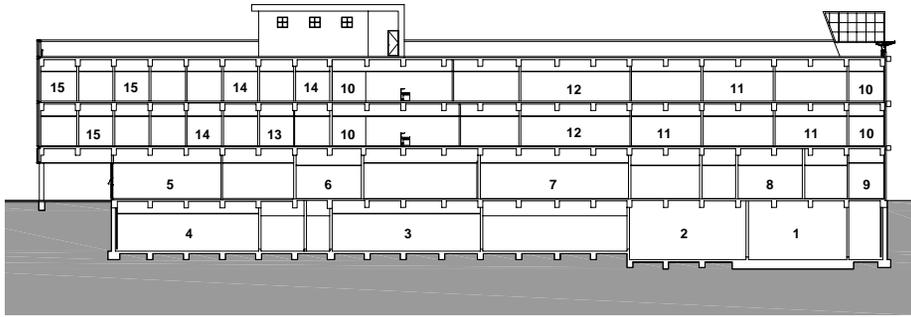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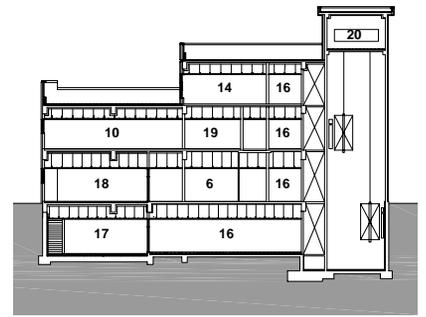
1	4	5
2	3	6
	7	

- 1. 식당(연세홀)
- 2. 테라스
- 3. 배회복도
- 4. 세미나실
- 5. 계단실
- 6. 데이룸
- 7. 병실(6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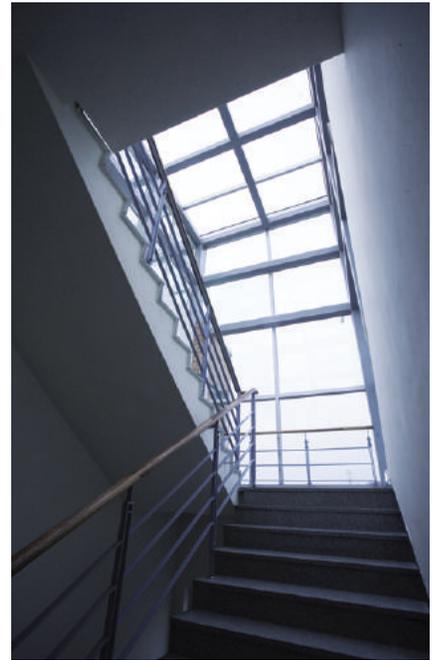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 |           |           |            |            |
|-----------|-----------|------------|------------|
| 01_ 지하저수조 | 06_ 원무과   | 11_ 6인실    | 16_ 복도     |
| 02_ 기계실   | 07_ 진료대기홀 | 12_ 세미중환자실 | 17_ 선큰 가든  |
| 03_ 대회의실  | 08_ 행정실   | 13_ 의사실    | 18_ 옥외 테라스 |
| 04_ 식당    | 09_ 홀     | 14_ 2인실    | 19_ 당직실    |
| 05_ 운동치료실 | 10_ 데이룸   | 15_ 1인실    | 20_ 기계실    |



작품노트 | Design Note

# 인테리어 디자인 6題



오혁근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PROBE  
by Oh, Hyeok-keun,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공학대학원 건축학과
- 세종대학교, 대림대학 겸임교수(현)
- 공간연구회 정회원
- (주)시상건축



김종수 /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PROBE  
by Kim, Jong-su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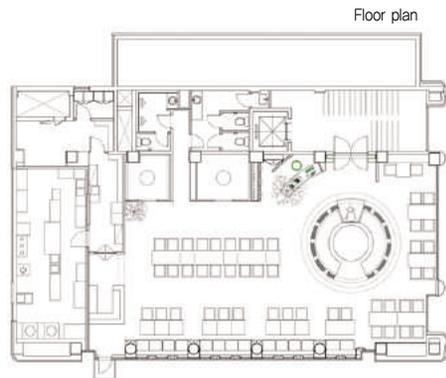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NJ, USA
- PASSAIC COUNTY COLLEGE, NY, USA
- (주)코리아 데코
- (주)HEXA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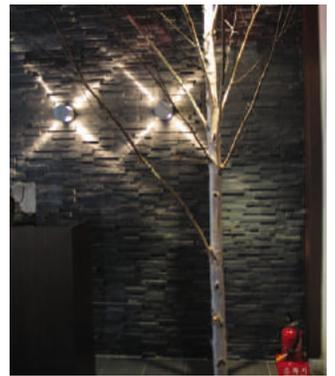
## Taj

### India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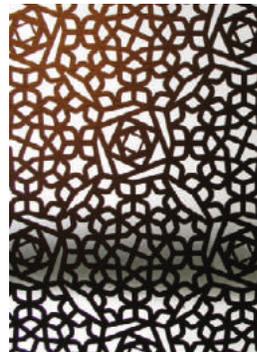
**Design Team** Lee Ho, Ra Hong-sik, Lee Dong-min, Uhm Ju-young, Song Bo-ra, Hwang Eun-be / Probe design **Signage / Supervision / Constructor** Probe design **Location** 1,2,4th Floor, Dongho 38bldg, 385-22 Shindang-Dong Joong-gu, Seoul 100-45, Korea **Flooring** Slate tile, Wall Lacquer, Glass tile **Wall paper** **Ceiling** V.P

Taj India Restaurant 프로젝트는 인도의 종교적인 성향과 전통 문양을 이용한 특유의 공간 연출에서 초점을 두어 디자인하였으며, 열악한 진입부 공간의 영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인도의 대표적인 상징인 가네신상과 고층된 인도 문양을 중첩시킴으로서 상징적 공간으로 표현하고자하였다. 중앙부분의 천정 유리면 부착을 통한 반영은 타지마할의 수공간과 어우러진 건축물의 상징성을 재해석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와 짧은 공기로 원래의 디자인 의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작업 과정에 인도인들과의 대화와 종교적 의식을 함께했던 새로운 경험과 문화적 충격은 작품활동에 새로운 자극이었다고 기억된다.





1 2 1\_ Corridor  
 3 4 2\_ 진입부분 실내 전경  
 5 6 3\_ 중앙부 금장 원형메스(단체석)  
 4\_ 카운터데스크  
 5\_ Wine Stock  
 6\_ 벽부조각+조경  
 7\_ India 문양(항호 Detail)  
 8\_ India 문양(출입문 Detail)  
 9\_ 주출입구  
 10\_ 금장 원형메스  
 11\_ Toilet



# SWAROVSKI OFFICE

## C.G.B & F&A, C.C.B OFFICE

**Design Team** Lee Ho, Lee Hyun-gu, Ra Hong-sik, Song Bo-ra, Hwang Eun-be/ Probe design  
**Signage / Supervision / Constructor** Probe design  
**Location** 1,2,4th Floor, Dongho 38bldg, 385-22 Shindang-Dong Joong-gu, Seoul 100-45, Korea  
**Flooring** Wood Flooring, carpet tile  
**Wall** Lacquer, Glass tile, 외편 tile, 민속한지, Crystal, Wall paper  
**Ceiling**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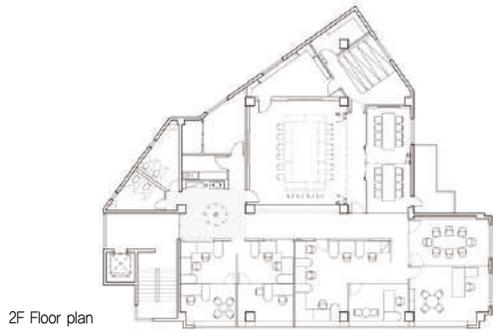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Crystal 제품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업무공간 리뉴얼로 빛의 산란, 반사, 투과성을 건축적으로 상징화하고자 하였다. C.C.B Office는 유럽본사 Concept에 따라 천정 구조물과 Wall, Partition등에 Crystal을 활용하거나 상징화하여 큰 전시장으로서 표현했으며, F&A Office는 실용적이고 미니멀한 요소를 적용하여 업무적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C.G.B Office는

다국적회사의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통적 재료와 요소의 사용으로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여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정상적인 업무를 가능토록하며 공사를 해야하는 제약조건을 안고 마치 군대의 야전 임시사무실을 구축하듯 3차레에 걸친 사무실 이사를 고려한 공정관리에서 리뉴얼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수 있었으며 건축사의 자유로운 상상에 관대했던 건축주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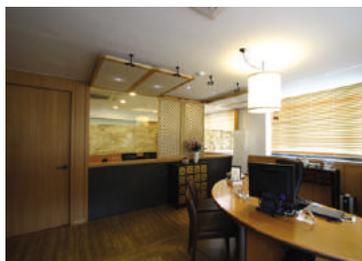


1. 타원형의 Entrance Hall  
 2. 4F C.G.B Office Entrance  
 천정은 Crystal 원석을 형상화하였고 벽면 마감 재료와 한국식 소품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의 한국 Office라는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고자함.





2F Floor plan



- 3\_ Corridor / Conference Room
- 4\_ Showroom  
CRYSTAL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Crystal 원석이  
사용된 제품을 Booth별로 가상적 공간에 적용함
- 5\_ C,CB Office Corridor  
(Prismatic Refraction)
- 6\_ Conference Room(7번형)
- 7\_ 4F CEO Room



4F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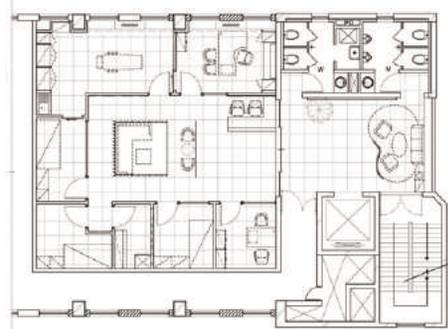
# 4월31일 성형외과

## Plastic & Esthetic clinic

Design Team Lee Hyun-gu, Ra Hong-sik, Song Bo-ra / Probe design Signage / Supervision / Constructor Probe design Location 501 Gun-woo Seoul Bldg 120 Nonhyun-dong Kangnam-gu Seoul Korea Flooring Polishing Tile Wall Lacquer, Glass tile, Wall paper, Solid wood, Point wall covering Ceiling V.P, Lacquer, Solid wood

### 01 NATURAL & ARTIFICIAL / 02 MYSTICISM / 03 COLD & W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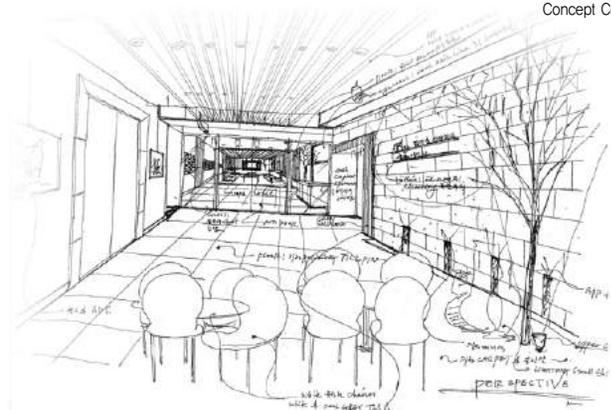
상기 서술한 단어는 성형외과 의사인 건축주와의 여러차례의 대화를 통해 정리된 디자인 Concept로 형의 본질인 자연적 아름다움 추구를 기본으로 Modern한 공간속에 천연질감의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공용부인 코아와 연결된 하나의 선형으로써 공간적 동질성을 부여하여 협소한 공간의 시각적 개방감부여에 주력하였다. 또한 '4월31일' 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가진 상호에서 느낄수 있는 호기심을 더불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리와 금속이 표출하는 차가움과 인공적인 느낌을 친근하게 느끼도록하고자 하였다. 공용공간을 통한 시각적 공간확장은 성공적이었으나 동일층 타업종 원장의 민원은 공사 후 2달여간 큰 어려움으로 기억에 남는다.



1F Floor plan



- 1 Elevator Hall
- 2 원장실
- 3 피부 관리실
- 4 상부천정 구조물



Concept Color

분명 '한의원' 이지만 꼭 한의원스러운 Design을 해야만 하는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이러한 고민 속에서 디자인 계획은 시작됐다. 압구정동이란 위치적인 특성과 고객의다양화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기존의 일반적인 한의원의 Image에서 탈피해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게 받아들일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산상의 이유로 실용적인 Design을 전제로 해야만 했다.

전체적으로 Modern하고 Simple함을 바탕으로, 좁고 긴 공간의 지루함을 역동적이고 불규칙한 천정패턴으로 변화를 주고자하였으며, 안내 데스크는 상호의 'S' 자의 형상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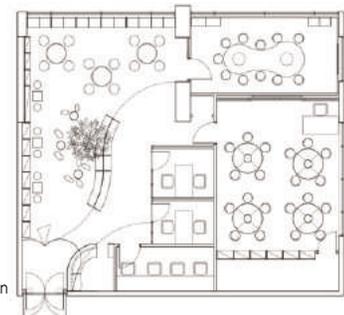
# 서초 ENGLISH PREMIER 방배 CENTER

Design Team Lee Ho, Uhm Ju-young, Hwang Eun-be / Probe design Signage / Supervision / Constructor Probe design Location 2F 923-6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Flooring Roll carpet, carpet tile Wall Lacquer, Wall paper, Black panel glass, Image sheet Ceiling V.P

## 영어를 배우는 재미있는 놀이터...

전체적인 Concept에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장 재미있고 편한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였다. 학습을 위한 장소가 아닌 놀이의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벽면 Graphic과 나무, 모빌, 조명기구 등의 Item을 사용하여, 공간을

Design하였다. 또한 Hall 중앙에 꿈나무는 아이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하여 더욱 큰 꿈을 가지고 이룰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배치하였다.



Floor plan



- |   |                 |   |        |
|---|-----------------|---|--------|
| 1 | 1. 입구에서 내다본 전경1 | 4 | 4. 도서실 |
| 2 | 2. 입구에서 내다본 전경2 |   |        |
| 3 | 3. 교육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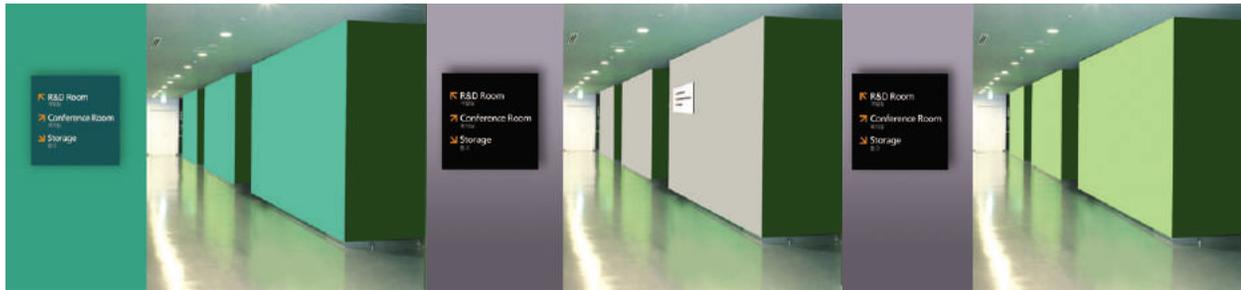
# (주)대호 MMI 대구공장 색채계획

Design Team Seomoon Seong-bae, KIM Yong-min, Park Ki-chan, Oh Byung-il / Probe design Signage / Supervision / Constructor Probe design Location 1025 Daechun-dong Dalseo-gu Daegu Metropolitan Korea

공장건축설계와 더불어 주요공간의 인테리어 기본설계 및 주요공간에 대한 색채계획과 약간의 사인계획을 하였으며, 공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최첨단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진보된

이미지에 적합한 공간 연출을 위해서 적용가능 색체의 조합과 벽면 그래픽 처리를 그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작업과정 시각디자인 교수와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1. 공장내부 컬럼
- 2. 사무공간
- 3. R&D 공용부
- 4. 공장 복도
- 5. 내부 중정 전경
- 6. 주출입구 전경
- 7. 식당 전면 Deck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상지대학교 교육시설

Sangji University Education Facilities

당선작 / 김종웅 정회원  
(주. 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구내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주 용 도** 교육시설
- 대지면적** 252,362㎡
- 건축면적** 본관 : 1,060,29㎡  
상지관 : 700,14㎡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 710,53㎡
- 연 면 적** 상지관 : 3,306,11㎡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 1,699,96㎡
- 규 모** 본관 리모델링 : 지상 3층  
상지관 : 지하 1층, 지상 5층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 지하 1층, 지상 2층  
(증축시 5층까지 고려)
- 발 주 처** 상지대학교
- 설계담당** 박상봉, 김응수, 이연중, 김성진,  
정재욱, 심연근

#### 기본계획 방향

挺植以爲器 當淇無有器之用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지라도 빈 공간이 있어야만 이 그릇으로의 쓰임이 있게 된다.  
(노자도덕경 11장)

#### 외부공간계획

Main Thema : 자연, 인간, 하늘을 이 어주는 상지대학교 캠퍼스 공간 창출

#### 자연(地)의 흐름

- 건축물군과 외부공간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상징적인 숲 조성을 통해 캠퍼스의 활력 부여
- 외부공간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위 계를 부여하여 차별화하고 시간이 누적될수록 풍요로워지는 자연의 흐름 도입

#### 인간(人)의 흐름

- 캠퍼스의 유기적 질서를 지닌 거점 적 커뮤니티공간 형성

- 상지관과 본관 사이에 타원형태의 광장을 통해 보행축과 진입축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흡입력 있는 공간 창출

#### 하늘(天)의 흐름

- 캠퍼스와 지역의 파노라믹경관을 조망하는 장소이자 원경의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공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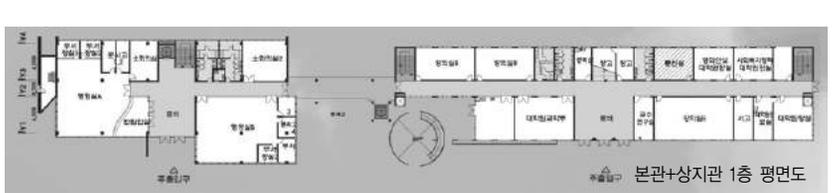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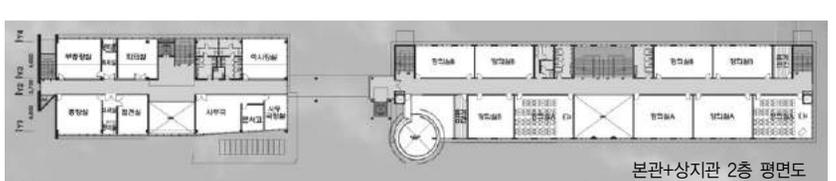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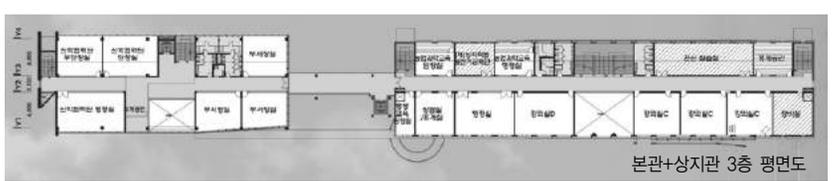
#### 계획의 목표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활동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계획의 개념

- 상지관+본관
- 기능과 동선을 고려하여 연결고려
  - 상지관의 랜드마크(본관)계획
  - 학생들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 지하층 활용을 위한 계획안
  - 옆(자연과학관)과의 추후 연계성 고려





## 상지대학교 교육시설

Sangji University Education Facilities

우수작 / 김순도 정회원  
(예상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결정지구)
대지면적	252,362㎡
건축면적	32,185.03㎡
연면적	131,554.37㎡
건폐율	12.75%
용적률	47.03%
용도	교육연구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화강석, 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판, 붉은벽돌 치장쌓기
설계담당	이형준, 양수현, 홍사윤, 정재만

사이트 전체에 흩어져있는 기존 건축물들의 혼란스러운 건축어휘는 이제 본관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상지관과 창업 보육센터가 들어섬으로서 문맥을 가지런히 정립 할 시기를 맞이했다.

수직과 수평, 가로와 세로, 반복과 질서와 또는 변화와 리듬. 이 모든 것들을 상지대의 중앙에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화한 어휘로, 대학이 표방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와 교육의 이념을 개념화해야 했다.

본관의 구조는 외벽 월 구조시스템이었기에 그 구조적 본질을 살려 매스적 구조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솔직한 해법을 채택하여 매스를 면 분할하고 석재와 유리로서 솔리드와 보이드의 대비를 이루어 형태적 비례감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석재 면에 세부적인 질감의 변화와 리브효과를 주고 크기와 너비를 조율함으로써 음악적 리듬감과 선율을 부여하여 질서와 변화와 흥미를 건축물을 대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효과는 투명유리와 에칭유리를 분할 사용한 디테일로서도 눈치 챌 수 있는 기법이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의 스킨에 메이크업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형을 통해 건축적 결과를 얻어내려는 의도인 것이고 조금은 더 본질적인 변화를 주고 싶은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상지관은 본과의 디테일의 일부개념을 관입시켜 건물 상호간 개연성을 확장시키고 투명유리와 불투명유리 석재를 주재료로 본관과 연계된 비례적 구성은 조화를 이루지만 마무리된 건축적 형태와 평면 구성적 내용은 새로이 변화하고 발전해온 생성과 과정의 이미지를 전이와 융화와 변화의 건축적 어휘로 마감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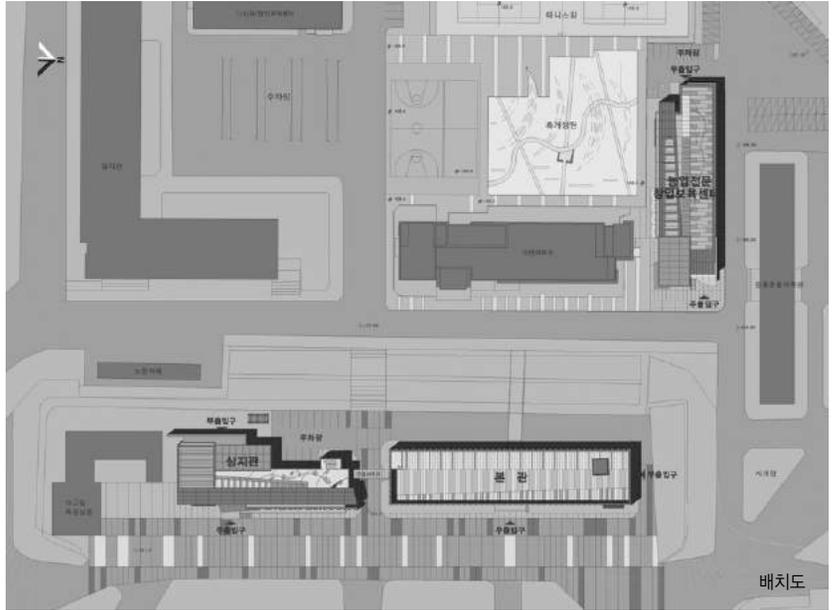
이러한 상지관의 새로운 이미지는 대학이 표방하는 개념으로 환경주의와 네트워크화 세계화와 분권화의 실현을 형상화 하는 것으로 세계를 비추는 대학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상지대의 구릉진 언덕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햇살을 등지고 오르는 과정에 반사된 또 하나의 새로운 빛을 통해 스스로를 투영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도전하는 개념인 것이다.

농업전문 창업 보육센터는 자연과학과의 조화와 유기적 관계의 조율을 위하여 자연과



학관에 사용하였던 주재료인 붉은 벽돌을 일부 유입하여 이웃 건물과의 중화된 맥락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디테일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재료의 선택은 디테일의 변화와 질감의 변화 또는 외관의 컨디션을 강하게 변화시키므로 극단의 대비는 피하기 위하여 매스의 변화는 주되 무리하게 대비되지 않는 색상의 베이스 판넬과 유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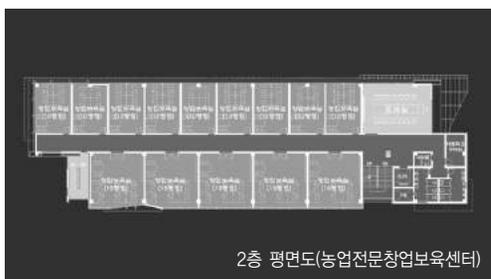
유기적인 평면구성과 재료의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한 것은 마스터플랜상의 전체적 개념으로 볼 때 각각의 건축물들을 하나의 개체 한그루의 나무로 바라보았고 학문적 열망과 선비의 끈은 기상을 수직적요소로 받아들여 그 하나하나의 개체가 모여 질서와 지혜의 숲을 이루는 건축적요소로 부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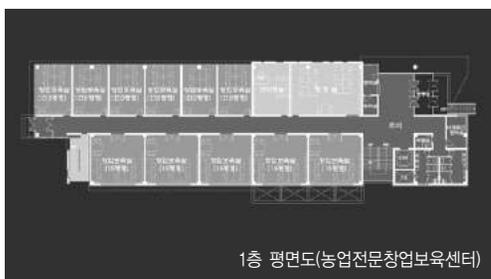
3층 평면도(상지관)



1층 평면도(상지관)



2층 평면도(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1층 평면도(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본관 정면도



본관 측면도



상지관 정면도



상지관 측면도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정면도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측면도

## 상지대학교 교육시설

Sangji University Education Facilities

가 작 / 박승목 정회원  
(아세아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결정지구), 일반주거지역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52,362㎡
건축면적	창업보육센터 720,30㎡
	(가칭)상지관 728,20㎡
	본관리모델링 1084,85㎡
연 면 적	창업보육센터 1,634,40㎡
	(가칭)상지관 3,220,65㎡
	본관리모델링 3,745,00㎡
건 폐 율	0.57%(증축부분)
용 적 륜	1.73%(증축부분)
규 모	창업보육센터 지하층, 지상 2층
	(가칭)상지관 지하층, 지상 5층
	본관리모델링 지하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이명환, 신희일, 권준영, 김수진

### 작품의 전체적 구상

-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 구현한다.
-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기존 캠퍼스와의 공간연계를 구축한다.
- 지형, 향, 동선 등 건축의 환경조건을 최대한 고려한다.
- 평면구성의 기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다기능 수용에 대한 융통성을 고려한다.
- 캠퍼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다.
- 주어진 예산 내에서 역동성과 경쾌함을 가진 에코디자인(E-CO Design)

### 설계개념 및 특징

**창업 보육센터** : 추후 증축을 고려하여 구조 및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래성을 추구였다.

**상지관** : 치악산 정상과 상지관의 현관을 축으로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 이미지와 인지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고,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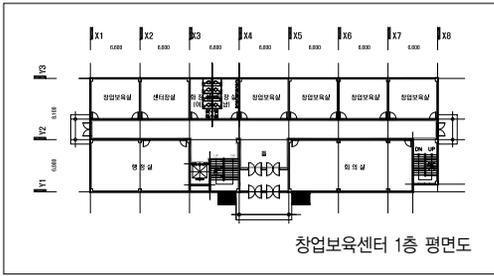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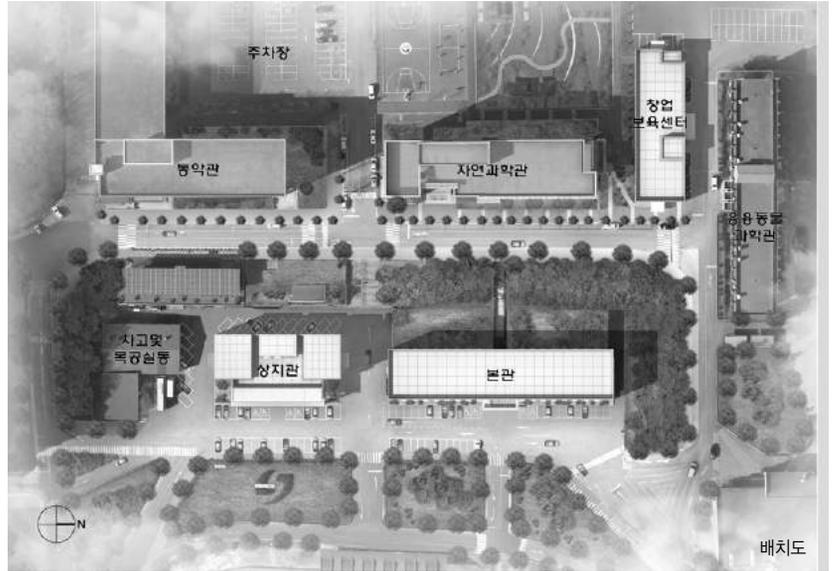
비정신의 학사모와 환경친화적 에코디자인을 도입하여 역동성과 경쾌성을 추구하였다. 공간규모 계획에 따른 동선처리로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 기본계획방향

이번 건축설계경기공모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상지대학교의 랜드마크적 본관 신축과 기존 본관의 리모델링,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의 신축이다. 계획의 주안점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주변의 치악산의 전경이 둘러싸여 자연의 흐름을 열어주는 녹지와 연구, 휴식의 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중, 저층부의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진 필로티 부분은 옛 마을의 장승처럼 상지대학교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라는 의미이다.

그 안에서 나라의 희망인 학생들,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함께하는 교육시설이 어우러지며 상지대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직원사택

Dang Jin's Company House

당선작 / 정봉원 정희원  
 (주.디앤오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병조 정희원  
 (주.정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325-3번지 일원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 용 도 직원사택 및 부대 복지시설  
 대지면적 45,487.0m<sup>2</sup>  
 건축면적 9,865.65m<sup>2</sup>  
 연 면 적 17,234.488m<sup>2</sup>  
 건 폐 율 32.89%  
 용 적 륜 55.11%  
 규 모 지상 1층~4층(24동)  
 세 대 수 독신자용 42m<sup>2</sup> 100세대  
 가족형 82m<sup>2</sup>, 66m<sup>2</sup> 96세대  
 게스트하우스 4세대  
 발 주 처 한국동서발전(주)  
 설계담당 디앤오 : 남한규, 성민경, 이원희, 홍수화  
 정은 : 박진화, 김용곤  
 한양대학교 김용승 계획연구실 :  
 신의재, 이진우, 성재원, 유승호

국내최대 발전회사인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화력직원사택 건립계획에 의해 명품 주택의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였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충남 당진에 국내 최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가 증설공사중이다.

서울 등 지방에서 당진화력본부로 근무지를 발령받은 임직원들의 주거지로 현재까지는 민간아파트를 직원사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진지역 상주직원증가에 따른 주거의 안정적 공급과 복지적 차원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위하여 적정 세대규모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직원사택의 신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직원사택의 재조명

과거 산업성장기의 직원사택이 주거의 최소요건을 갖춘 양적인 공급에 우선한 반면 현재의 사택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회사 구성원들의 가족들이 한울타리에 집단 거주하는 외

적인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 회사의 구성원과 가족이 집단 거주함에 따라 교류와 단합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구성원의 회사내 직급에 따른 가족간의 상관관계형성 등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 자연환경과의 조화

대지는 당진화력발전소와 12km 거리이며 북쪽으로 마을회관 우체국 그 너머 산업단지와 바다가 있으며 동측으로 4차선 국도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남측으로 경작지와 타회사 사택 서측으로 경작지와 인근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평안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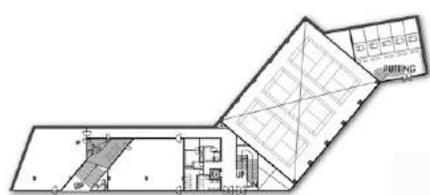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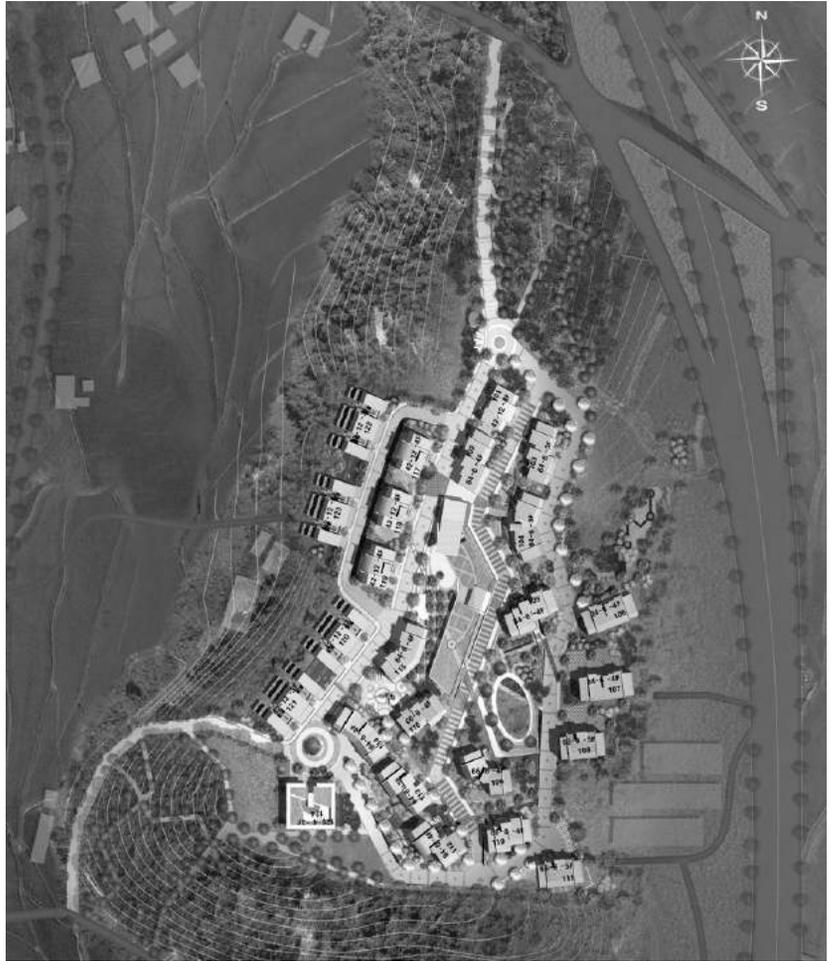
대지의 위치는 당진이나 송악이란 지명의 행정구역과 접하고 있으며, 지명 송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답사의 첫순간 대지내 외곽지역에 자생적 소나무 숲이 너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송림군락을 보존함으로써 인공적인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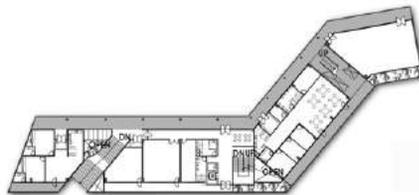
을 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대지는 삼면이 구릉지인 동산의 형태를 띠고 있어 경사와 주거동이 조화롭게 순응하도록 배치하였다.

### 지역주민과의 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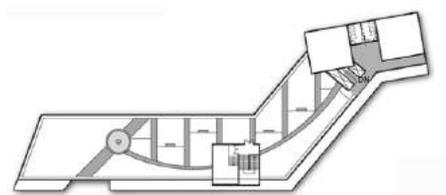
인근 마을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사택의 가족들도 전원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사택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도록 계획하였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부출입구에서 진입하면 연결되는 단지중앙의 생활가로에 면하여 배치하였다. 커뮤니티시설에는 배드민트, 헬스, 에어로빅, 탁구 등의 활동을 위한 실내체육관과 노인정, 어린이집, 매점, 식당, 도서관 등을 계획하였다. 커뮤니티를 관통하는 옥외 공간의 윗마당은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공원을 조성하고 아랫마당에는 지역주민 초청공연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과 관람석을 계획하였다.



커뮤니티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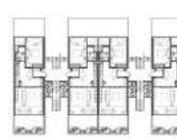
커뮤니티센터 2층 평면도



커뮤니티센터 3층 평면도



패밀리하우스 평면도



싱글하우스 평면도



게스트 하우스 평면도



패밀리하우스 정면도

싱글하우스 정면도

게스트 하우스 정면도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직원사택

Dang Jin's Company House

우수작 / 임왕규 · 나범식 정회원  
(주.건축사사무소 이도)

**대지위치**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325-3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 용 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29,970.60㎡  
**건축면적** 11,918.70㎡  
**연 면 적** 17,630.10㎡  
**건 폐 율** 39.76%  
**용 적 륜** 58.82%  
**규 모** 지상 4층  
**발 주 처** 한국동서발전(주)  
**설계담당** 이성범, 김병기, 김성현, 이혜운

충북당진 면소재지 인근에 동산으로 된 남, 북측 지형 흐름에 동서사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나무 숲으로 구성된 대지는 대지조망은 동서남북 사방향 양호하였고, 전형적인 시골마을 전경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45,000㎡ 대지에 30,000㎡만 사용, 지하사용불허, 1층은 필로티로 주차공간으로 확보, 세대수는 총 200세대, 주변 소나무 숲을 최대한 유지해 달라는 조건과 계획 시 가장 힘든 점은 관리지역은 지상 4층까지만 가능하다는 점과 동당 면적을 660㎡ 이하로 계획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개념은 '숲+사람+건축+삶'으로서 소통하는 건축문화마을을 기본으로 한 계획이다. 접근 지형은 전형적인 구릉지지형으로 북에서 남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쪽레벨(-17m)이 가장 완만한 편이며, 진입부분 대지가 협소해 단지에 대한 인지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치계획은 주 지형흐름에 보행라인을 구성하고 선형배치와 경사흐름에 따른 군집배치로 계획, 보차분리를 위해 데크상부:보행자

동선, 대지레벨 중 낮은(데크하부)곳을 단지 순환 차로동선을 부여, 단지 인지성에 대한 극복은 단지진입에 인접한 마을회관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개방형 부대시설 용도(체육관 및 노래방, 헬스) 중 지역개방형시설 위치가 고려된 매스로 단지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수직이동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 단지 내 보행 이동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레벨계획을 전개해 보았다.

세대 및 시설구성은 독신자형 → 진출입이 편리한 곳, 가족형 A(20평형),B(25평형) → 이웃 간의 커뮤니티공간을 부여 할 수 있는 곳(광장, 부대시설, 카페테리아등 조성), VIP형 → 입주자의 생활과 충돌이 최대한 적은 곳에 독립성 부여, 부대시설중 체육관 및 노래방, 헬스 등의 지역개방형시설과 단지내 입주자들을 위한 부대복지시설을 구분 배치했다.

동플랜 계획은 1동당 660㎡내에 해결해야 하므로 소형평형은 코어형 스타일인 3면 개방형의 3세대, 4세대 조합구성을 하였고, VIP형은 테라스하우스로 이용인원수에 따라 1, 2층으로 분리한 공간 구성을 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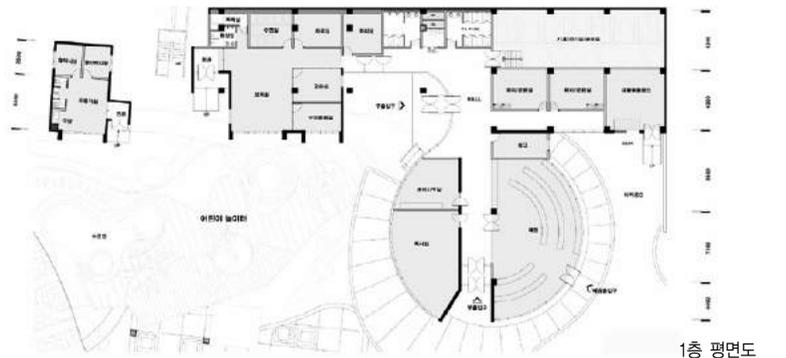
입면계획은 소나무 숲의 경사지 라인을 고려한 건물 스카이라인 형성과 박스타입의 각 동별이미지를 각각 부여 하였으며, 재료선택은 조형물인 단지 와 주변자연이 시간흐름에 동행 할 수 있는 노출콘 크리트+목재 질감을 주요재료로 선택하였다.

단면계획은 스킵 형으로 필로티(옥외 이웃 커뮤니티 요소인 카페테리아 조성) 및 반개층 차이를 이용한 동별 스카이라인 변화부여와 공용공간의 최소화 및 데크를 이용한 보행자의 수직이동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VIP형은 복층화 하여 전면에 있는 소나무 숲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오픈 스페이스를 부여 하였다.

건물은 사람이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조형물 이지 만 생활의 아름다움과 삶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 이기도 하다.



배치도



1층 평면도



독신형 평면도

20평형 평면도

25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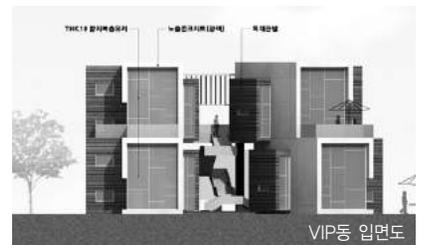
20평형 입면도



25평형 입면도



독신형 입면도



VIP동 입면도

##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직원사택

Dang Jin's Company House

가 작 / 김복지  
(건축사사무소 건축포럼)  
+ 최종천 · 정기연 · 조성기 · 전태진 정희원  
(주.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325-3번지 외 8필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주 용 도 다세대 공동주택(200세대) 및 복지관  
대지면적 29,970.60㎡  
연 면 적 16,697.09㎡  
건 폐 율 18.58%  
용 적 륜 56.07%  
주차대수 252대  
규 모 A동 지상2층 C동 지상4층  
B동 지상4층 D동 지상4층  
복지관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마 감 목재판재, 복층유리, 목재루버, 티탄아연판, 마블파일  
설계담당 박병수, 원계연 (건축포럼)  
김주현, 나종만, 유병규, 강진희,  
조경상, 고혜경, 정 훈 (제이앤제이)

### 디자인 개념

당진화력 7, 8기 건설과 관련하여 직원사택을 마련하고 제공함으로써 당진화력발전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가정복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획은 기능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조건에 순응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연계 및 맥락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고자 한다.

### 자연친화적 단지계획

기존 대지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축에 따라 단지를 배치하고 바람길을 열어주고 기존의 수림과 녹지를 이용하여 자연공원을 확보하며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수려한 숲과 함께하는 집, 숲속에 묻힌 집이 고자 하였다.

### 사용자중심의 단지계획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복지관, 운동장, 야외무대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단위세대 계획

가족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가족형주거와 단신주거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먼저 가족형 주거는 가족의 구성원을 고려해 자연령층을 위한 공간, 고령층을 위한 자연공원을 연계하고 단지내의 공연장과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배치계획으로 개인과 가족모두가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하였다. 단신주거에는 거주자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편의 시설을 연계하고 저층부 데크를 중심으로 한 개인들간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거자들의 활동성과 복지관의 의존도를 고려하여 단지내 입구쪽에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 편의시설계획

단지의 주요교차점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획했다. 복지관은 단지내 출입구에 위치시켜 접근성을 확보하고, 가족의 활동성과 단신 주거자들의 활동성을 고려해 자연공원, 운동장, 놀이터 등을 배치하여 활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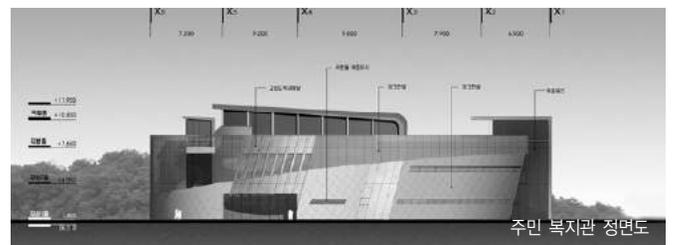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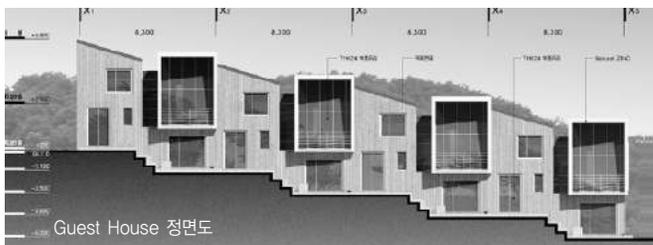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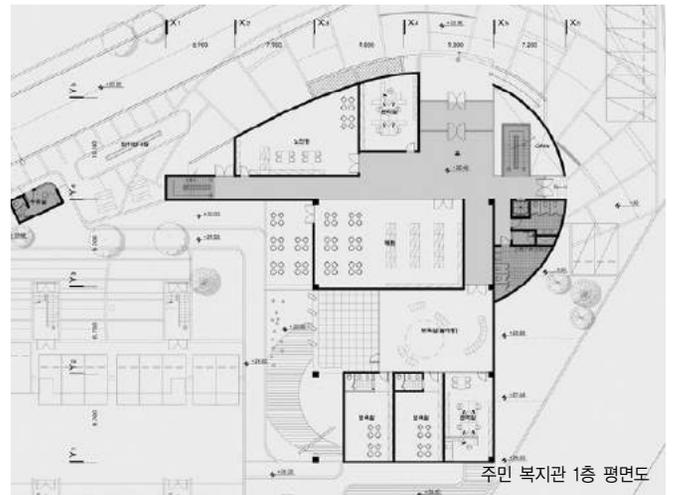


### 야외시설계획

지형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연계되게 하는 단지의 외부공간에 다양한 요소를 삽입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공간설정을 했다.

### 형태 및 입면계획

자연구릉능선과의 자연스런 연결을 맺어주는 지붕 형태로 Skyline을 형성하고 자연재료를 위주로 외관을 형성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한전 KDN 충남지사

Chung-Nam Branch of KDN

당선작 / 최종천 · 정기연 · 조성기 · 전태진 정희원  
(주. 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555-1, 555-16번지
-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비관지구
- 주요용도** 업무시설
- 대지면적** 2,149.00㎡
- 건축면적** 674.01㎡
- 연 면 적** 2,378.27㎡
- 건 폐 율** 31.36%(법정:60%)
- 용 적 륜** 87.13%(법정:200%)
- 주차대수** 61대(법정:13대)
-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최고높이** 19.35mm
- 마 감** THK22칼라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쉬트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판
- 설계담당** 김주현, 나종만, 유병규, 강진희, 조경상, 고해경, 정 훈, 김유미, 이지훈

#### 배치계획

대지는 서측 50m도로, 북측 8m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 8m도로를 기준으로 약 2m의 단차를 가지고 있다. 배치는 메인도로에 접하는 형태로 접근성을 높이고, 향과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일반비관지구 건축선에 의해 생성된 전면 공지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통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함으로써 열린 KDN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면성을 더욱 강조시켰다.

#### 동선계획

업무의 효율성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차량의 출입은 북측 8m도로에 계획하고 지상주차장내에서 순환하는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원활한 차량동선의 흐름을 유도했다.

보행자동선은 전면광장을 통해 진·출

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보행자의 접근성과 인지성, 안정성을 최대로 확보하였다.

또한 평면적으로는 동선의 절점에 코어를 배치하고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여 동선길이를 최소화하였다.

#### 평면계획

공간을 통합함으로써 구성된 평면은 주요 업무시설을 남향배치하여 에너지 효율과 조망, 환기를 극대화하였다. 합리적인 모듈에 의한 평면 구성을 향상시키고, 사무실 내 기동을 최소화하여 가변성 및 유연성 있는 평면계획을 함으로써 향후 실의 재배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 입면계획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이미지로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KDN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입체화시켜 입면계획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인지도와 정면성을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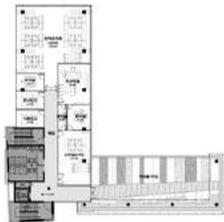


모듈에 의한 수직·수평의 Pattern·리듬·반복으로 정연한 이미지를 구현함과 함께 사선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입면을 계획하였다.

### 단면계획

각 공간별 단면기능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L' 자형으로 배치된 평면에 북측매스에는 사무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서측매스에는 후생시설과 공용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주요실들의 남향배치를 유도하였다.

기능에 따른 적절한 층고계획으로 쾌적한 근무공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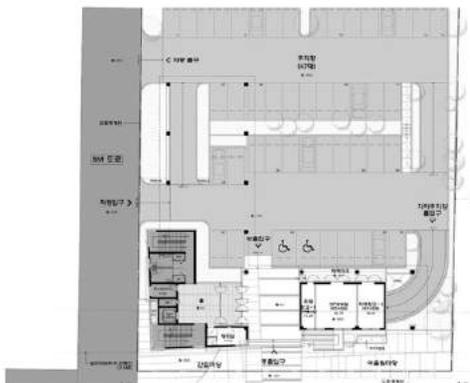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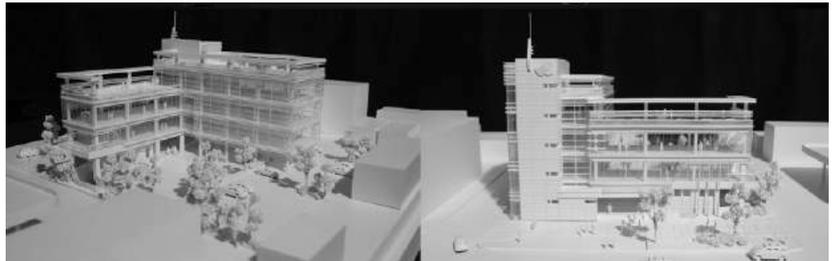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 한전 KDN 충남지사

Chung-Nam Branch of KDN

가 작 / 김태철  
 (리문건축사사무소)  
 + 이순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 김성곤 정회원  
 (주.뱅크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555-1, 555-16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지면적 2,149.00m<sup>2</sup>  
 시설용도 업무시설  
 건축면적 568.36m<sup>2</sup>  
 연 면 적 2,221.84m<sup>2</sup>  
 건 폐 율 26.45%  
 용 적 률 103.39%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60대 설치

자동차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 것이 아닐까  
 그러면 전기는 빛의 속도로 가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혀가며 디지털 시대의 도시를 만들  
 어가 가고 있다. IT의 유비쿼터스 도시를 꿈  
 꾸는 한전 KDN은 감성을 가진 새로운 움직  
 임으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진기지  
 다. 따라서 충남지사는 사옥으로서의 창의  
 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즐겁  
 게(Happy) 일하는 나, 서로 믿고(Open) 함  
 께하는 우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Top  
 KDN'의 기업문화 이미지를 기반으로 충남  
 지사를 계획해 보았다

### 배치계획

동대전 IC를 지나자마자 사옥은 교회와 견  
 주고 있다. 인지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  
 면에 매스를 배치하였으며, 다이어트한 날  
 씬한 매스는 5층으로 계획하여 기업이미지  
 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상주차만으로도 충분한 주차가 설  
 치됨으로서 효율적이지 못한 지하공간을 제거  
 하고 공사비 절감을 하였다.  
 사옥전면은 도시(간선도로변)과 대응하고

배면은 자연채광 및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하  
 여 오픈된 공간의 여유를 갖도록 하였다.

### 평면계획

자연채광을 고려한 남향과 도로변 소음을 고  
 려한 부속시설의 북측배치로 이원화된 조닝  
 을 하였으며, 1층은 시설 특성상 차량과의  
 연계를 고려한 창고를 배치하고 옥상 층은  
 복리후생시설영역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안전을 고려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  
 록 피난계단을 2곳에 설치하고, 부출입을 통  
 한 별도의 직원 동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정원을 체력단련장 및 교육장과 연계하  
 여 직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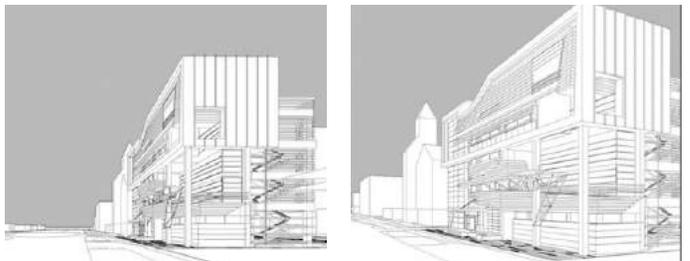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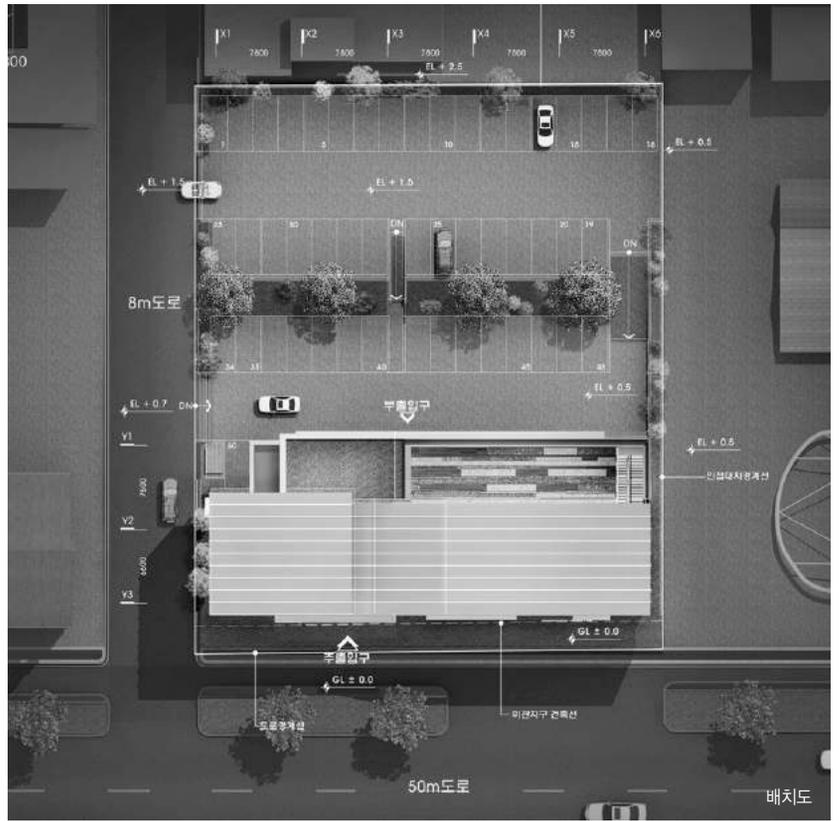
### 입면계획

Top Icon으로서의 수평매스를 강조하고  
 Show Strip(LED 조명을 이용한 KDN 광  
 고판 등) 및 Advertising Skin(계단실 등)  
 개념을 도입 첨단 이미지와 대화, 소통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하였  
 다. 아마도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Fun한 생각이길 바랬다.



전면은 각 실의 특징에 따라 진출 혹은 후퇴 되어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와 생동감을 줄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을 통해 한전KDN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치 및 공사비 절감등을 통해 즐겁고 투명하고 바른 최고의 기업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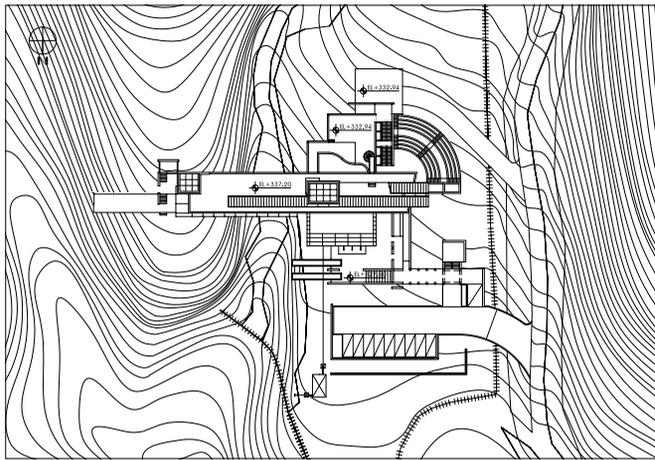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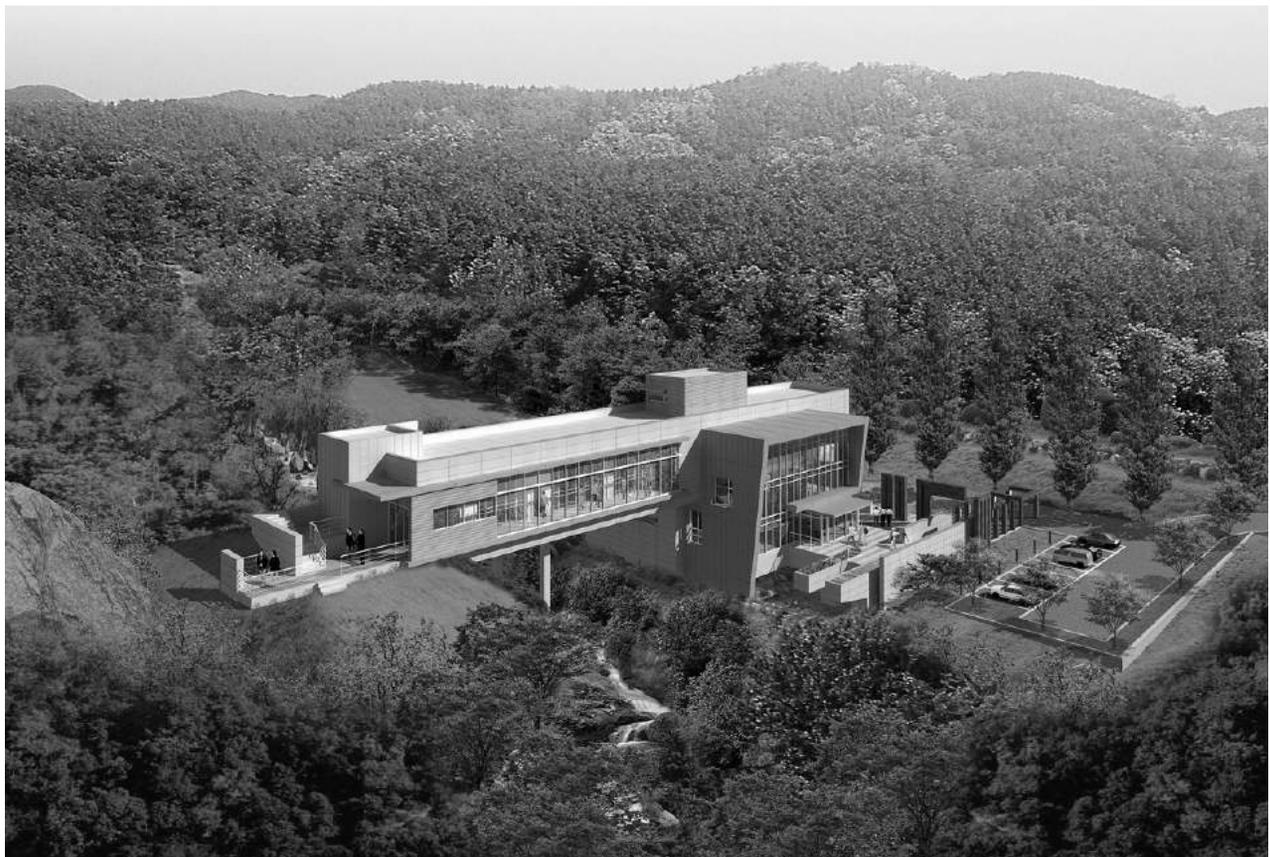
Korea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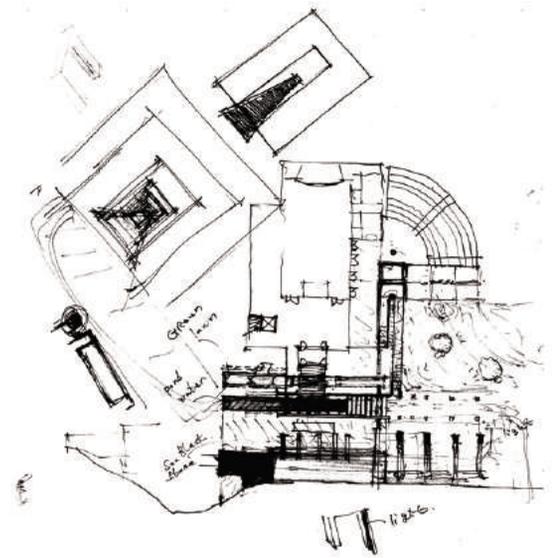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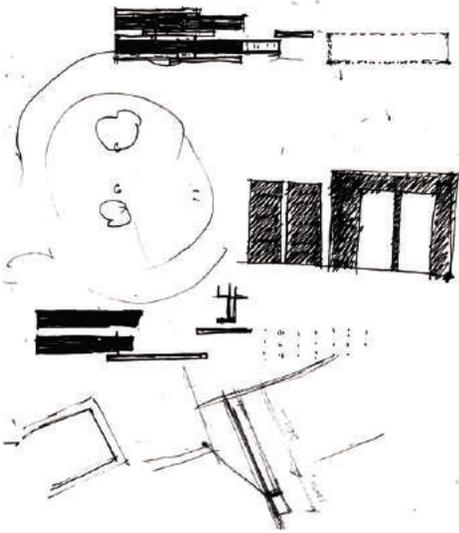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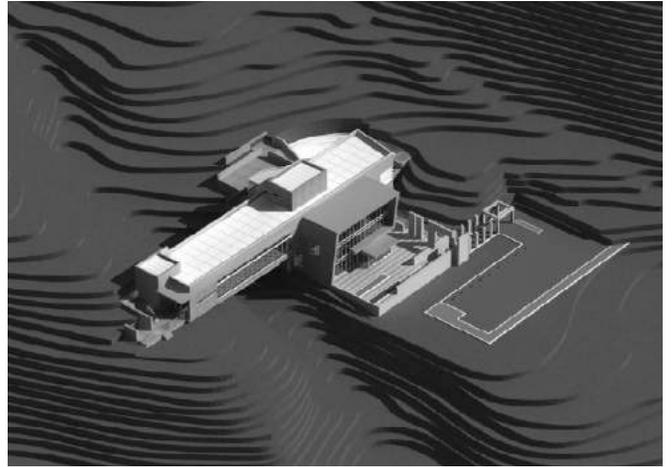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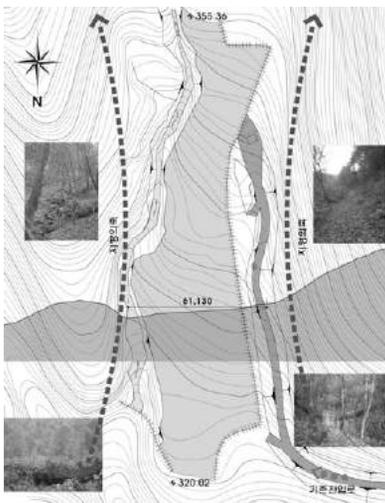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지역지구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산림지역, 보전임지
대지면적	15,172.792㎡
건축면적	925.88㎡
연면적	896.92㎡
건폐율	0.02%
용적률	0.06%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적삼목, 투명복층유리
설계담당	이형준, 정재만, 정진섭, 고광주





개념스케치

호반의 도시 춘천의 북서면, 그림 같은 북한강 줄기를 따라 굽이 흐르는 물은 수렵장이 있는 오월리 계곡으로도 연결된다. 겹겹이 둘러 있는 능선과 그 능선들이 만들어낸 계곡의 숲으로 인해 문득 자연의 깊은 중심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깊이감이 느껴지는 장소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의 새 터전이 건립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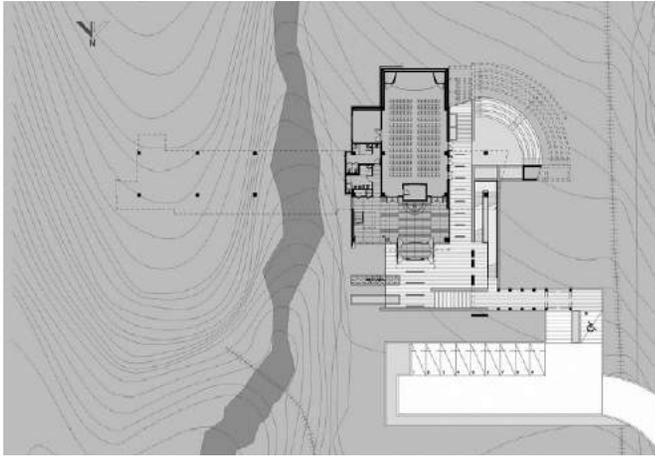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체계적인 논리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 지방분권 관련 교육과 각종 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 개최 등을 통한 분권운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건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있어서의 주 용도로 중, 대형 세미나실, 회의실, 로비, 인테넷카페, 자

료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면적은 약 840㎡ 규모를 필요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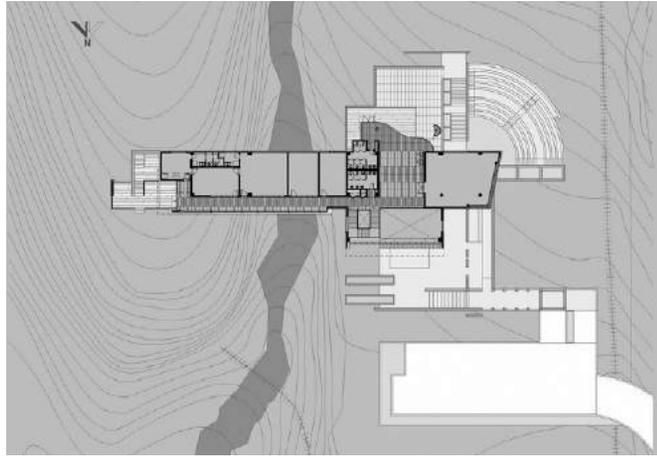
초기 현장 조사에 함께한 발주자 측에서는 두개의 능선 사이 어느 정도 평평한 대지 중심의 아랫부분이나 윗부분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우선적으로 건축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적절한 균형 선상에서 유기적으로 맺어지길 기대했다. 디자인을 통해 얻어지는 조화와 균형(대칭만이 아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초월된 장소성을 극복하거나 순응함으로써 건축적 정체성과 질서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전제를 세웠다.

첫째 자연의 훼손은 최소한으로 국한 한다는 것이고, 둘째 초월할 수 없는 자연 환경적 스케일감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고, 셋째 건축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적극 활용, 친환경 건축을 조성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를 중심으로 양면으로 강하게 축을 형성 하고 있는 두개의 능선의 크기와 규모나 방향성을 보아야 했고 그 두개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인 진입도로 바로아래 직각으로 또 다른 능선과 계곡이 부딪쳐 흐르는데 그 물줄기는 다소 깊고 넓은 폭이었기에 대지내의 작은 개울과는 규모가 다르다. 이에 따라 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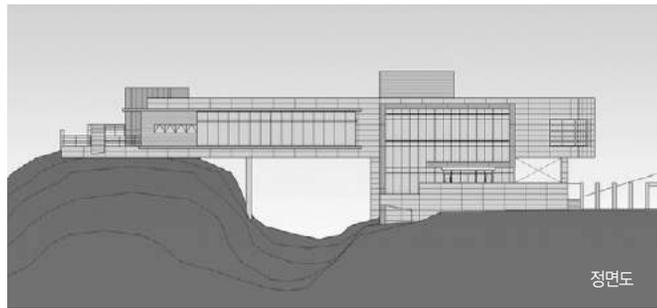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는 계곡의 선형이나 수리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에 가슴으로 귀를 기울여야 함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최소한 자연 앞에서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다.

어프로치 형식은 다소 은유적이고 유추된 공감감과 전혀 다른 새로움을 연속적으로 접하도록 의도 되어져 넓고 다양한 시각적 뷰를 확보함은 물론 공간적 체험 또한 다채롭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부까지의 진입축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로어에 진입할 때 마다 축이 변화한다. 그래서 자연에서 시작한 축은 결국 자연으로 환원되는 연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진입마당에 평면적으로 수평적 건축의 기본 축과 나란히 뻗어있는 두개의 콘크리트 박스 중 하나는 물을 담고 하나는 잔디 보다 조금 키가 큰 백합과 식물인 맥문동을 심는다. 하나는 정화의 의미이고 하나는 변화와 발전의 의미이며 분권아카데미의 교육적 가치 실현과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주차장에서부터 건물의 1층 주출입구까지 이어지는 의식화된 의미로서의 열주와 벽식 조형물로부터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마스터 플랜 계획에 있어 자연스럽게 구배된 대지의 형상에 그대로 순응하여 대지 아랫부분은 주차장을, 중심부의 경사면에 1층의 베이스를 형성하고 층고가 높고 장이 필요하지 않은 대형세미나실을 배치하여 경사진 대지에 묻혀 그 지붕층이 2층의 후면 테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단면 개념을 입체적으로 본다면 대지 레벨차를 이용한 테크의 연속적 연출인 것이다. 대의 위쪽으로는 증축을 고려

한 여분의 대지를 남겨놓기로 하였다. 동측 능선의 높이가 높지 않고 완만한 각을 이루고 있었기에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축의 수직수평축을 설정할 수 있었다.

2층은 동측 능선의 축과 나란한 1층과 90도로 축을 틀어 능선으로 가로 질러 '루'의 형태를 취하며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면 능선의 숲과 손잡고 그 너머의 또 다른 계곡의 아름다움을 보너스로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과 되도록 많은 면의 건축과 자연이 접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주 사용자인 분권아카데미 안원장님의 환호로운 동의와 격려에 힘입어 탄력적으로 진행된 좋은 예이다.

남쪽으로는 업무동의 실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휴게라운지공간을 사이에 두고 중형 세미나실이 배치된다. 북측 면이 진입축의 전면이 되어 북도공간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함은 물론 단열이나 환기등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돕는다. 휴게라운지에서는 남측 테크로의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로의 자유로운 동선이 확보된다. 동측 능선으로 뻗어있는 북도를 따라 걷다보면 다시 오픈된 테크와 확장된 자연이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 아래로는 작은 물이 흐르고 위로는 태양과 달과 별이 사계절과 함께 사람들에게 쏟아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기대된다.

자연과 환경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거나 순응하면서 얻어지는 건축적 결과는 행태와 기능을 충족하고 새로운 장소성과 공간감을 재분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분권아카데미는 교육장이자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많은 이들의 밝은 미래에 기여 할 것이라 생각된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담론(2)

## Discussion o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우리 건축문화는 아직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건축계에서 논의하였던 건축문화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진흥하고자 부단한 논의와 문제의 공론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요원한 실정이다.

다행히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의 도시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행복도시는 우리가 그간 논의하였던 건축담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의 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연재하고자 한다.

### 목 차

1. 건축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의미
2.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상형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디자인 정책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 비전형성 전략

필자 : 최영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무관  
by Choi, Young-bae



최영배 사무관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소방방재청을 거쳐,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건축기준 관련업무를 추진 중이다.

#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상형 행정중심복합도시

## Sustainable ring-shaped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nature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와 우수한 정부인력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과연 어떤 도시가 만들어 질까?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도시를 만들기는 구호일뿐 실현 가능한 이야기 일까? 라고 하는 우려가 생긴다.

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고 실현해야 할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싶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단군 이래 최고의 국책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49개 행정기관들이 이전할 것이며, 2030년에는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21세기형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도시개발 초기 기본·개발계획에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1세기형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계수준의 도시계획기법과 기술을 반영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분야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손색이 없을 정

도의 많은 계획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부하 저감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건설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도시개발 방향일 것이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각종 도시개발 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한 바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의 모습은 이중 환상형의 교통축과 중앙의 넓은 공원이다. 이는 도시의 중심부를 기존의 개발중심 공간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민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도시의 패러다임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이중 환상형 도시'를 도시통합이미지로 설정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창출되는 세계제일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범도시 건설을 통하여 국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 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도시건설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 수립과정에서 도시 중심을 녹지공간으로 비워둔 이중환상형 도시구조, 생태축 보전, 자원 순환형 도시기반 설치 등의 친환경 도시계획 기법을 반영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지면에서는 그간의 수립된 내용을 개괄적이거나 기술하고 앞으로의 실천을 위해 건축가가 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을 조용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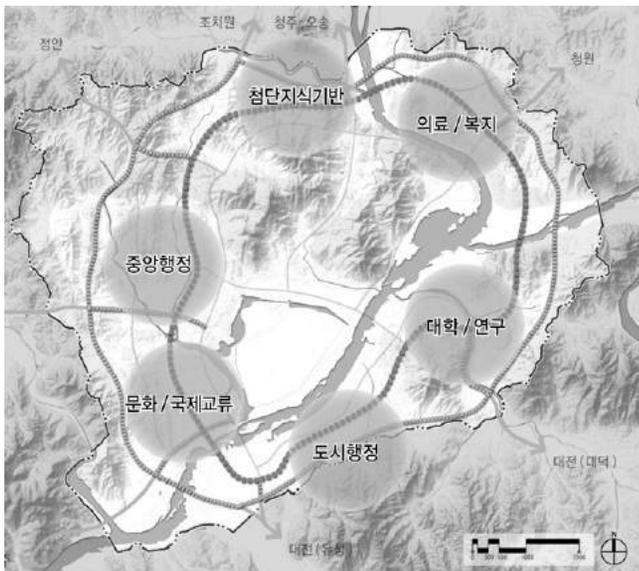
###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환경보전지역 설정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동·식물 등의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였다.

#### 〈보전지역 설정기준〉

- 지형적인 측면 : 대상지역에 경사도 15%이상 지역 하천제내지와 녹지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일정폭의 하천제외지



- 생태적인 측면 :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발견지역 및 주변완충지역

### 환경계획 수립

환경생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장기화에 대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생태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도시구상에 반영하였다. 백두대간 금북정맥에서 이어지는 녹지흐름을 보전하고 원수산, 전월산 등 주요 산림을 연결하는 광역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거점으로 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 녹지 및 친수공간 면적을 50%이상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요 동식물에 서식하는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가능한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외부로부터 오픈 스페이스 및 도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어지는 바람통로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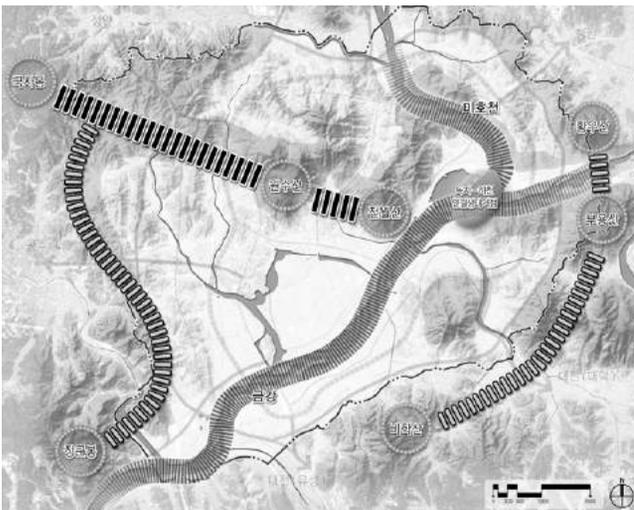


그림 2. 생태네트워크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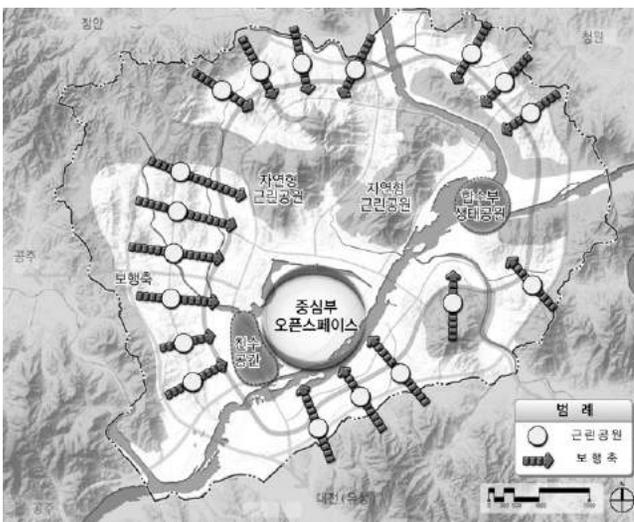


그림 3. 공원·녹지 기본구성도

### 〈생태 네트워크 설정대상〉

- 그린 네트워크 : 광역 녹지축과 연결되는 녹지축, 생태 자연도 2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 원형보존 녹지
- 블루 네트워크 : 금강과 미호천 주변의 완충지역 설정, 녹지축과 하천축이 만나는 합강지역

### 환경순환 시스템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재생시설 등의 자원시설 부분에서도 환경부하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물·에너지 및 폐기물이 연계순환하는 자연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소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중수도를 이용하여 적어도 상수도 사용량의 10%이상을 절약할 계획이며 먹는물은 사용하는 곳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전용 먹는물 수도관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빗물 순환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하여 중수도는 물론 조경우수, 하천유지이용수 등의 오·우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빗물침투가 용이하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되도록 적게 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자연석과 잔디를 심어 다른 기존도시 보다 2~3배 정도 높게 할 계획이다. 빗물에서 지하수로 자연적인 물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도시의 폐기물 대량배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66%)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회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28%)하여 발생된 에너지를 회수하고 불연성 폐기물(6%)은 매립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주변지역의 환경, 시설의 연계성,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지면적 42천 평방미터 규모로 예정지역내 남서쪽 남단 끝단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

#### 행복도시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수요량을 예측하고 열, 전기, 도시가스 등의 구체적인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타 도시보다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수립(32.8%)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30% 상향 조정하였으며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창호단열강화, 고효율보일러 등)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였다.

### 〈생태 네트워크 설정대상〉

구분	계	의무 사항	에너지이용효율향상설비					집단 에너지
			건축 부문	기계 부문	전기 부문	폐열 부문	신재생 부문	
절감율 (%)	32.8	8.3	4.5	2.7	1.7	2.8	2.3	10.5

###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입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내 에너지 소비량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이다.

※ 타 신도시 도입사례 : 성남 판교 0.3, 송도 0.4, 파주 운정 0.4, 은평 뉴타운 1.0

신재생에너지는 현행 법체계상 민간부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태양광 및 태양열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1,000세대, 공동주택 2,000세대에 시범적용하고 점차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은 총공사비 5%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의 환경과 연계하여 도시상부에 위치한 대형댐의 심층수(5~7℃)를 활용하여 정부청사 및 대형건물에 냉수 직공급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림 4.

### 초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 신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건축비의 상승요인이 되어 사실상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기법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상징성이 높은 공공건물을 선정하여 기존건물 대비 에너지 소모를 70%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형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 건축물의 CO<sub>2</sub> 배출량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 「CO<sub>2</sub> 배출 제로도시」를 지향하고 친환경 관련 산업의 Hub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에너지 절약계획(32.8%) 수립에 따라 총 에너지

사용량 1,346,142Toe 대비 290,245Tc의 CO<sub>2</sub> 배출량이 저감되므로 총 배출량 837,62Tc대비 25%가 절감 될 것으로 예측된다.

CO<sub>2</sub> 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대기 중의 주요 오염원이므로 도시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성장 및 유지관리 단계를 포함한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단계 뿐만 아니라 도시내 건축물의 건립 및 유지관리 등 생애 전반에 걸쳐 CO<sub>2</sub>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축물에서의 CO<sub>2</sub> 배출량 관리를 위해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소장 신성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적 수준의 CO<sub>2</sub> 배출 총량제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의 시범적용 등을 통해 CO<sub>2</sub> 배출저감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친환경건축물의 성능 평가는 물론 친환경 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CO<sub>2</sub> 배출량을 관리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마련

기존 도시들은 도시내부의 도로체계가 승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체중,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도시의 어느 곳이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는 환상형 교통망을 선정함으로써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교통체중 해소 및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첨단 BRT, 환승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로 높였다

#### 환경과 인간을 중시한 자전거 교통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환경 및 제반시설이 미비하여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수송 분담률이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 네덜란드 43%, 독일 26%, 일본 25%, 우리나라 3%(서울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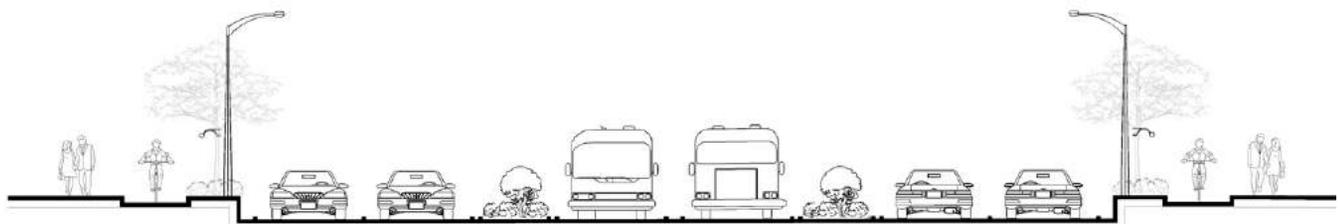


그림 5.



#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대하여(下)

- 1910~30년대 충남예산의 도시공간변화를 중심으로

## Urban Spatial Structure of Modern City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under the Japanese Rule

- Focused on Yesan, South Chungcheung Province in Korea



김득수 / 미진·삼대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Deuk-soo, KIRA

### 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공학석사
- 1992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1999년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직무 대행
- 1989년 서울시장 예산문예회관 충청남도 서부지역 면허시험장 외 다수

## 4. 정치경제학적 타율적 공간과 사회적 자율적 도시공간의 성립

### 4.1 식민사회의 정치적 공간

일제강점기 식민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권력 속에서 은행, 백화점, 상점, 관공서들은 식민지 근대도시에 있어서 전형적인 풍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지방소읍도시들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게 된다. 예산역과 공주를 잇는 1급도로를 따라 예산군청, 보통공립학교, 금오산일본신사와 헌병대는 지리적으로 높은 북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서쪽 진입부는 호서은행과 주재소(경찰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예산극장과 시장이 랜드마크를 형성하며 동서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은행앞 광장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충남자동차운수, 우편소, 학교(예산농림학교), 성당, 사원, 병원 등이 배치되었다. 한편, 동쪽축을 따라 본정통사거리를 중심으로 식당과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금오산 일본신사, 호서은행과 군청과 주재소 등은 그 중에서 높은 지대 위에 있었다. 이들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중심점인 삼각형 대지 혹은 높은 지대에 재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칭적 입면

과 높이, 단면, 파사드의 원근법적 접근 등을 통해 다른 건물보다 더욱 우월하게 서 있었다. 보이기 위한 또한 보여지기 위한 파사드는 항상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척도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원근법적 경관속에서의 거대한 기하학적인 이미지(건물)는 오브제 그 자체이고, 무의식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정치적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며, 시민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공간이며, 멀리 금오산에서 보이는 일본신사를 통해 충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권력과 국가의 지배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앙리 르페브르의 주장과 부합된다<sup>39)</sup>. 특히, 일본신사, 보통공립학교, 주재소와 헌병대는 예산 시가지(본정통사거리)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직선거리위에 있었다. 주재소는 호서은행 건너편 가장 넓은 도로인 1급도로를 따라 있었으며, 대한제국의 동헌을 철거하고 입지한 헌병대는 1급도로와 본정통사거리로 가는 남북가로선상에 있었다. 헌병대 및 주재소와 시민(노동계급) 거주지와와의 최단거리는 신속한 진압군대의 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40)</sup>. 실제로 일본신사가 위치했었던 금오산 중턱에서 촬영된 사진(〈그림10〉 참조)에서 시가지와 예산천 건너편까지 한 눈에 바라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감시·방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복종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들을 통해 가장 절묘한 식민자본주의적 도시공간을 만들어냈다.

더욱이 주재소와 헌병대를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 거주지가 동서로 양분되는 비균질화된 도시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이 거주한 서부지역은 구획화된 신작로 사이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이 거주한 동부지역은 구획정리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공립보통학교는 과거 조선시대 왕의 위패를 모시고 참배했던 객사 옆을 지나 옛동헌을 철거하고 군청과 나란히 본정(통)사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후에 일본신사가 학교 안에 세워지기도 한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 대한 지식계몽이자 신문명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며, 내선일체를 표방한 황민화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정당화를 알리는 홍보 공간이었다. 장 보들리야르는 근대적 도시공간의 특징으로는 일터와 주거공간의 분리, 새로운 직업의 탄생, 서양식학교의 건립, 소비문화의 변화 등을 말했다<sup>41)</sup>. 일본인들은 이 모든 것을 식민지공간에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시도적 경관조망은 계몽과 감압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상적 근대적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그림 10〉 참조).

## 4.2 근대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에서 예산시민들은 소비와 생산활동을 통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시키려는 근대시민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남철도역사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설계당시의 역위치가 읍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선정되자 자본가(지식인)들은 철도를 최대한 읍내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래서, 기성회(회장 성낙헌)를 조직하고 1만여평의 정거장 터를 경남철도회사 측에 기부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또한, 철도개통 후에도 예산역을 있는 기존도로를 1급도로로서 확장·개통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sup>42)</sup> 결과적으로는 행정, 검찰, 교육시설 등이 도로주변에 재배치되면서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 주도로 이루어졌던 철도사업은 한인자본가들이 공공시설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다시 일본정부에 기부했다는 점과 도로개설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을 하나의 생산·소비 그리고 자본의 축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 철도가 지배자들의 자본의 축적수단이 아니라 자원과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서 이용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자본주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시민에게 철도는 자본축적과 인구의 효율적 이동수단이었고, 철도·도로를 통해서 생산된 상품들을 운반하고 도시노동력에 의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집합적 소비재를 도시공간상에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예산의 경우, 철도와 도로개설과 자본과 인구의 유입이 서로 대응되면서 상설점포·시장들(생산·소비수단)은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 건너편까지 아케이드처럼 길게 이어지면서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거주지가 예산천 너머로 까지 확산된다<sup>43)</sup>. 가로의 양면에 즐지어 서있는 상업점포로부터 각종 먹거리들(한·중·일·양식), 벽과 상점, 거리에 나붙은 광고들, 상점간판들을 통한 오감(五感)의 경험들과 각종 근대식 물품들은 최신기술과 진보의 상징이었으며, 서구의 파사주(Passage)를 대변하는 볼거리들과 체험들로 가득찬 소비와 문화, 놀이의 공간이었다<sup>44)</sup>. 이러한 생산·소비를 통해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극장(1935), 여관(1920-30년대) 등과 같은 집합적 소비재들이 상점거리주변을 따라 재생산되었다<sup>45)</sup>. 이러한 과정은 근대도시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율적이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된 자

39) Henri Lefebvre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onald Nicholson-Smith, Trans., Blackwell Publishing, pp.360-363.

40) Walter Benjamin (1999) *The Arcades Project*,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tr., the Belknap Press: Harvard Univ, pp.10-13.

41) Jean Baudrillard (1991)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 문예, pp.52-85.

42) 이러한 계획 및 건설과정에서 예산시민 자신들의 손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철도개통이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시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철도 개통과 예산의 장래 (1922) 매일신보(1922.07.02), 동아일보(1922.06.14).

43) 이항복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정원년(1911, 행정자치부 기록보존소) 지적도에 지목이 대지를 건물로 복원한 지형도와 소화 2년(1927)에 발행한 도시계획지형도에 '목(木)'이라고 표시한 곳에 시장이 들어가 있었으며, 본정통 사거리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상업종사자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시가지확대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1926년 3월 20일 예산리 201번지 본정통 사거리와 쌍송나무사이에 형성된 기존시장을 새로 건설한 예산리 346-13의 17필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게 된다.

44) Susan Buck-Morss (1991) *Dialectics of Seeing :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MIT Press, pp.110-120.

45) 동아일보(1927.11.02); 동아일보(1927. 05. 08); 조선일보(1933.11.14); 조선일보(1936.07.29).

울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그림 8, <그림 10> 참조).

게다가, 1931년 동아일보에 의해서 주최된 주요도시 순회좌담(취재기자 이만찬)에서 8명이 예산의 미래상에 대한 난상토론을 하였다(그림 11) 설명 참조). 비록 이들의 제안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자본주의사상을 담고 있었다. 이에 관련된 주요 의제는 상공발전책(商工發展策), 교육문제(教育問題), 공회당문제(公會堂問題), 차가임문제(借家賃問題), 전기문제(電氣問題), 수조문제(水組問題), 풍기위생(風紀衛生), 농촌진흥책(農村振興策), 시가정리(市街整理), 도시개량(都市改良), 교통문제(交通問題), 물가조절책(物價調節策), 충남도청문제(忠南道廳問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산 지식인들은 구시가지의 상업적 기반과 철도역사 주변 신시가지와 연계 및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도로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제안했으며, 농업과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sup>46)</sup>. 여기서 우리는 생산과 소비 및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생활수단(도로, 시장, 전기공급, 교육, 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도시공간에 새롭게 재배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활동과 노동력을 재생산에 필요한 집합적인 소비공간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근본적인 주장은 자본주의적 사회에 맞게 도시공간이 재편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순회좌담회 참석자 (동아일보 1931. 2. 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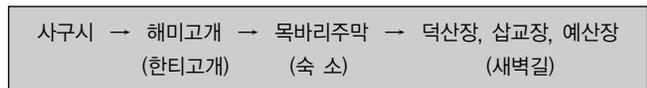
1. 순천의원장 이종대 2. 곡물상조합장 성관영 3. 예산신명유치원 원장 김영경 4. 예산교회 목사 심명목 5. 예산면장 이현세 6. 예산면협의회원 김흥모 7. 실업가 이재찬 8. 호서기자동맹 성낙훈

며, 집합적 소비재(생활수단, 물적터전)를 중요시 했던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관점과도 부합된다. 이후 시민의 활동은 정치적 상황하에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 식산은행지점 및 도립병원의 유치요구(1934), 공동변소설치 및 도로와 하수도 정비요구(1938), 읍승격 제의(1939) 등 도시번영을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전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sup>47)</sup>. 종합해보면, 예산의 근대도시공간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와 더불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자본축적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 목적에 맞춰 의도된 상품과 자본의 생산공간이었던 것이다.

### 5. 근대도시로의 발전요인

예덕상무사(보부상)는 덕산장시를 중심으로 보부상이 취급하는 품목의 주종물품은 생어물로 서해안 사구시(현재의 서산시 고북면 사거리) 포구에서 거래되었고, 부상(負商)들이 덕산장날 전일에 사가지고, 해미고개(한치고개)를 넘어 목بار리주막(그림 3 참조)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덕산장에 당도하여, 한 시세를 더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였다고 한다<sup>48)</sup>(표 8 참조).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서 식민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물품들을 조운을 통해 보부상들에 의해서 내포지방으로 운반하는 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보부상들에 의해서 곡물들이 해안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 도로와 철도의 건설은 조선의 각종 물산자원을 획득 운반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을 근대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표 8> 보부상들의 물류노선



일본인들은 철도와 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일정간격으로 대전, 군산 등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존 도시들을 이용하였다. 후자인 예산의 경우, 기존의 도로를 확장한 공주와 청양 그리고 홍성과 예산역을 연결하는 1급도로가 1923년에 경남철도 예산역사와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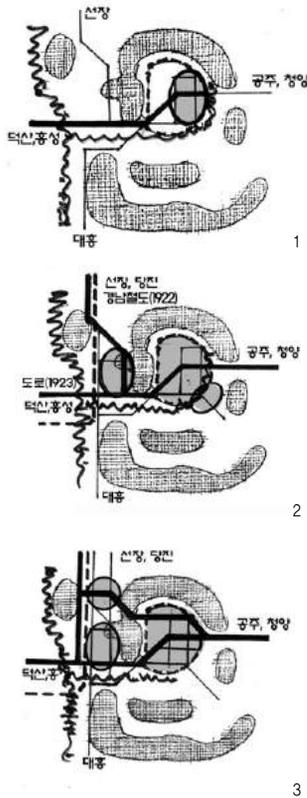
46) 이종대는 공업발전을 위한 공장설립할 것, 성낙훈은 도시정리를 위해서 서울과 같이 건축회사를 설립할 것, 성관영은 도시안에 공동정호와 공동변소를 설치할 것, 성관영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예산시가지를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설과 100여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공회당을 건설할 것, 이현세는 예산에 하천정리 필요성과 특히 삼거리(三巨里)방면에 하천정리 등을 제안했다. 성낙훈, 김영경, 심명목 등은 예산역 중심으로 모든 공공시설들을 이전하지 못한 것과 교육시설부족을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31. 02. 08).

47) 조선일보(1934. 09. 06); 동아일보(1938. 12. 08); 동아일보(1939. 07. 19).

48) 주막을 경영하던 한 노파가 이곳에 다시 목로술집을 만들고 주막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라 목바리라 부르게 되었다. 최문휘 (1988) 충남토속지명사전. 서울: 민음사.

49) 유진룡 (1984) 장돌뱅이 돈이 왜 구리지 않아?: 마지막 보부상 유진룡의 한평생(김택준 편저). 서울: 뿌리깊은 나무.

50) 도로의 경우, 1911년 4월 道路規則, 1913년 5월 道路취선규칙을 제정해서, 도로표준을 1등(노폭 7.3m), 2등(노폭 5.5m), 3등(노폭 3m), 등 각각 3종류로 나누고, 도로의 성격과 축조 및 유지수선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 1등도로의 경우, 서울과 도청소재지, 군대주둔지, 개항장, 철도정거장을, 2등도로는 도청소재지, 인접도청, 관할군청, 향만, 철도정거장, 3등도로는 군청과 인접군청, 철도정거장등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특히, 1등과 2등도로는 관리와 축조 유지보수를 모두 총독부에서 맡아 시행하였다.



〈그림 12〉 예산의 시가지 변화과정

1. 개항기-1920년대 2. 이전 1920-1945년(해방이전) 3. 해방후-1970년대

다<sup>50)</sup>. 결과적으로 철도역사가 있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공간으로서, 선형도시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다른 도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분지가 가지는 도시적 한계에서 벗어나, 도시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그림 12〉 참조). 결국, 예산은 철도와 도로라는 물리적 수단이 없었다면 발전될 수 없었던 기형적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다. 내포지방 물류의 중간거점이었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그로 인한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사구시 해미고개, 목바리주막, 덕산과 삼교를 연결하는 물품교류경로와 경남철도와

십자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따라 대전, 천안, 온양과 같은 상업도시 및 교통도시들과 기존 해로를 연결해 주는 중심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면통합(1914) 이후, 1931년까지 2,000~2,500세대 정도 증가했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요인(3,200세대)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인구 증가는 공주, 논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즉, 철도부설 이후에도 타 지역사람들이 장거리로 이동할 만큼 각 지역이 우위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균등한 인구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탈농촌화(deruralization)를 통해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철도부설 이후 장시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권의 중심이 되는 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규모가 작은 시장은 큰 시장에 통합되든지 개시일이 변화되었던 것이다<sup>51)</sup>. 즉, 철도부설로 시장과 시장사이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더 이상 상인들이 장시를 오가며 행상을 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상설점포가 도시공간을 점유하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과거의 네트워크화 된 상업도로와 철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상권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이 집적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 극장, 병원(약국, 한약방), 여관과 같은 생활수단을 수용하면서 상설점포와 시장들은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을 따라 확대 재생산되며, 동시에 거주지가 예산천 너머에 까지 확산되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와 철도부설,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상업네트워크를 통한 자본의 축적 등이 예산을 근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6. 결론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와 식민시대라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예산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구조와 변화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조선후기 보부상의 상업활동의 중심상업도시였으며 근대도시의 길목위에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주체는 바뀌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러한 역할이 계속 유지되었다. 경남철도개통(1922년) 이후, 철도역을 연결시키는 1급도로(1923년)를 확장 건설하게 되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선형도시구조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도로를 따라 주재소, 헌병대, 군청, 은행, 일본인 학교 등과 같은 지배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들에 의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물류 중심도시로서 자본이 축적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민을 위한 소비·생산공간으로서 본정통 사거리에서 예산천부근까지 상설시장과 상업점포들이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를 양분시키면서 주거지와 시가지가 점차 예산천 너머로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예산은 근대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자율적 공간과 일본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타율적 공간이 대응되면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인들이 도시에 유입되고, 그들을 위한 생활수단(군청, 주재소, 헌병대, 학교, 주택, 도로, 일본인상점, 일본신사, 병원 등)이 본정통사거리와 1급도로를 따라 필지의 분할과 병합을 통해서 도시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이들은 도시일상 자체도 변화된 일본인들에 의한 정치적 타율적 공간이었다. 즉, 철도, 도로, 관청과 주재소와 같은 공공시설물과 같은 집합적 소비재는 엄격한 통치와 원활한 상품생산 및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때문에 재생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즉, 도시기반사업의 주체가 한국인이기보다는 일본인이었다.
3. 그러나 예산의 지식인들은 도시문제와 발전방향 등을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경남철도역사를 예

51) 박호제 (2004) 충청남도 내포지역 지역엘리트의 재편과 근대화 (2); 조선후기~일제시대 내포지역 시장의 형성과 변화,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7, No.2, pp.101-147.

산근처로 재배치시키는 문제, 역사 주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의 도로를 확장, 그리고 예산내 시장을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를 실현시켰다. 그들의 주장이 한계성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식인들은 농업 및 상업활동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 시설 등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비록 도시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일본인들에게 주장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청회의 시작점에 있었다.

4. 예산의 정치적 도시공간은 1급도로를 따라 비교적 높은 지대와 큰 필지 위에 세워진 주재소, 금오공립보통학교, 군청, 현병대, 공립보통학교, 금오산신사 등이 본정통 사거리를 내려다보며 정치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금오산신사, 공립보통학교(1930년 증반에 신사가 학교내에 세워짐), 주재소, 현병대, 군청 등은 예산시가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원근법적 구도를 이용해서 시각적 대칭감과 높이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배자의 우월성과 존경심을 느끼도록 했으며, 주재소와 현병대는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본정통사거리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상에 입지해 있었다. 이는 국가의 지배전략을 도시공간상에 재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서울 한국은행앞 광장과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육조거리에서 나타나는 공간화된 권력의 시각적 이미지와 동일하다. 이들은 식민자본주의 도시를 투영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도시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5. 결국, 일제강점기의 예산의 모습은 시민들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학교, 주택, 병원, 극장, 상설점포, 상설시장 등)과 자국민과 한국인을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구획정리, 필지정리, 철도, 주택, 도로, 주재소, 현병대, 군청, 신사, 일본인학교, 일본인병원, 일본인점포 등)들이 서로 충족되면서 자율적·타율적 도시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들 모두는 주체에 상관없이 일상의 공간에 편입되어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도시번영을 위해 이 모든 생산수단들이 자본을 축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예산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

참고문헌

1. 김득수 (2001) 이기봉씨(1906년생)와의 인터뷰: 예산읍내 일본인거주자 자료요청.
2. 김득수 (2003) 일제시대 소읍도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충남예산지방의 근대적 도시변화,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영재·한동수와 2인 (2001) 해방 이후, 서울과 평양의 도심공간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7권, 10호, pp.31-42.
4.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戶口總數: 太祖 4年(1395) - 正

祖 13年(1789) 戶口總數.

5. 조선후기지방지도(충청도편)·大興郡지도(奎10429)·덕산군지도(奎10412)·예산군지도(奎12157) (1872) 규장각 소장; 도시계획지도(1927.01.30), 조선총독부제작, 수원국립지리원 소장.
6. 최병두 (2006)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7. 최신조선대지도(明治44,02.28) (19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충청남도 교통도 및 산업도 (19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예산리, 주교리, 산성리 대회리 등 (明治40, 大正1, 10.15; 측량완성 1911) (191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 예산군면, 대흥군면, 덕산군면 797 (1914) 지방행정면폐합에 관한 1~35철(충남도) 문서 번호 23, 필립번호 14, 5, 1-5, 조선총독부제작.
9. 成田龍一 (2003) 近代都市間の文化經驗, 岩波書店.
10. 禮山郡誌(昭和12.03) (1936) 禮山郡 教育會.
11. 朝鮮人會社 大商店辭典(全)(昭和2) (1926) 京城副業世界社.
12. 忠南産業誌(大正10) (1921) 田中市之助, 大田: 大田實業協會.
13. 忠清南道發展史(昭和7) (1932) 大田: 湖南日報社.
14. 忠清南道長官 內務部長官 (1913) 面廢合關スル件朝鮮總督府記錄, 行政自治部 政府記錄保存所所長.
15. 通商彙報(明治26,10.21) (1889) 京畿道及忠清道地方狀況 並二農況視察報告, 在京城領事館報告.
16.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Edward Arnold.
17.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onald Nicholson-Smith, tr.) Blackwell Publishing.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3회 이사회

2008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08년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의 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금 지원의 건,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 위촉의 건과 협의사항으로 남북 건축문화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관련 협약 체결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8년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위원회를 원안대로 설치키로 하고, 위원장 및 담당임원 선임은 회장에 위임함.
- 제2호의안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운영 지원금 지원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송평문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함.
- 제4호의안 :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 위촉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협의사항

- 제1호 : 남북 건축문화교류 협력사업 추진의 건  
-방북규모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이영순 부회장, 김한진 이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관련 협약 체결의 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총기 이사가 협약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 '08.3.31 협약체결

▲기타사항

- 2008년도 이사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함.  
-4/15(화), 5/13(화), 6/17(화), 7/15(화), 8/19(화), 9/9(화), 10/14(화), 11/18(화), 12/16(화)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홈페이지개편 T/F 회의

제1회 홈페이지개편 T/F 회의가 지난 3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홈페이지개편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Intro는 업체가 제안한 시안을 근간으로 하여 시나리오 및 디자인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Main에 사용하는 아이콘은 업체가 제시한 시안 중 아쿠아Type이 적당하다고 판단됨.
- Sub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사람이 들어간 Type보다는 그림이 들어간 Type이 적절하고, Detail한 이미지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후 회의는 '회장님 보고회'를 겸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9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제9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작성한 회원에 대한 법적 검토내용에 대해서 수궁하며, 세부 내용은 정관제정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
- 다음주에 정관제정분과위원회를 갖기로 하고, 위원장은 객재환 위원으로 결정함.
- 차기 회의에서는 조직체계, 홍보, 정관제정분과위원회에서 다른 내용들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4월 10일(목) 07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10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제10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단체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래와 같이 4개 과제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고, 각 과제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간사를 선정함.
  - 정관 : 조충기, 이충기, 조익수 (간사: 조충기)
  - 통합절차 : 객재환, 전영철, 조상훈 (간사: 객재환)
  - 홍보 : 권문성, 백민석, 강철규 (간사: 권문성)
  - 정책사업 : 함인선, 송평문, 이관직, 김용미(간사: 함인선)
- 차기 회의에서는 통합절차, 홍보, 정책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4월 17일(목) 07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3회 국제위원회

제3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미국건축사협회(AIA) 대표단 초청 및 AIA 총회 참석에 관한 건, 2008년 UIA 총회 참가에 관한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13) 준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에 관한 건
  - 몽골 건축사협회 대표단 초청 ('08.5.27~31) 시 회의주제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하며, 하선호, 오근석 위원이 초청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로 함.
    - ▷건축이슈 : 디자인 서울, 도심 재개발
    - ▷국제 실무 비즈니스 : 한·몽 간 건축 실무
    - ▷건축 투어 : 뉴타운(도심재개발), 한강 르네상스 등
- 제2호 : 미국건축사협회(AIA) 대표단 초청 및 AIA 총회 참석에 관한 건
  - 2008년 10월 27일부터 31일(4박5일) 까지 체재비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AIA 회장을 포함한 3인을 초청하기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AIA 총회에 참가하는 이영수 전문위원이 전담하기로 하고 회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정하기로 함.
    - AIA 총회 참석시의 AIA 측과의 협의내용 및 참가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방문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여 4월 국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3호 : 2008년 UIA 총회 참가에 관한 건
  - UIA 총회 참석은 본협회 심재호 이사가 UIA 제4지역 이사로 입후보 하였으므로 참가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기간과 인원 등을 위원장이 조율하기로 함.
- 제4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13) 준비에 관한 건
  - 초청연사 예우 수준을 ACA-13 집행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함.
  - ARCASIA Award 수상작을 보관하고 있는 스리랑카 측과 인도시기 및 방법을 협의하고,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시상식과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함.
  - 학생잼보리의 주제를 "Asiascape"로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함.
    - ▷학생잼보리 건축워크샵 개최지는 부경대학교로 하기로 하며 150불의 등록비에 잼보리 기간 중 숙박(최대 5박)

과 식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튜터들의 최소 초청비용 책정 등을 반영하여 학생잼보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짧은 시간 내의 워크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을 미리 배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 제5호 : 기타사항

-제4회 ARCASIA 임원회의('08. 4. 4 ~ 5, 부산)에 ARCASIA 임원 3인(이근창 아카시아 회장, 최재희 명예사무총장, 이영수 명예재무관)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표 3인(한명수 회장, 심재호 이사, 오세령 대리)이 참석하고, ACA-13 개최국으로써의 발표는 심재호 이사가 담당하기로 함.

-협회 활동에 젊은 건축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려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함. 이옥화 위원이 전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 간 국제교류업무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각 시·도 건축사회의 국제교류 현황 및 국제업무 담당자를 파악하고, 향후 시도건축사회와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본 협회 위원회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1회 법제소위원회(규정) 회의

제1회 법제소위원회(규정) 회의가 지난 4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협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건, 규정(안)에 관한 건, 위원회운영총칙 개정규정(안)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에 관한 건, 건축물 관리제도 연구보고서 관련 연구진의 검토의견에 관한 건,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잔여부수 폐기에 관한 건, 교육청의 감리용역발주에 관한 건, 협회행사시 관계기관을 통한 지원신청에 관한 건과 기타 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이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규정(안)의 내용이 정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규정(안)을 재작성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에 대한 사항은 평가자, 평가내용,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첨가·보완하는 것이 요구됨.
- 제2호 : 협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에 관한 건
  - 정관의 조항을 규정(안)에 반복 명기하기 보다는 규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는 것이 요구되며,
  - 집행부와 사무처의 역할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정관에 부합되게 재작성 할 것을 주문함.
  - 집행부와 사무처는 소관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 작성된 자료에 관한 자문 및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
- 제3호 : 위원회운영총칙 개정규정(안)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에 관한 건
  - 현 위원회 운영총칙을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조직’에 대한 규정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총괄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장간의 규정이 혼선의 소지가 있으면 별도의 개별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
  - 조직 :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조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됨
- 제4호 : 건축물 관리제도 연구보고서 관련 연구진의 검토의견에 관한 건
  - 검토의견을 문서로 제시할 것.
  - 과업지시서의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은 계약사항 이외의 것인지, 계약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의견이 부족함. 또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연구의

목적에 문제가 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제5호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잔여부수 폐기에 관한 건
  -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판매 후 잔여 부수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지역의 회장단을 초청하여 ‘협회발전 비전 2020’을 설명하는 행사를 요청하며 이때 질의회신집 잔여부수를 지자체(시.군.구) 관련부서에 증정하는 것을 건의함.
- 제6호 : 교육청의 감리용역발주에 관한 건
  - 시.군.구 교육청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직원이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교육청의 감리용역발주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아울러 시.군.구 교육청 및 조달청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맞게 감리용역 발주 할 것을 공문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7호 : 협회행사시 관계기관을 통한 지원신청에 관한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우리협회 행사관련하여 각 부처(관계기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신청요건, 신청방법 등을 조사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각 행사의 홍보 및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이행요청하고 해당부서에 협조요청 건의함.
- 제8호 : 기타사항
  - 이 회의의 검토는 오동욱 법제위원장(내정자)이 이행키로 함.

2008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9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어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입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 건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31(월)
- ▷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 ▷ 참석인원 : 2,755명 중 347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회계년도 전국건축사대회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회계년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서울건축사회 회칙(안) 제정 승인의 건
    - 감사 2인, 역대회장 2인, 구회장 2인, 간사 2인, 회원 2인 총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안)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함.
  - 제5호의안 : 법인 설립 승인의 건
    - 법인설립(안) 중 설립목적, 법인명칭의 승인과 법인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부가업무 수행을 회관지분확보특별대책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함.
  - 제6호의안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안) 체결 승인의 건
    - 단체협약(안)에 대한 찬반 가부 거수결과 찬성 6표, 반대 145표로 원안이 부결처리됨.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간사(9인)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김담옥
  - 제8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개선대상 대의원의 70%는 구건축사회에서, 30%는 회장단과 역대회장단 협의에 의해 선출토록 결의함.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6(수)
-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참석인원 : 684명 중 416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FY-2007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FY-2007 결산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FY-2008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가칭)부산건축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설립의 건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회원의 협회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건  
-원안대로 1년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승인
- 제6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 : 회장에게 위임  
-감사 : 이성희
- 제7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회장에게 위임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008. 3. 19(수)

▷개최장소 : 인터불고호텔 별관1층 목련홀

▷참석인원 : 609명 중 332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7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8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원안승인

· 제6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 장 - 신동출

-이 사 - 박성연, 서상봉, 석한수, 이완진, 정대영, 최재현, 최혁준

-감 사 - 김희영

-대의원-신동출(당연직), 도무찬(당연직), 김창수, 김희영, 배성윤, 신동석, 심두용, 윤종원, 이완진, 이용화, 정대영, 정연오, 천상욱, 최명환, 홍인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008. 3. 20(목)

▷개최장소 : 로얄호텔 2층 영빈관

▷참석인원 : 311명 중 224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8년도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회장 : 임창희  
-이사 : 신임 회장에게 위임  
-감사 : 한기욱
- 제6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신임 회장에게 위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008. 2. 29(금)

▷개최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참석인원 : 288명 중 178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

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이사 : 강석훈, 강필서, 김권수, 박홍근, 이순미

-감사 : 강현구

-대의원 : 김선채, 문성식, 문출성, 박무길, 신정철, 심상봉, 안태경, 양동협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008. 3. 11(화)

▷개최장소 : 제주 한화리조트 1층 회의실

▷참석인원 : 319명 중 152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회칙 제정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 : 박규용, 박상진, 양광직  
-감사 : 권이원
- 제5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이기수, 최 진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2008. 3. 25(화)

▷개최장소 :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르브르홀

▷참석인원 : 214명 중 167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제정(안) 승인의 건  
-회칙 제정안 제16조(성립 및 의결)의 총회의 성립요건을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을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이사(9인), 대의원(9인) : 집행부에 위임  
-감사 : 김영호
- 기타사항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차후 이와 관련한 회원 의견 수렴시 적극적으로 답변 제출하기로 함.

### 경기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17(월)
- ▷ 개최장소 : 경기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 ▷ 참석인원 : 970명 중 310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7년도 사업 및 일반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회장에게 위임
  - 제6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  
-감사 : 송기선

### 강원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4. 8(화)
- ▷ 개최장소 : 현대호텔 8층 다이아몬드홀
- ▷ 참석인원 : 205명 중 12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회계년도 수지결산

- (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강원도건축사회 회칙 제정(안) 심의의 건  
-“이회”를 “도회”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고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장 : 전찬홍(신임)  
-이사 : 김경환, 김학일, 안득수, 유은선, 이호준(5명 신임), 박준영, 최원석(2명 유임)  
-감사 : 임기섭  
-대의원 : 고희동, 이재춘, 정상원, 홍영배

### 충청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4(월)
- ▷ 개최장소 : 명암타워 크리스탈홀
- ▷ 참석인원 : 252명 중 9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칙 제정(안) 승인의 건  
-일부 수정후 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개선  
-감사 : 박흥석  
-간사(4인), 대의원(8인) : 회장에게 위임

### 충청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17(월)
- ▷ 개최장소 :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러리홀
- ▷ 참석인원 : 254명 중 12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칙 제정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복지회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년도 일반회계 · 회관관리 · 복지회 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 : 안희찬, 유재창, 장민호, 최종욱, 홍원기  
-감사 : 박병규  
-대의원 : 김수필, 김향희, 박철순, 성장모, 윤계환, 윤석희, 이동교, 조상연

### 전라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7(금)
- ▷ 개최장소 :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
- ▷ 참석인원 : 244명 중 124명 참석(총회원 247명, 권리정지 3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칙(안) 심의 승인의 건  
-회칙(안) 제28조제1항제4호 “선거관리위원회”를 삭제한 수정된 유인물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감사에 이진희 회원을 선출하고 간사 및 대의원은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하되 전임회장단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기로 함.

### 전라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1(금)
- ▷ 개최장소 : 상록회관 3층 연회장
- ▷ 참석인원 : 165명 중 8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칙 (안) 제정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수지예산 결산 (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 : 김영진, 차영식  
-감사 : 서계원
- 제5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김 정, 윤순하, 조도인, 탁기봉

### 경상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5(화)
- ▷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
- ▷ 참석인원 : 371명 중 265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 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경북회칙(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이사 : 권상기, 김영래, 김용택, 남재호, 박휘복, 소석규, 손창호, 안명이, 이종수, 이찬수, 임일중, 장우진, 장일환, 전상훈, 최규식, 황재한  
-감사 : 김종우  
-지역건축사회장 : 김상한(영천), 남재호 (안동), 박휘복(김천), 소석규(포항), 손 창호(구미), 이종수(경주), 장우진(칠 곡), 장일환(상주), 전상훈(경산),  
-대의원 : 고헌림, 권석진, 김구진, 김동수, 김용택, 김위순, 김종우, 소석규, 우종식, 이종수, 임영호, 전상훈, 최요명, 황승환

### 경상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7(목)
- ▷ 개최장소 :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 참석인원 : 413명 중 26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제정(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경상남도건축사회 상조회 경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 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7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8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임원 · 대의원 개선 및 승 인의 건  
-이사(5인), 대의원(15인) : 회장에게 위임  
-감사 : 권순욱  
-지역건축사회장(9인) : 지역건축사회 에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2008. 3. 26(수)
- ▷ 개최장소 : 한라신협 2층 회의실
- ▷ 참석인원 : 113명 중 52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7년도 수지결산(안) 승 인의 건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이사 : 강승협, 송일영, 양택훈, 임평운

- 감사 : 이동춘, 조길홍
- 대의원 : 강행생, 고봉규, 고성국, 오용화
- 서귀포지역건축사회장 : 이동기

###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공고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됐다.

오는 5월 4일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상수동 소재)에서 실시될 이번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 4개 과목,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에 걸쳐 연속 실시된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시험시작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02-581-5711, www.kira.or.kr

2008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 개최



2008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대표회장 이·취임식이 4월 4일(금) 11시,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신임 대표회장으로 김창수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이었던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작년 한해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사단체 통합 추진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건축계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의욕적으로 건축계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수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건축계 통합논의, 건축사법 개정, 건축사의 국제적인 사항들이 우리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법·제도 개선과 건축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계가 단합하여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창수 신임회장은 앞으로 1년간 FIKA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손장열 교수, 대한건축학회 제33대 회장 당선



지난 3월 25일~26일 양일간 인터넷투표로 실시된 대한건축학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에서 한양대학교 손장열 교수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회장 선거에서는 건국대 서치호 교수, 서울대 김광우 교수, 아주대 제해성 교수, 동아대 강병희 교수, 한화건설 이근포 부사장 등 총 5명이 당선됐다.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며, 4월 25일 정기총회(장소: 광운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손장열 교수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와 일본 동경공업대학 대학원 공학박사를 취득,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장 및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한국건축설비학회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골목길포럼, “통섭 consilience” 개최



'현대건축과 방법론'을 주제로 '2008년도 골목길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골목길을 마주하고 있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삼사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골목길포럼은, 건축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들의 이론과 작품을 공유함으로써 3사의 건축을 향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삼사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건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6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2-519-6316, <http://cafe.naver.com/kolmok>

일 자	주 제	강 사	게스트
5.20(화)	Parkscape	조경진 (서울대 조경학과)	김일현 (경희대학교)
6.5(목)	경쾌한 지식	이강현 (경기대학교)	김광배 (고려대학교)
9.24(수)	디지털 건축	이경훈 (국민대학교)	오섬훈 (어반엑스건축)
11.20(목)	하이퍼메스 공간	조택연 (홍익대학교)	공철 (Kc 건축)

호서대학교, 제2회·제3회 '건축학·건축공학 Colloquium' 개최



제2회, 제3회 호서대학교 건축학·건축공학 Colloquium이 오는 4월 29일과 5월 27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 103호에서 개최된다.

4월 29일 개최되는 제2회에는 EAN Technology의 신지용 대표이사가 '친환경 건축의 현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5월 27일 개최되는 제3회에서는 이주연 건축평론가(공간그룹 이사)가 'Communion'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호서대학교에서 지난 14년간 개최해온 특강 프로그램으로서 한 학기에 3회씩 연간 6회 개최하며, 외래 강사초청을 통해 건축 제 분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예비 사회인으로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유념하여야 할 내용 등을 강연하고 있다.

■문의 : 호서대학교 건축학·건축공학, 041-540-5770

## 'Autodesk Solution Day 2008' 오토데스크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오토데스크코리아는 오는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사용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Autodesk Solution Day 2008'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자인이노베이션, 오토데스크 3D솔루션'을 주제로 오토데스크 솔루션에 대한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혁신 방안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보급을 위한 BIM 등도 소개한다. 또한 오토데스크 전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각 트랙 섹션과 솔루션 데모 세션 및 정부 공공분야와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토데스크코리아 홈페이지(www.autodesk.co.kr)의 세미나 등록 코너를 통해 사전등록 후 참가할 수 있다.

## KCC, 친환경 녹제거제 'Rust Clean' 출시



KCC(www.kccworld.co.kr)가 천연 추출물이 함유된 친환경 녹제거(제청)제인 'Rust Clean'을 출시했다.

'Rust Clean'은 금속표면의 녹을 깨끗이 제거하여 사용하거나, 도색하기전 표면의 녹을 제거하여 도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의 제청(녹제거) 기능을 가진 방청 및 제청제이다. 또한, 녹제거와 동시에 오일류 등으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탈지 기능이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녹제거 및 녹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조선소, 중공업, 산업 설비를 포함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재도장, 보수 도장시 기존 발생된 녹제거를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었지만 'Rust Clean'을 사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최고라 할 수 있다.

KCC관계자는 "평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제품 중에 하나"라며 "가까운 KCC도로 대리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 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 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7 · 창령시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 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 ①협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건축사회라 한다.
- ②건축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지역건축사회라 한다.

제4조(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사업)

-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2. 회원의 품위 보전 및 윤리확립
  3. 건축 저작권에 관한 사업
  4.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자문 및 대정부 건의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

7.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8. 건축 및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9. 국토이용계획 및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10.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감정
  11.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 개선
  12. 국제기구와 국가간 건축교류 및 정보교환
  13. 건축연구소 및 건축정보센터 설치 운영
  14.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15.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위탁된 업무
  16.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7. 건축 관련 신문·방송통신 및 정보관련 사업
  18.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9. 건축문화진흥 사업
  20.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21. 건축설계경기 활성화사업
  22.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사업
  23. 한옥마을 조성사업
  24.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협회는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③협회는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협회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협회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시장 동향과 전망
  2. 건축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3. 건축사업무 개선 대책
  4. 협회운영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5. 협회의 운영 개선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⑤협회는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발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차별 실천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규정)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①협회의 정회원은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를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명예회원 : 국내의 건축문화 창달 및 협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 중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3. 특별회원 : 협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4. 참여회원 : 건축관계자 및 건축사보
5. 학생회원 : 대학에서 건축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제8조(입회)

①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는 정회원은 일정기간내에 소속 건축사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정회원 및 명예회원 외에 제7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회원의 입회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

신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제4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협회의 임원, 건축사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저작권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4.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5.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제4호의 경우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와 제32조 제5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6. 회원 인증 절차를 이행할 의무
7.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8. 사회에 봉사할 의무

제10조의1(협회의 의무)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능력과 품격을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1.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국가 최고 건축전문자격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보유
2. 전문성 향상과 품위 보전

3. 외국어 소통능력

4. 후진 양성 및 육성

5. 건축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6. 건축문화발전에 기여

제11조(자격의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폐업
3. 제명
4. 퇴회

5.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업무신고 효력상실

②제1항제5호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취소 확정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퇴회) 협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총 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협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불신임 안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대의원)

①대의원은 해당 건축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되 협회 직전임원 및 건축사회 직전회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역대회장 및 현직 임원, 각 건축사회 회장은 제2항에서 정한 대

의원 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건축사회는 대의원 선출 후 60일 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건축사회에서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목적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회원 총수의 10분의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목적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5. 감사결과 증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다만, 감사 1인 유고시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고, 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 ⑤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문서로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천

계획의 승인

-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또는 불신임
- 5.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 6.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 이사회규정, 감사규정, 공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7. 입회비 및 정회원 회비의 결정
- 8. 회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7조(성립 및 의결)

- ①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정관개정 및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 ①의장은 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공시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9조(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5인 이내(상근 1인, 비상근 4인)
- 3. 이 사 : 21인 이내 (회장, 부회장, 상근이사, 당연직 이사 포함)
- 4. 감 사 : 2인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비상근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제27조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상근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기구를 총괄한다.

⑤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의1(임원의 의무)

- ①임원은 회원의 모범이 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협회의 지속적 발전과 회원의 업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회장은 제5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연속성있게 실천하고 성취할 의무를 진다.
- ③회장은 임원(감사 제외)의 활동사항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받아 이를 회원에게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비상근 부회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④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 ⑤이사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⑥기타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23조(임원의 선출보고) 임원 중 회장과 부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고문 등)

- ①회장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회장은 협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회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직 인사 약간 인을 명예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설치 및 구성)

- ①협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감사 및 건축사회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회의 구분 및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매월 소집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제3항제2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의 위임사항
4. 제16조 제1항 제5호 외에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폐지

5.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위원회의 설치

7. 회원의 징계

8. 포상자의 결정

9. 정부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

10.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제28조(성립 및 의결)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회의록)

- ①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장 건축사회회장회의 및 위원회

제30조(건축사회회장 회의)

- ①협회는 건축사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건축사회회장회의를 둔다.
- ②건축사회 회장 회의의 의장은 협회 회장이 된다.
- ③건축사회 회장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 등)

- ①협회는 사업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윤리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행정위원회
4. 재경위원회
5. 공제사업위원회
6. 법제위원회
7. 국제위원회

②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중앙윤리위원회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④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⑤회장은 사안에 따라 실무조직(T/F, W/G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31조 제4항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5호의 공제사업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 등의 임무)

①각 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②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실무조직(T/F, W/G 등)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 7 장 사무기구

제34조(사무기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사무기구와 담당업무는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급여) 상근 부회장 및 상근이사와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 제36조(재정)

- ①협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정회원회비
  3. 준회원회비
  4. 특별회비
  5. 사업 수익금
  6. 수수료
  7. 기타 수입금
- ②준회원회비, 사업 수익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수입금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협회 회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37조(교부금)

- ①협회 회장은 입회비 및 준회원회비의 일부를 건축사회의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교부금의 액수 및 배정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8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 제39조(회계년도)

- ①협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
- ②회계년도 개시후 총회시 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집행예산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제40조(결산서 제출)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회의비용 등) 임원, 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9 장 건 축 사 회

### 제42조(구성 및 운영)

- ①건축사회는 해당 시·도에 업무신고를 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7조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②건축사회는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회칙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건축사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사업) 건축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
2. 회원의 품위향상 및 윤리 확립
3.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4. 건축에 관한 연구·조사·용역 및 감정
5.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6. 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7.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8. 협회가 위임·위탁한 업무와 건축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4조(총회)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협회 총회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총회의 소집,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회 회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④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건축사회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소속 건축사회 회비의 결정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회칙 제정 및 개정
6. 기타 건축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45조(임원)

- ①건축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임원의 구성, 권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축사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6조(삭 제)

### 제47조(삭 제)

### 제48조(지역건축사회)

- ①지역건축사회 회장은 해당 지역건축사회를 대표하며, 건축사회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지역건축사회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9조(삭 제)

### 제50조(재정)

- ①건축사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회비
  2. 운영회비
  3. 협회의 교부금
  4. 특별회비
  5. 사업 수익금
    - 가. 간행물 출판에 따른 판매 수익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
    - 나. 광고료, 회관임대료 등 수익금
  6. 감정 및 제증명 수수료
  7. 제1호 내지 제2호 외에 총회에서 정한 회비
  8. 기타 수익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건축사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인가받은 업무의 제 증명 수수료는 협회의 기준에 따른다.

③건축사회에서 수납한 제36조 규정에 의한 협회의 회비, 수수료 등은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의 위임과 보고)

①협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회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8조,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36조 규정에 의한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건축사회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44조 규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③협회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사회에 위임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장 포 상 및 징 계

제52조(포상) 협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건축계 및 협회 발전과 대외적으로 협회를 빛낸 회원
2. 건축계 및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

제53조(추대회원)

①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해당 건축사회의 추대를 받아 협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하고 추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2. 정회원 자격을 25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추대회원은 정회원회비를 면제한다.

제54조(징계)

①정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권리정지
4. 제명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회비미납의 징계)

①정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은 이사회,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 경고
2. 6개월 이상 : 권리정지
3. 12개월 이상 : 제명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이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③협회 및 건축사회는 제5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축사지에 2회 이상 게재 하여야 한다.

제56조(직무정지)

①협회 회장은 제1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협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건축사회회장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5조제1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및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1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법률 제9051호 / 2008년3월28일]

###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 2.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 제9049호/2008년3월28일]

###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2008년 1월 7일 폭발·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과 같이 설계·시공·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2.변경조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69호 / 2008년03월28일]

###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8년1월1일부터 배기량 800 시시 미만에서 1천 시시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도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에서 1천 시시 미만

의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2.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08. 3. 28)부터 시행한다.

### 3.변경조문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800씨씨”를 “1천시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9046호 / 2008년03월28일]

###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변경조문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을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절차·방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16조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을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재·소방성능 등”을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심사 및 평가방법”을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의3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42조제6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을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

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48호 / 2008년03월28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신설 뿐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지구로서 이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사업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로, “방법에 따라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학교설치계획”을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학교설치계획”을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으로, “매수계획”을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으로 한다.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정을 받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이 기준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작성한다.

제3조(감리대가등)

① 감리대가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운영하는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한 경쟁입찰 등으로 결정하며, 다음표와 같은 공사비에 따른 감리요율을 적용한다.

②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표에 의한다.

[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

총 공사비	기준요율
20억원 이하	3.15
30억원	3.05
50억원 이하	2.98
100억원	2.90
150억원	2.86
200억원	2.82
300억원	2.69
500억원	2.39
1,000억원	2.33
2,000억원	2.30
3,000억원 이상	2.24

※총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요율은 직선보간 한다

(다음표 / 제3조 ②)

총공사비(원)	20억원 이하	30억원	50억원 이하	100억원	200억원
감리인·월	12.1	15.5	19.6	38.1	73.8
총공사비(원)	3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감리인·월	109.9	163.2	277	472	645.2

※총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리인·월은 직선보간으로 정하며, 3,000억원이상의 경우는 2,000억원과 3,000억원 사이의 기울기를 연장하여 직선보간한다.

③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에 감리원등급별 환산비를 곱하여 산출한 인·월수의 합계가 제2항의 총공사비에 의한 감리인·월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하는 감리부분의 감리원 등급별 임금 중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하는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호의 공사비를 제외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1. 대지비
2. 부가가치세액
3.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경비)
4. 다른 법률(「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공사비

5.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총사업 산출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대가 외의 비용부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대가 이외에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

1.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
3.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한 특허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다.

제6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감리자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명, 주택단지의 면적,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
2. 감리조직, 감리원의 배치, 감리원별 담당업무, 감리기간, 감리원의 자격 및 경력
3. 건설공사의 공종별 및 월별 주요 감리업무 추진계획

②감리원의 배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월수 이상을 현장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되 건축, 토목, 기타 설비분야 등을 감리할 감리원을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 배치인·월수 중 15%의 범위 내에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은 제1항의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에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에 배치할 수 없다.

③상주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 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축사협회, 「**주택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 협회의 임원급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운					
소 계					
간접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소 계					
대 지 비					
부가가치세액					
<b>총사업비계</b>					

주 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 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 천원

구 분	분 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소 계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가시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흡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소 계						
	기계설비 (9개 공사)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소 계							
		전기 (15개 공사)					
		정보통신 (13개 공사)					
		소방설비 (2개 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b>총공사비계</b>					

#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사람의 눈과 카메라 눈의 차이점

사진은 사실과 진실이 함께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장된 표현을 보여준다. 그것은 렌즈에 따른 대상의 물체들이 변형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초광각렌즈로 찍힌 사진들은 매우 원근감이 나타나게 보이고 과장된 스케일감을 보여 실제와 다른 건축물로 보인다.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진만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사진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이용하여 건축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은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와 카메라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눈은 살아서 생각하는 인간의 신체의 일부이며 렌즈는 기계의 일부이다.

인간의 눈은 선별적이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만을 보고, 렌즈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물체를 보기 때문에 시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므로 촬영을 할 때에는 가장 중점적인 피사체에 70%, 그 외의 배경에 30%정도의 배분



1.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내부 중앙에서 바라본 모습

으로 관찰하여 촬영을 해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화면정리를 할 수가 있다.

-사람의 눈은 두 눈으로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데 비해,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평면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입체감이 부족한 사진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입체감을 잘 살릴 수 있는 요소에는 빛과 그림자의 콘트라스트, 원근감, 심도의 범위 등이 작용한다.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면 실제 촬영에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눈은 화각, 크기, 심도 등이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의 렌즈는 여러가지의 렌즈를 교환하여 아주 좁은 범위에서부터 180° 이상의 화각까지 보여 줄 수도 있고 먼 곳의 피사체를 원하는 크기로 선명하게 촬영할 수도 있다.

-사람의 눈은 순간적인 조절작용에 의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렌즈는 초점을 맞추면 그 평면 위의 물체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 외의 것들은 희미하게 나온다. 이런 특성은 조리개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이면 선명한 범위가 깊어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얇아져서 주제를 강조시킬 수가 있다.

-사람의 눈은 빛의 밝기에 따라 홍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항상 피사체를 적당한 밝기로 볼 수 있지만 렌즈는 빛의 밝기에 따라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순응성이 있어서 광원이 변하더라도 본래의 색상으로 보지만, 렌즈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당한 필터를 사용하여 색상을 보정해야 한다.

-사람의 눈은 광범위한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만을 감지하는

데, 사진은 가시광선 외에 약간의 불가시광선까지도 감지하여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현상까지도 볼 수 있게 해준다.

-눈과 렌즈의 시각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촬영을 할 때에는 좋은 사진을 얻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즉 실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하지 못 할 것이다. 실제로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사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촬영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촬영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사실적 모습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 카메라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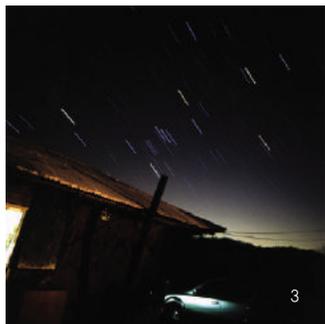
건축사진은 소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사진에서 요구되는 것은 디테일이나 재료의 질감 등을 정밀하게 묘사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대형 건물들과 같은 현대 건축물들을 촬영할 때 일반 카메라로는 할 수 없는 상·하·좌·우로 조사가 용이하여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여 줄 수가 있다. 또한 그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입체감과 볼륨, 스케일감과 같은 양감을 표현 할 수 있다. 대형 카메라는 4인치×5인치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전문 건축사진가들은 주로 4인치×5인치 판 대형카메라를 주로 사용한다.

대형 카메라에는 필드(Field)형과 뷰(View)용이 있다. 풍경사진이나 예식장과 같은 곳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필드(Field)형이지만 건축사진에서는 뷰(View)카메라가 필수적이다.

뷰 카메라의 특징은 상·하(Shift)조작이 가능하므로 현대 건축물들을 찍고자 할 때 와이드 렌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카메라로 찍으면 건물들이 아래는 넓고 위는 좁아지는 듯한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데 대형 뷰(View) 카메라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조절할 수 있어 건물을 실제의 모습으로 찍을 수 있다. 슈프트(Shift)라는 것은 카메라의 조절기능을 전·후, 좌·우, 비스듬히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장치이다. 슈프트 조작의 효과는 카메라의 앵글이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피사체의 촬영범위를 이동할 수 있고 선의 콘트럴에 의해 형상이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또한 소형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가 결정되면 그 카메라의 전용렌즈가 정해지지만 대형 카메라의 경우는 카메라와 전혀 관계가 없이 많은 종류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사진에 필요한 렌즈를 선택할 경우 초점거리나 밝기 그리고 그 카메라에 대한 렌즈의 적합성이나 슈프트 조작에 필요한 넓은 이미지 서클이 요구된다. 같은 초점거리의 렌즈에서도 그 타입이나 구성이 다르면 묘사 특성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크고 넓은 복잡한 피사체인 건축물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렌즈를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결정에 의해 화각, 심도, 밝기, 사프니스, 컬러 밸런스 그리고 슈프트까지 크게 관계되어 진다. 이와 함께 건축사진의 피사체들은 정지된 상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고려하여 기재 선택에서는 기동성이 있으면서 가벼운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4

2. 루이스 칸의 김벨미술관 외부 중정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를 만들어 본다
3. 건축과 자연의 조화에서 빛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이 흐르는 모습으로 정적인 건축물과 동적인 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
4. 아침 햇살이 비추는 신록사 정자 모습

또한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건물을 찍기 위해 대형 특수카메라인 파노라마 카메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촬영하면 자연과 더불어 넓게 퍼져있는 건물들도 한컷의 앵글안에 찍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카메라들은 일반 아마추어들에게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필름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건축물들의 표현에서 요구되는 질감이나 디테일 등 세부묘사가 쉽다. 그래서 건축물의 공간이나 디테일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형이상 대형카메라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소형카메라로 건축물들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디테일이나 질감의 표현 등 조작방법들이 대형카메라를 사용하여 찍는 것 보다는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사진의 테마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물체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가벼운 소형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8년 2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12	5,112	136	272	22	69	5,270	5,453	1,566	1,566	270	540	67	201	33	132	30	208	1,966	2,647		7	7,236	8,100	100.0%	100.0%
서울	1,099	1,099	37	74	10	31	1,146	1,204	872	872	172	344	42	126	17	68	18	127	1,121	1,537		6	2,267	2,741	31.3%	33.9%
부산	479	479	19	38	4	13	502	530	89	89	14	28	6	18	3	12	4	24	116	171			618	701	8.5%	7.9%
대구	427	427	21	42	7	22	455	491	64	64	20	40	6	18	1	4	1	4	92	131			547	622	7.5%	7.7%
인천	234	234	2	4	0	0	236	238	51	51	6	12	0	0	0	0	0	0	57	63			293	301	4.0%	3.8%
광주	213	213	2	4	0	0	215	217	33	33	7	14	1	3	2	8	3	17	46	75			261	292	3.6%	3.7%
대전	196	196	14	28	0	0	210	224	32	32	9	18	3	9	1	4	1	14	46	77			256	301	3.5%	3.7%
울산	164	164	6	12	1	3	171	179	18	18	3	6	1	3	0	0	0	0	22	27			193	206	2.7%	2.6%
경기	682	682	5	10	0	0	687	692	228	228	22	44	2	6	2	8	1	5	255	291			942	983	13.0%	12.2%
강원	165	165	3	6	0	0	168	171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93	203	2.6%	2.6%
충북	175	175	7	14	0	0	182	189	26	26	2	4	1	3	2	8	1	11	32	52			214	241	2.9%	3.0%
충남	172	172	2	4	0	0	174	176	36	36	2	4	1	3	4	16	0	0	43	59			217	235	3.0%	3.1%
전북	197	197	3	6	0	0	200	203	22	22	2	4	2	6	1	4	0	0	27	36			227	239	3.2%	3.0%
전남	139	139	0	0	0	0	139	139	10	10	1	2	0	0	0	0	0	0	11	12			150	151	2.2%	1.9%
경북	316	316	7	14	0	0	323	330	29	29	3	6	1	3	0	0	0	0	33	38		1	356	368	5.0%	4.6%
경남	354	354	8	16	0	0	362	370	26	26	4	8	1	3	0	0	0	0	31	37			393	407	5.5%	5.0%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9	9	0	0	0	0	0	0	0	0	9	9			109	109	1.5%	1.3%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 축 사 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00	10	8,110	100.0%	23
서울	2,741	3	2,744	33.9%	10
부산	701	1	702	7.9%	9
대구	622	0	622	7.7%	0
인천	301	0	301	3.8%	0
광주	292	0	292	3.7%	0
대전	301	1	302	3.7%	0
울산	206	0	206	2.6%	0
경기	983	2	985	12.2%	2
강원	203	0	203	2.6%	0
충북	241	0	241	3.0%	0
충남	235	3	238	3.1%	0
전북	239	0	239	3.0%	0
전남	151	0	151	1.9%	0
경북	368	0	368	4.6%	1
경남	407	0	407	5.0%	1
제주	109	0	109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72	2,704	92	8,268	
비 율	66.18%	32.70%	1.12%	100%	
사무소수	5,310	2,014	-	7,324	
비 율	72.50%	27.50%	-	100%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a+u

新建築



최현아/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 Architectural Record



2008년 4월호의 프로젝트 섹션에서는 ‘빌바오 이후 박물관’이라는 에세이가 눈길을 끌며 얼마 전 오픈한 Coop Himmelb(l)au의 BMW Welt, Tod Williams Billie Tsien Architects의 Phoenix Art Museum Expansion, Smithgroup의 Normandy American Visitor Center 등 7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건축기술 섹션에서는 대체에너지 문제를 크게 언급하면서 디자인 안의 절충없이 건축에 재생에너지를 집적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성공한 Chicago의 Near North Apartments, Washinton, D.C의 Solar Decathlon과 New York City의 One Bryant Park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고, 인테리어 섹션에서는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같이

진행된 건축 프로젝트를 빛낸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그 예로써 FG Stijl의 BMW Welt restaurant와 Hartman-Cox Architects Patent Building, Adjaye Associates의 Arario Gallery New York을 보여주고 있다.

### ■ Books

**Block by Block: Jane Jacobs and the Future of New York**, by Timothy Mennel, Jo Steffens and Christopher Kleme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7

지난 1월에 마감된 뉴욕의 시립예술협회에서의 전시회의 카탈로그인 이 책에서는 별처럼 흩어져있던 39인의 작가들(저널리스트, 시인, 사회학자, 건축사, 비평가 등)이 모여 Jane Jacob의 미래의 뉴욕에 대한 시각이 현시대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합한 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문제가 된 책은 1961년 발표된 Jacobs의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로 그녀가 그 당시 미래의 뉴욕에 대해 예견한 것이 그때의 상황과 사뭇 다른 현재의 뉴욕의 모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Paris 2000+: New Architecture**, by Sam Lubell, with forward by Axel Sowa: Monacelli Press, 2007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와 현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배운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의 모든 것과 투쟁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책은 환경보호청이나 변화를 기피하는 이웃주민들 등에 의해 제한을 받았을 때 실제로 건축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30개의 짧은 서술에서 Shigeru Ban의 intra-Pompidou Center 워크에서부터 건축사 부부의 집에 이르기까지 Lubell은 21

세기에 대한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파리의 건축을 찾아볼 가치가 있으며 이 책은 단지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파리의 건축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Yona Friedman Pro Domo, by Yona Friedman: Actar Publishers, 2007**

오늘날, 우리는 거대구조체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20세기에는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거대구조에 대한 지지자들은 선동가였으며 이들의 디자인은 실현되지 못한채 남아있었다. 가장 강한 지지자 중 하나가 Yona Friedman였다. 1923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1948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으며 1954년 이후 파리에서 살았다. 그의 경력은 거대구조체를 통해 근대적인 생활을 도시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Friedman의 책의 내용은 그 이미지들이다. Friedman은 Pro Domo에서 단편적으로 그의 경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문 디자인에 그의 아이디어와 그 방법을 글과 만화, 그림 그리고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62년 세월이 걸쳐 도시에 관한 그의 아이

디어들을 적용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 Project

**Essay: Museums after Bilbao / Subject and Object**

박물관 건축에 있어 기원전 · 후와 같은 시대의 갑작스러운 단절과 같이 빌바오 이전과 이후가 있다면서 시작되는 이 에세이는 수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국제적인 문화라는 지도 위에 특이한 장소로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 저명한 건축사를 영입하여 박물관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물관 건축이 이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문화적 유택함을 만들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Virginia Reanak에 미술관을 지은 로스엔젤레스 출신 건축사인 Randall Stout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건축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나 하나의 충격적인 건축물로 인해 도시 전체가 급작스럽게 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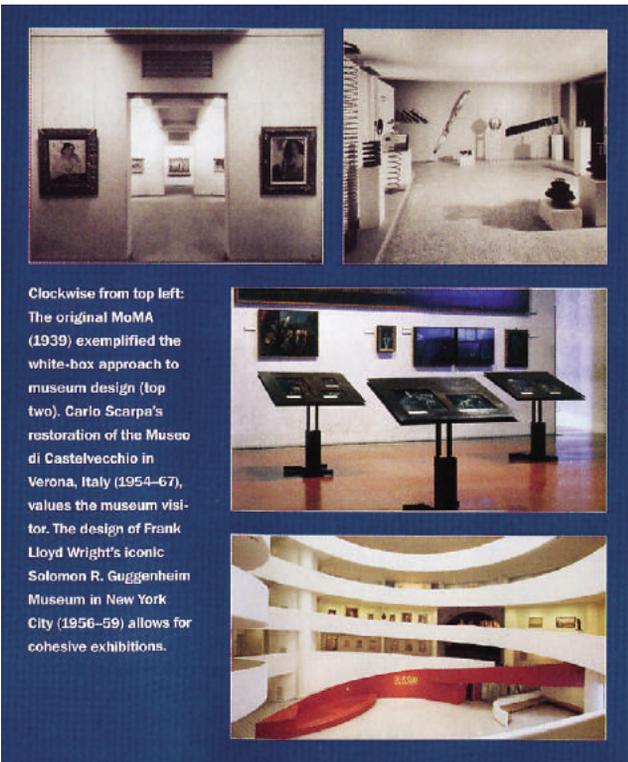
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고 쓰고 있다.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 그 규모도 문제가 된다. Bilbao Guggenheim은 크기와 높이 모두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규모였다. 반면 Daniel Libeskind의 Denver Art Museum, Richard Meier의 스페인에 있는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와 같은 중간 규모의 박물관도 실제로 주변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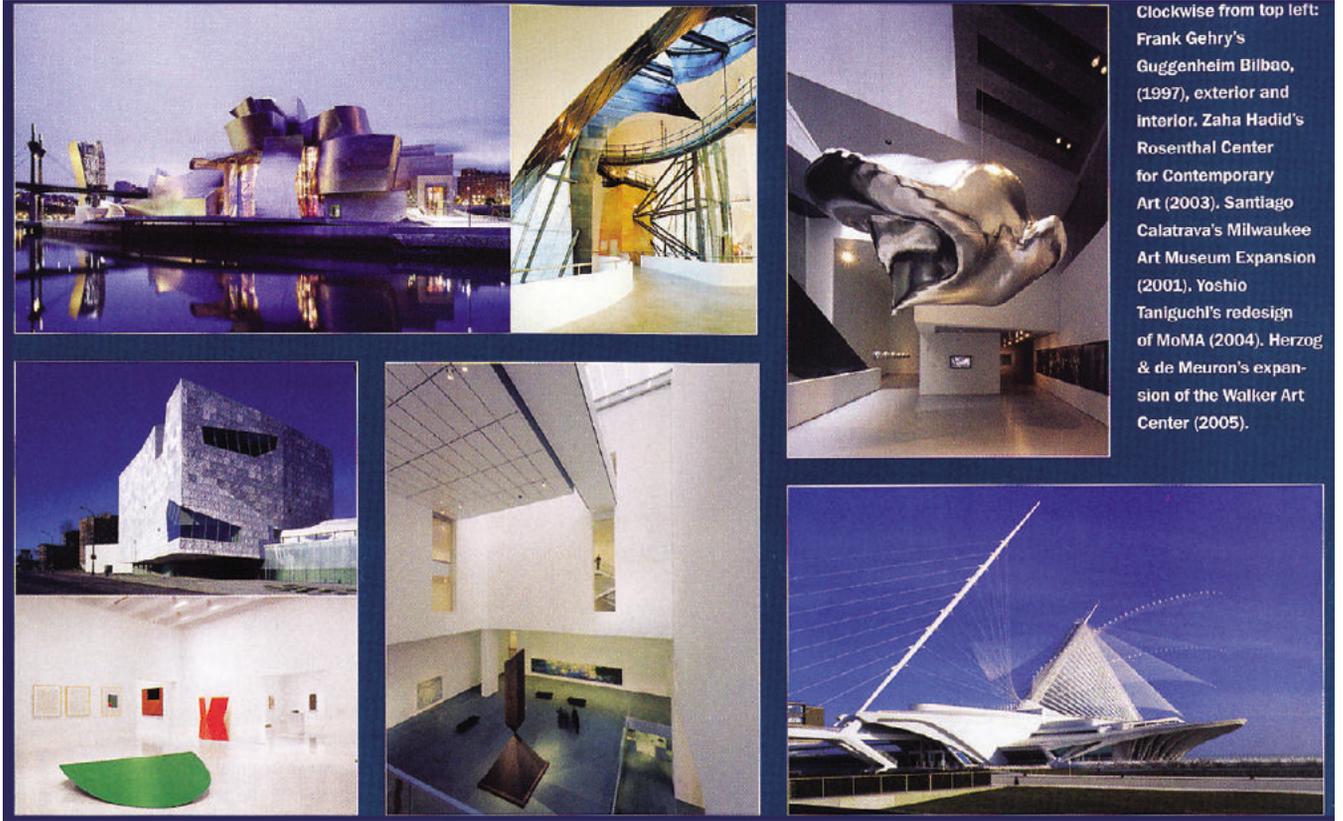
또한 Coop Himmelb(l)au의 Akron Art Museum은 부피도 정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프랙탈적인 형태의 유리를 이용한 파빌리온을 디자인하여 황량한 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에세이에서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은 외관이 화려하다고 잘 디자인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에세이에서는 뉴욕에 있는 새로이 오픈한 Ditto Yoshio의 Museum of Modern Art(MOMA)를 관람자들의 동선계획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기능적인 내부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건축사는 더욱이 관람하는 동선을 따라 다른 공간들이 연속되면서 변화되는 관람자들의 동선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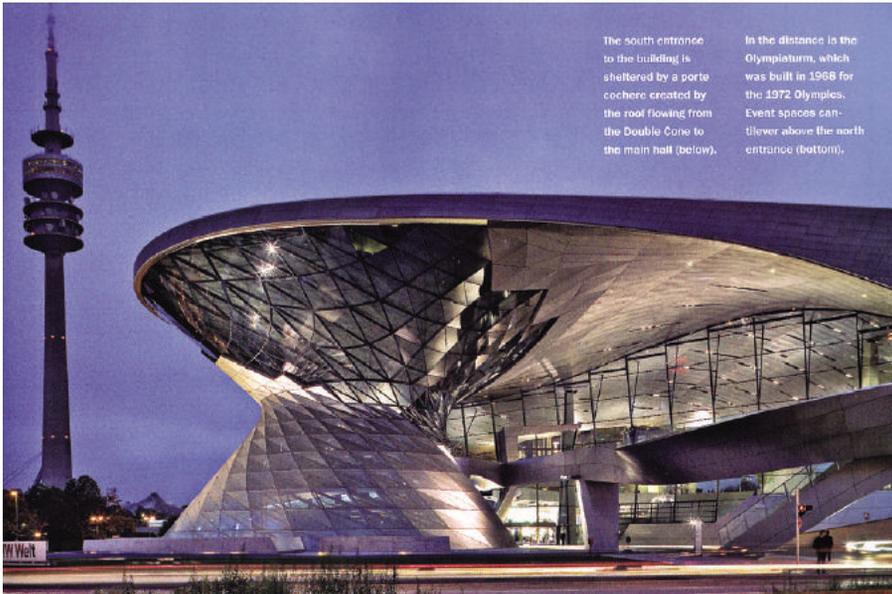


• Museums after Bilb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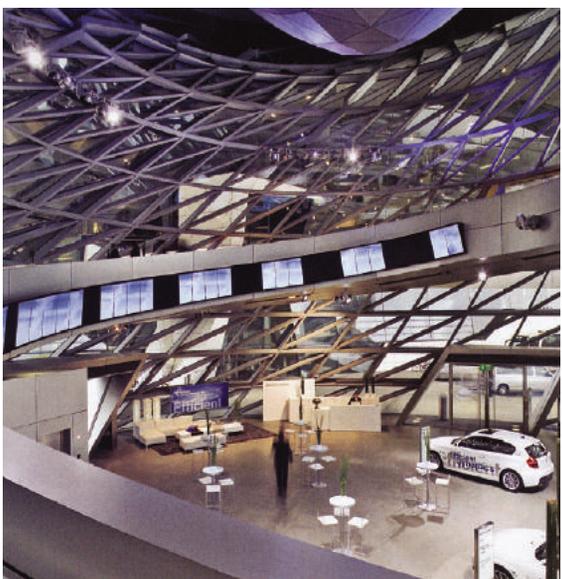


Clockwise from top left:  
 Frank Gehry's  
 Guggenheim Bilbao,  
 (1997), exterior and  
 interior, Zaha Hadid's  
 Rosenthal Center  
 for Contemporary  
 Art (2003), Santiago  
 Calatrava's Milwaukee  
 Art Museum Expansion  
 (2001), Yoshio  
 Taniguchi's redesign  
 of MoMA (2004), Herzog  
 & de Meuron's expan-  
 sion of the Walker Art  
 Center (2005).

▲ Museums after Bilbao ▼ BMW Welt, Germany



The south entrance to the building is sheltered by a porte cochere created by the roof flowing from the Double Cone to the main hall (below). In the distance is the Olympiastadion, which was built in 1968 for the 1972 Olympics. Event spaces cantilever above the north entrance (bottom).



한, 갤러리들은 귀중한 전시물들을 다루므로 그 역시 관람절차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시물들은 백색의 빈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경험과 시각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과 같은 공간은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주관성과 객관성을 아울러야 할 것이다. 이번 에 이 책에서 다루어진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문제를 충실히 해결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BMW Welt, Germany/ Coop Himmelb(l)au's Wolf Prix

Coop Himmelb(l)au's Wolf Prix는 Munich 외곽에 BMW 벨트라는 나선형 형태가 주는 거칠다는 느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냈다.

지난 가을 뮌헨에 탄생한 BMW 벨트(영어

로는 BMW World)는 차량인수센터, 최신 BMW 디자인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 외 식당, 상점,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복합공간이다. 건물 디자인은 비엔나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건축사팀인 Coop Himmelb(l)au가 맡았다.

이 전시장은 그 기능과 디자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건물은 소용돌이의 형태를 한 더블 콘(Double Cone)과 14,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유리외 금속으로 된 '클라우드 루프'가 핵심을 이룬다. 이 금속으로 된 더블 콘의 형태는 마치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일어난 철제 몸통의 근육과 같은 느낌을 준다.

반사유리와 스틸 메쉬로 싸여있는 역동적인 더블 콘은 옆에 있는 BMW 공장 4개의 엔진 실린더의 형태를 본따 지어진 것으로 유명한 본사를 향해 소용돌이 쳐 올라가면서 BMW World를 만들어 놓고 있다. 서쪽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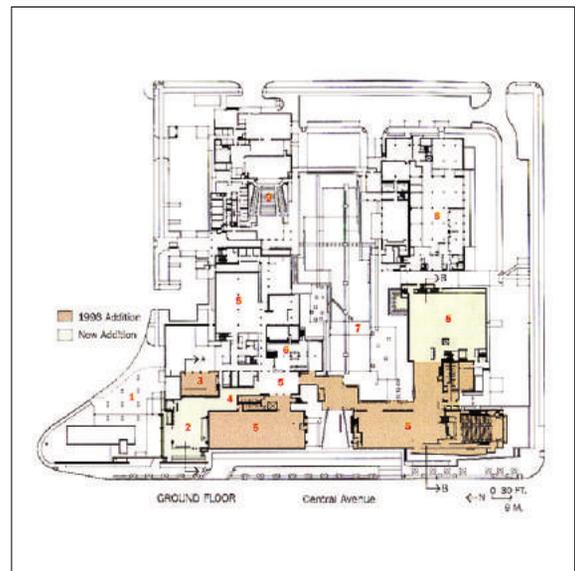
은 Georg-Brauchle-Ring을 따라 뻗어있으며 고속도로는 이 건물을 올림픽 공원으로 부터 분리해 준다. 뮌헨 외곽의 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전시장에서는 1972년 올림픽을 위해 1968년에 설립된 Olympiaturm이 먼 곳에 보인다.

건물의 남쪽 입구는 더블 콘으로부터 메인 홀까지 인도하는 지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강력한 운반통로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

메인 홀 안에는 보행자를 위한 다리가 2개 층으로 된 넓은 공간을 굽이치고 있다. 지상층의 중간에는 기술과 디자인 섹션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차를 고른 고객은 반투명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에 있는 라운지로 올라가 차 열쇠를 받아 몰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구매한 차를 처음 타보는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 Phoenix Art Museum Expansion, Arizona



1층에는 BMW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고 길을 가로질러 맞은 편에는 보다 많은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타워가 있으며 이 타워의 상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에는 쇼핑공간과 영화관, 콘서트 홀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다.

2층의 보행자를 위한 다리에서는 방문객들은 차량이 고객에게 인수되는 공간인 Premiere(첫 공개라는 의미) area를 살짝 볼 수 있다. 특별한 자동차들은 플라자 레벨에 전시되어 있다.

더블 콘의 나선형의 램프를 통해 방문객들이 자동차와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으며 또한 손님들은 자동차 출하장인 Premiere area 으로부터 더블 콘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전시장은 BMW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BMW의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이 브랜드의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졌다. 개장 후 5개월여 만에 100만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이제 뮌헨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서 그리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확보부동한 자리를 잡았다.

### Phoenix Art Museum Expansion, Arizona/ Tod Williams Billie Tsien Architects

Tod Williams Billie Tsien은 Phoenix Art Museum에 또 하나의 매스를 추가함으로써 그 동선을 변화시킨다.

찬란한 태양, 저렴한 땅값 그리고 미국 개혁자적 취향은 Phoenix를 15번째로 큰 도시로 만들었다. 도시의 인구 증가는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다. Will Bruder와 Studio Ma와 같은 Arizona 출신의 창의적인 건축사들은 매력적인 콘도를 디자인하였으며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옴으로써 한때는 자동차만의 독점공간이었던 거리가 새로운 전철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다.

이러한 꾸준한 성장은 Phoenix Art Museum을 만들 계획을 하게 하였으며 원래는 시립도서관과 소규모 영화관을 포함하여 시민회관의 일부였던 박물관이 1959년에 문을 열었으며 1965년에 확장되었다. 그 후

도서관이 독립되어 나가자 1996년 다시 증축했다. 1965년 증축시에도 원래 이 시민회관을 디자인한 건축사인 Frank Lloyd Wright를 연구하여 유사하게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나 1996년 증축시 박물관 측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찾았고 따라서 뉴욕의 건축사인 Tod Williams과 Billie Tsien를 영입하였다. 이들은 박물관을 도로에 면해있으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건물의 방향을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Central Avenue 쪽으로 바꾸었으며 거기에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 박물관은 새로운 갤러리의 증축이 요구되었으며 1996년 증축 당시 디자인의 문제점이 같이 시정되기를 바랐다. 도로쪽으로 입구를 낸 것은 좋았으나 대부분의 방문객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지의 북동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박물관의 뒤쪽 입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박물관 측은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중앙의 안쪽 마당을 조각공원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새로운 건물을 위해서 박물관 측은 다시 Tod Williams과 Billie Tsien를 선택하였으며 조각공원의 디자인을 위하여 Reed Hilderbrand를 영입하였다. 이 박물관의 오랜 박물관장인 James Ballinger는 'Tod와 Billie에게 그들이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덕분에 새로운 건축사를 다시 찾거나 하는 일 없이 1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잘못된 출입구를 옮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콘크리트 벽과 나무를 이용하여 주출입구 옆의 공장을 가리기로 하고 외부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도로를 따라 기존의 입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조경부분을 맡은 Christine Ten Eyck은 palo brea 나무와 그의 토종 수목들을 이용하였으며 조각가 Dan Euser는 'rain curtain'을 만들어 도로에서부터 들리는 소음을 막아주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입구 쪽에 새로운 전시장과 로비가 만들어 졌으며 특히 4개 층에 달하는 새로운 갤러리공간이 탄생하였다. 건축사는 7.8미터 높이의 협곡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이 공간을 통해 방문객들이 입구와 로비로부터 기존의 박물관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조명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꼭대기의 채광창을 통해 새로운 갤러리의 날개 쪽으로 간접적으로 햇빛이 비추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중앙 집권적 혹은 지방분권적 성장을 모두 경험해온 이 도시와 같이 Tod와 Billie 역시 한 번에 하나씩 박물관 매스의 후퇴와 전진을 거듭한 후에 새로운 Phoenix Art Museum를 탄생시켰다.

### Normandy American Visitor Center, France/ Smithgroup

Smithgroup은 Normandy American Visitor Center의 디자인을 통해 고표현과 임기응변의 재치를 결합한다.

프랑스 북쪽 Colleville-Sur-Mer에서 위쪽으로 멀리 떨어진 Omaha Beach에 아주 매력적인 2층으로 된 visitor center 세워져 1944년 6월 6일 독일군 점령지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2007년에 헌정된 이 건물은 녹색의 주변환경을 부분적으로 물속에 가라앉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날씬하고 긴 구조체는 화강석, 라임스톤, 그리고 목재를 사용하여 우아한 비례감과 이를 일구어낸 장인의 솜씨와 아울러 매우 인상적이다.

Detroit에서 시작되어 155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Washington, D.C.에서 215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Smithgroup의 'Culture Studio'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였다.

20에이커 규모의 이 새로운 visitor center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어 이전의 visitor center보다 현저히 주목을 끄는 위치에 있다.

이 건물 로비의 어두운 화강석으로 된 벽과 흰색의 화강석으로 된 바닥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 로비에서 방문객들은 영국의 해협을 반사시켜 마치 그 수면 위에 가지고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인공의 작은 연못을 보게 된다. 1층으로부터의 계단은 아래쪽 전시장과 타원형의 갤러리로 관람객을 인도한다.

또한, Gallagher & Associates가 디자인한 일직선으로 놓여 엄격한 인상을 주는 낮은 높이의 설치물들은 철제 메쉬를 떨어뜨려 장식한 천정과 콘크리트로 된 벽체와 더불어 건물을 보완해 주고 있다.

주전시장으로부터 흰색 회벽과 흰색 라인 스톤의 바닥으로 디자인 된 터널같은 공간이

관람객을 타원형태의 갤러리로 인도하며 갤러리 내부의 코르텐 스틸과 거친 질감의 유리 파티션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자연광과 전망의 인상적인 사용과 더불어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묘지의 예식을 위해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기록하게 치를 수 있도록 훌륭히 결합되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이 Normandy American Visitor Center는 기념관 건축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제안하고 있다. 

• Normandy American Visitor Center, France





이번 2008년 3월호 A+U(450호)에서는 작년에 작고한 남미건축의 상징 ‘로헤리오 살모나(Rogelio Salmona)’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A+U는 먼저 살모나의 약력과 함께 2007년4월4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의 생전당시 인터뷰를 싣고 있다. 3편의 에세이중 첫번째는 ‘로헤리오 살모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케네스 프람프톤(Kenneth Frampton)이, 두 번째는 ‘살모나의 뒷모습’이라는 제목과 사진으로 나이토 히로시(内藤廣)가,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사와 카오스’라는 제목으로 오스칼 아레나레스 베르가라(Oscal Arenales-Vergara)가 적고 있다.

■ 로헤리오 살모나 약력

남미건축의 상징이며 그 재능을 주로 보고타에서의 작품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로헤리오 살모나는 1927년4월28일 파리에서 스페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시기에 콜롬비아로 이주했다. 보고타의 테우사킬로(Teusaquillo) 경계에 있는 튜더양식으로 디자인한 집에서 성장한 살모나는 평소에 콜롬비아인인 것을 스스로 느끼며 자라났다. 그 후 콜롬비아국립대학의 건축과에 입학하고 건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1948년 내란때 파리로 이주해 10년 가까이 건축사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아래에서 일했다. 또 그동안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건축사이기도 한 장 프루베(Jean Prouve) 밑에서 함께 협력하여 일한 경험도 있다. 그 시기에 그는 일과 병행해서 공부도 계속하고, 루브르에서 잔 카스(Jean Cassou)와 함께 현대미술을 공부하기도 하고, 솔본느의 파리고등연구원에서 피에르 프랑카스테르(Pierre Francastel)가 주최하는 예술사회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 프랑스와 지중해제국, 북아프리카에서의 연구여행은 그의 직업상 체험을 더 없이 풍부하게 했다.

1957년 말 그는 콜롬비아로 귀국하고 보고타의 중요한 건축사들과 함께 발전적인 공공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룹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그의 그 후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었다. 보고타에 주거를 꾸민 살모나는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남부에 보여지는 건축의 전통에 근거한 작품을 계속

해서 빠르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무어인의 영향이 현저하고, 더욱이 이베리아인의 아메리카 대륙상륙에 발단을 만든 남미 고유문화의 흔적이 있었다.

그 후 50년 이상을 걸쳐 살모나가 계속 창작해 낸 새로운 건축은 콜롬비아 국내건축의 scene을 독점하였다. 그의 최초의 프로젝트는 도시계획과 공간적 불륨이용법의 밀접한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고, 거기서 강한 인상을 남긴 벽돌이라는 소재는 그 이후에도 그가 즐겨 쓰는 소재의 하나였다. 1970대 초 살모나는 보고타의 ‘파크타워’계획의 주거복합체에 집약된 엄밀한 건축의 표상을 만들어 내는데 도전하고, 그것을 보급한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살모나의 활동은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알려지게 되어 2004년에는 마침내 영예로운 알바알토(Alvar Aalto) 메달을 수상하였다. 보고타는 이제야 말로 그 외의 남미도시의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업과 더불어 살모나는 콜롬비아 국내에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적인 계층격차를 공격하고, 거기서 발생한 빈민층의 생활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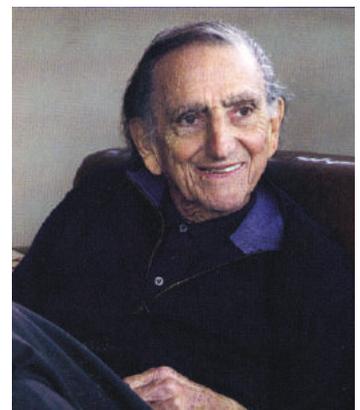
콜롬비아 국내의 건축상은 물론 많은 국제적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콜롬비아공화국건축상(1986, 1988, 1990), 아메리카건축사상, 범미건축사협회코스타리카지부(1999), 알바알토메달, 핀란드(2004), 미국건축사협회(AIA)명예회원(2006), 베네치아비엔나레건축부문금사자상(2006) 등.

로헤리오 살모나는 2007년10월3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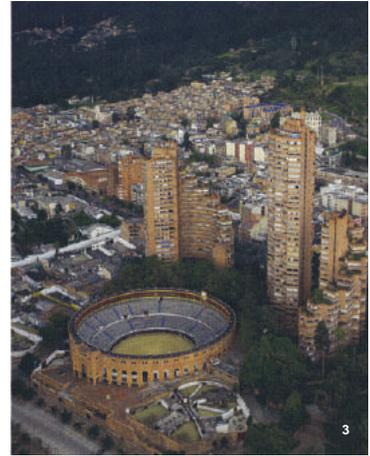


박종철 / 정회원,  
(주)인터스페이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chul,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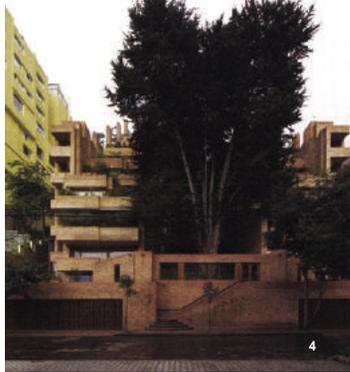
약력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현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소리(간양) 대변인  
현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건축사법개정TF팀 위원



• 로헤리오 살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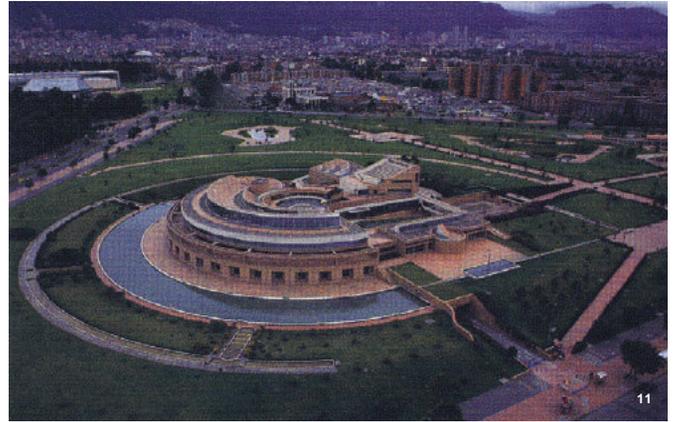


- 1\_리오 후리오 주택  
(살모나 주말주택 1997~2000/콜롬비아 쿤디나마르카)
- 2\_크리스티아나 집합주택군(1963~1970/콜롬비아 보고타)
- 3\_파크타워(1965~1970 / 콜롬비아 보고타)
- 4\_알토 데 피노스 집합주택(1976~1981 / 콜롬비아 보고타)
- 5\_카르타헤나 콜롬비아영빈관  
(1980~1982 /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 6\_노에바 산타페 집합주택과 도시개발  
(1985~1987 / 콜롬비아 보고타)
- 7\_노에바 산타페 집합주택의 커뮤니티센터  
(1994~1997 / 콜롬비아 보고타)
- 8\_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주택  
(1991~1996 /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 9\_콜롬비아국립공문서관(1988~1994 / 콜롬비아 보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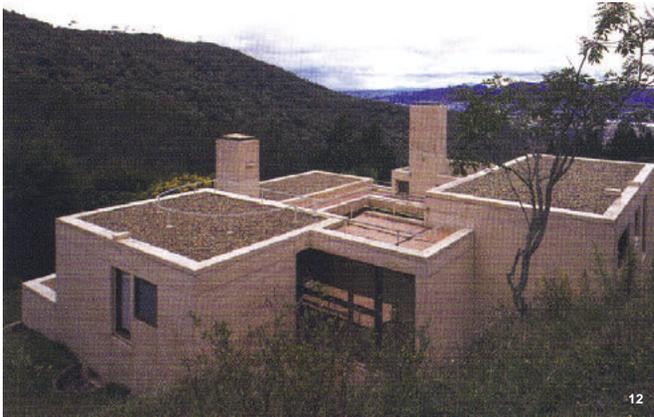




10



11



12



13



14

10\_ 콜롬비아국립대학 인간과학연구과대학병동(1995~2000 / 콜롬비아 보고타)  
11\_ 비르힐리오 바르코 공립도서관(1999~2001 / 콜롬비아 보고타)

12\_ 알타조르 주택(2002~2004 / 콜롬비아 쿤디나마르카)  
13\_ 힘나지오 폰타나 학교(1992~2005 / 콜롬비아 보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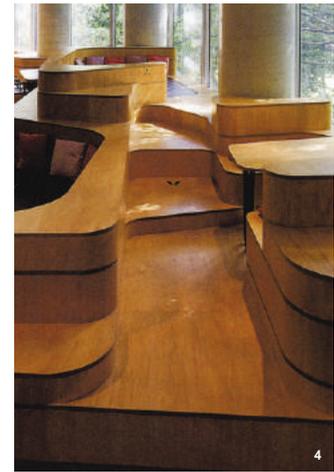
14\_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화센터(2004~2007 / 콜롬비아 보고타)

# 新建築



이번 2008년 3월호 신건축에서 ‘인테리어공간(INTERIOR SPACE)-작은공간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이 특집을 소개하면서 “건축과 공간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 특집은 그곳에 있는 기존 부분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각기 규모도 다르고 존재 가능한 시간도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는 신축과는 다른 공간의 실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그 만드는 방법부터 도시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의 스케일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의 실천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 ■ 인테리어공간 소개



1. 난요도 서점개수선 - 빛과 동선을 정리하고, 보다 거리에 열려진 서점으로
2. TKG 다이칸야마 - 거리의 일부가 되는 아크릴스페이스
3. 하쿠찌(笥座)의 빛나는 藏(茶室) - 찾집거리를 안에서 비추는 금박의 차실
4. 카에츠 협곡 - 액티비티하게 출몰하는 계곡같은 가구
5. BMW 그룹스튜디오 - 움직이는 비디오 벽이 만드는 윙통성 있는 공간
6. 쿠마구스의 숲 - 발포스티로폼의 입방팔면체가 만드는 공간



7\_ 装苑 70th +1PAPER FANTASY - 골판지라고 하는 흔해빠진 소재의 반복



8\_ RENO DMS - 보다 열린 설계사무소의 길 이노베이션

또 이번 호에는 대한건축사협회(KIRA) 회원으로서 건축실무와 회원의 의무를 병행하고 있는 필자의 눈에 특히 띄는 것이 있다. '사회로부터 인지되는 건축설계로' 라는 제하의 권두(卷頭)인터뷰다. 이번 인터뷰는 일본건축가협회(JIA)에서 처음 있는 회장선거에서 차기회장에 선출되어 금년 5월에 정식으로 취임하는 이즈에 유타카(出江寛) JIA 차기회장에게 일본건축설계업계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과, JIA 회장 입후보에 뛰어든 생각을 묻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 건축계도 현재 우리의 국내 건축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타산지석으로 여겨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행보에 도움이 되고, 우리 회원들에게는 협회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회장을 포함한 협회이사들의 노고에 따듯한 충고와 진심어린 격려를 기대해 보면서 인터뷰 내용을 옮겨본다.

卷頭 INTERVIEW - 이즈에 유타카(出江寛)

**사회로부터 인지되는 건축설계로 -전업겸업의 벽을 넘는 업무환경개선으로의 대처**

**누군가 목소리를 울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회장에 입후보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단지 설계사무소의 업

무환경을 어떻게든지 개선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자택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거고시가 있을 후에 훗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10지부의 우리, 도쿄, 훗카이도, 나고야를 제외한 7지부의 지부장과 이사가 저의 집에 와서, 회장에 입후보해 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장은 그럴 예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후보 한다면 이제 1기 지부장을 할 것 인가를 물으니, 모두 하겠다고 말하고 연판장을 써서 그렇다며 야 생각하고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열린 JIA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선거를 행한 것의 의미는 대단히 큼니다. 후보자가 마니페스트를 쓰고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해서 회원이 회장을 뽑는 것으로 JIA의 조직전체의 의사통일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니페스트에 '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개선' 이라고 적을 때에, 어떤 이사가 JIA는 소비자보호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업계만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고 싶은 내용을 내걸어도, 일반시민의 협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는 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니, 그 이사를 포함해 그곳에 있던 이사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에 선출된 것은, 많은 회원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사향**

저는 1987년에 단케젠조丹下健三선생(이하, 단케선생)에게 불려서 JIA의 전신인 신일본건축가협회의 본부이사가 된 이래 20년간 JIA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 사이 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대학교수인 지인이 유능한 학생에게 아파리에 설계사무소에 가도록 권해도, 근무환경이 나쁜 설계사무소를 경원시하고, 모두 하우스메이커나 제네콘(종합건설업)에 가버린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설계사무소에서는 젊은 직원이 낮은 임금도 싫다하지 않고 거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건축이 좋아서 설계에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젊은이들의 호의에 기대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성고시 1206호의 내용대로 보수가 지불되어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에는 이 고시를 준수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제출한 원고에 많은 설계사무소의 젊은 직원의 월급이 15~20만엔 이라고 썼더니 실제로 그렇게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IA의 차기회장이 그런 것을 적지 말아달라고 불평을 해온 설계사무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설계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건축은 꿈이 있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건축에 뜻을 품고 대학 건축학과에 들어온 학생이 실제 취업을 생각할 때에 설계 사무소의 급여가 사회의 일반적인 급여수준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설계로 먹고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면 우수한 학생은 건축설계계로 오지 않겠죠. 건축은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고 문화활동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前 수상이 제창해 온 「아름다운 나라」 등은 아무리해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사무소 직원이 번영은 고사하고, 사회 일반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무보수 풍조

제네콘과 하우스메이커의 영업담당자가 일을 수주 경쟁할 때 설계료를 무료로 하는 나쁜 풍습이 정착해 버린 것이 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큰 요인입니다.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 위에 설계/감리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한 큰 책임을 가진 건축설계자의 업무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설계/감리와 시공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공비에서 설계료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만, 설계/감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설계 사무소가 점점 압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와카야마현(和歌山縣) JIA지부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강연회 후에 어떤 설계사무소 사람으로부터 주택 설계의 일로 설계 제안을 해서 계약 단계에 된 후, 설계료를 무료로 한다고 하는 시공회사에게 일을 빼앗겨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사무소의 OB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설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많은 하우스메이커가 설계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의 영향이 크겠죠. 일반 소비자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설계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室内」의 편집장이었던 故.山本夏彦씨가 수년전의 週刊新潮의 기사에서 이대로는 머지않아 일본은 조립식주택의 전시장

되어 버릴 것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외를 자동차로 달리고 있어도 같은 조립식주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조립식주택에서는 일본 전통적인 주택이 가지고 있던 중후함과 맛이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가로수를 심어도 가로가 따분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하우스메이커의 주택에 건축주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의 반 이상은 선전비와 영업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 때문에 설계에 드는 비용이 점점 압박되고 있습니다. 설계료가 적어서 자사 내에서 설계가 어렵게 되면 하청 설계사무소에 발주하게 되고, 또 그 하청사무소가 거듭 재하청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듭 재하청을 받은 설계사무소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가혹한 상황에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좋은 설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설계환경이 지진 강도를 위장한 姉齒事件的의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장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이고 일반 시민입니다. 구입한 주택에서 내진 위장이 발각되어 해체되면, 그 후에 남는 것은 매월 주택용자금을 내는 것 뿐입니다. 피해가 있던 당사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말해도 설계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 건축예산의 투명화

무릇, 이러한 상황을 낳은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기와 제과 등의 식품과 건축재료 등 온갖 위장사건이 연달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민간건축에 관한 예산이 어디까지가 설계료이고 어디까지가 시공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주먹구구 감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감리 보수의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기업 제네콘의 영업담당 중역을 만났습니다만, 입찰에서 무리를 해서싼 가격으로 일을 가져와도 시공비만도 빼듯해서,

때에 따라서는 몇 천만 엔이나 되는 설계료를 변통해 내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공비의 이익 폭이 적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바로 적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철근을 빼먹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료가 확실하게 지불되도록 하면 대기업 제네콘에서도 시공비에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메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역도 반드시 설계비 유상을 법제화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설계사무소 뿐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제가 타케나카竹中 건설회사工務店の 설계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 당시의 사장이었던 타케나카竹中藤右衛門씨가 사내를 걷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언제나 나비넥타이를 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타케나카竹中藤右衛門씨는 타케나카 건설회사는 시공회사에 설계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사무소가 시공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 설계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료가 압박되는 풍조를 우려하고 있고, 제네콘의 설계비 유료화를 제창하고 그 밖의 제네콘에게 요청 했습니다만, 보조가 맞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 설계 감리 보수의 법제화로의 진입

2년간의 JIA 회장의 임기에 건축설계업계의 업무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처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운영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년으로 설계비의 유상을 법제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제화의 방향을 잡아서 레일을 깔아 갈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료 유상의 법제화 요청을 국가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람 수로는 어렵기 때문에 JIA 뿐만 아니라 건설업협회(BCS)를 포함하여 설계에 관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제네콘과 하우스메이커의 설계부사람 등 설계에 관한 모든 사람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나누는 이즈에 유타카(出江寛)氏

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건축가협회' 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설계관련자에게 설계료 유상법제화가 필요한지 어떤지의 앙케트를 받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70%정도의 사람은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성에 이야기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여하튼 변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JIA 회장임기는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멈추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정식 취임 전입니다만, 지금부터 설계료 유상의 법제화를 위해 타 단체에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후도 미디어로, 건축계의 현상과 설계료 유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점분리 달성 전에

JIA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의 하나로 설계자의 專業兼業分離(이하, 專兼分離)를 얻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경위와 앞으로도 목표로 해갈 것인지를 들려주세요.

전후, 미군총사령부GHQ의 맥아드윈사가 일본에서도 歐米처럼 설계와 시공의 분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歐米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시공회사가 설계를 하는 것(兼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

게해서 제3자의 감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일본의 제네콘은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목수가 주택을 짓는 전통이 있는 일본에서는 전후 부흥을 위해 급속도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던 당시의 풍조도 일치해서 전점분리는 이루어 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단계선생이 전점분리를 목표로 내걸고 초대회장이 되어 JIA전신이 되는 신일본건축가협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점분리를 위한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움직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도 신건축가협회에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단계선생은 회원을 3만 명으로 늘려서 그 표로 의원을 움직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일부 건축사가 회원을 늘리면 단체로서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해 입회를 거부, 실제에는 약 8,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회원은 감소하고 현재는 4,800명까지 줄어버렸습니다.

JIA가 단계선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20년간에 걸쳐서도 달성하지 못했던 전점분리를 곧바로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겸업을 해왔던 제네콘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좌우 다리를 떼어놓는 것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료 유상법제화를 실현하고 건축생산에 있어서의 설계시공분리 방식과 설계시공일괄방식 각각의 이해득실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네콘과 설계사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될 것 입니다.

### 그 밖에 건축설계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까?

설계자 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QBS(資質評價) 방식에서는 과거 3년간의 설계실적을 묻는 경우가 많 습니다만, 병원과 학교같이 규모가 큰 건물 설계 경험이 되면 대기업의 제네콘과 설계사무소로 한정되어져 아프리카派의 개인사무소는 배척되어 버립니다. 설계실적을 손에 넣기 위해 설계입찰에서 덤핑을 한 조직설계사무소 이야기기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일찍

이 저는 개인적으로「最高裁判所」현상설계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이 된 岡田新一씨랑 丹下健三씨와 경쟁해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新國立劇場」의 현상설계에서도 마지막 5인중 유일하게 일본의 작은 개인사무소 설계자로서 남았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없으면 어떤 지명현상에서도 요청이 없습니다. 다른 업계에 눈을 돌리면 金原히토미상은 19살에 芥川賞을 수상했습니다. 문학계는 젊은이에게도 넓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건축계에서는 제안현상설계에서도 실적이 중시되어 그런 등용문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숨겨진 실력자를 발굴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7개 시책의 하나로 회비의 재검토와 지부 지역회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JIA운영 자금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지금까지는 연간 36,000엔의 회비 외에 각 지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인상하여 기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각 회원에 대해서 공평한 운영을 해가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계한 것으로 말하면, 2011년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UIA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10일 일정의 대회기간을 위해 6억 엔의 운영자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남는 비용을 세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국제 공원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부, 지역회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주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의 약 70%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중 10%를 나고야가 점하고 있고, 그 나머지 20%를 그 이외의 모든 지방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설계사무소가 지방의 일까지 진출해 있어 지방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㉞



##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 주택정책



차학봉 저 / 151쪽 / 5,000원 / 삼성경제연구소

지난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지역개발과 관련된 선거공약과 관련, 아직도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겨울 대선 당시 집권당의 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선거시즌을 맞이하여 정당들은 물론 수많은 단체들과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듯하였으나 집권당이 총선공약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정당간의 정책쟁점사항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지만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공약을 이것저것 내놓았고 이것들이 소란의 주인공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세종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거점 개발 등이 그 내용인데 특히 서울의 경우 선거기간 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내세운 해당지역 뉴타운 개발 공약의 경우 개발지역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의견의 차이로 인해 공약실천가능 여부를 가지고 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개발 공약들의 대부분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로 구축된 로드 맵 내에서 제안, 추진 계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공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지역에 대응한 부동산정책으로 소위 '강남의 집값 잡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안된 정책 중 하나다. 단순히 강남지역과의 격차해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선심성 공약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을 곤혹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국토개발 정책에서부터 광역도시계획, 대형 주거단지를 비롯한 도시계획 등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장기적으로 검토,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차원의 미래, 아니 더 나아가 향후 세계의 변화를 예측,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산업 및 경제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 및 지역정책의 수립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여겼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어느새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웃 일본에서 국토 및 주택정책의 골격과 초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국토 및 주택정책은 단순히 실버주택 공급이나 연금제도 실시처럼 일부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으며, 고령화 사회의 인

**고령화 사회의 국토 및 주택정책은 단순히 실버주택 공급이나 연금제도 실시처럼 일부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으며, 고령화 사회의 인구 및 공간구조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토 및 주택정책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구 및 공간구조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토 및 주택정책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1년간 일본 사회를 돌아본 저자의 시각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발전에서 따른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에 따른 저출산,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료발전에 따른 인간 수명의 연장에 의해 기인되었다. 이러한 고령화는 생활양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 도시에서는 소자녀화-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급속한 재정 악화와 산업공동화를 겪고 있으며, 고령자 부부, 단신 세대가 급증하면서 포스트 모던한 주택수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실버 주택의 수요가 늘었고, 역모기지제도 같은 고령자의 주택 자산활용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현재 일본의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는 고령화 현상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저자는 일본의 사례를 통한 우리의 향후 국토 및 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 전환을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모든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의 원인이 인구의 노령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저자의 의견을 누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